



나국민

나는 국민이다

나는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있는 국민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주인이자 권리를 가진 국민이다

나국민

나는 국민이다

나는 표현의 자유를 가진 사람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있는 국민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주인이자 권리를 가진 국민이다

나국민

나는 국민이다

나는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있는 국민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주인이자 권리를 가진 국민이다

차 례 (장별 차례)

1장. 나국민, 나는 국민이다	1
2장. 우리의 현실: 대한특수성	86
3장. 인재경영(적재적소), 사람사는 사회, 사람이 세상을 만든다	215
4장. 세계화 = 자신의 발견	254
5장. 미래준비	272
6장. 부패방지= 소금의 역할	277
7장. 사람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	325
8장. 공동체: 공정한 조건, 대화타협 네트워크 소통, 조정	337
9장. 행복조건	342

차 례 (내용별)

1. 나국민	1
1.1. 나국민이란?	3
1.2. 인류문화를 통한 상식	5
1.2.1. 의식의 수준	7
1.3. 우상을 벗어라. 4대 우상	31
1.4. 명언감상	34
1.4.1. 명언풀이	34
1.4.2. 명언모음	37
1.4.3. 속담	51
1.4.4. 속담 만들기	52
1.4.5. 언어와 이성	55
1.4.6. 세상을 바꾸려는 10계명	56
1.5. 건국신화	57
1.6. 너 자신을 알라. 지피지기 백전불태, 아와 비아의 관계(net work) 그리고 마음	58
1.7. 세상을 위한 10가지 비결(위세십결)	61
1.8. 국민사관에 의한 역사를 통한 국민의 재인식(목표설정)	62
1.8.1. 역사적 사건을 통한 정부역할에 대한 고찰	67
1.8.2. 진정한 행복의 추구	68
1.9.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	71
1.9.1. 정의란 무엇인가? 바로보기	71
1.9.2. 정의와 민주주의	72
1.9.3. 정의를 세우지 않고 법치국가, 선진국, 국민행복을 논하지 말라 ·	73
1.9.4. 민주주의 그리고 노동자	74

1.10. 대화, 타협 그리고 소통	81
1.11. 지도자를 위한 참고자료 < 명상록 >	83
1.12. 인용문헌	85
2. 우리의 현실: 대한특수성	86
2.1. 선거	87
2.1.1. 선거에 대한 국민 중심적 가치	87
2.1.2. 선거과정(후보자 선택)	93
2.1.3. 선거에 대한 잘못된 의식(선거냉소에 대한 의견)	95
※ 참고 자료: 언론기고문	96
2.2. 선거문화	98
2.3. 선거참여의 기본적 자세(조건)	101
2.4. 흑백논리, 갈등, 세대차이 그리고 대화가 되지 않는 이유?	104
2.4.1.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부정적인 말	107
2.4.2. 우리는 이제 긍정의 세상으로: 긍정적인 말	125
2.4.3. 아름다운 세상은? 자연스런 대화로부터!	128
2.5. 지역감정의 해소, 이념갈등, 화합의 길	129
2.6. 보수와 진보	148
2.7. 우상	149
2.7.1. 지역우상	150
2.7.2. 과거 기억우상	151
2.7.3. 존대 언어우상	151
2.7.4. 생활환경형 고정관념 우상	151
2.7.5. 기득권 우상	152
2.8. 현안문제	153
2.8.1. 중년 가장의 호소, 애타는 자살 청춘, 이어지는 청소년 자살을 생각한다.	153
2.8.2. 국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본적 접근	154

2.8.3. 일자리: 청년문제, 노년문제, 범죄문제	155
2.8.4.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반성(인권, 노동, 교육, 관습, 행복권 등)	157
2.9. 교통사고	162
2.9.1. 교통사고 1위에 대한 제안	162
2.9.2. 교통사고 줄이기 제안서	162
2.9.3. 경찰청 답변서 :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관실 입니다	164
2.9.4. 교통과 답변에 대한 의견	165
2.10. 참고 : 언론기고문	169
2.11. 인용문헌	214
 3. 인재경영(적재적소), 사람사는 사회, 사람이 세상을 만든다	215
3.1. 사람사회	215
3.1.1. 세계인권선언(전문)	215
3.2. 인권선언에 국민소감	220
3.3. 공정사회: 기회공평, 재판공평, 인권공평	223
3.4. 고전경영	225
3.5. 표현(사상)의 자유, 직업, 인권, 국적(거주이전)의 자유	226
3.6. 인재경영, 교육에 대하여	228
3.6.1. 인재경영	228
3.6.2. 한국의 교육과 사회현상에 대하여	231
3.7. 정치제도	235
3.8. 자유	240
3.9. 인권의 평등, 정의	243
※ 참고: 언론기고문(법과 평등에 대한 사회현실)	246
3.10. 인력자원: 현 정치계 인사는 생략함	248

3.11. 정치가의 조건: 상식과 특정분야의 전문가로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	248
3.12. 대권자의 가치관: 지천명을 아는 사람, 시대사상을 아는 사람	249
3.13.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사귀고 싶은 사람들의 특징): 보편적인 인재상 가치	250
3.14.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사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	252
3.14. 인용문헌	253
4. 세계화 = 자신의 발견	254
4.1. 국제관계= 힘의 논리를 정의논리로	255
4.2. 2011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관계	257
4.3. 참고자료	266
4.4. 세계화의 에너지문제 시사점	268
4.5. 인용문헌	271
5. 미래준비	272
5.1. 미래전망	273
5.2. 공정사회-특히 우선적으로 공직사회	275
6. 부패방지= 소금의 역할	277
6.1. 어떤 관료	281
6.2. 리크스 선언	284
6.3. 공무원의 자세	285
6.4. 몇 가지 사회현상에 대한 국민의 생각	288
6.5. 생명, 노동환경	292

6.6. 농업기술, 농업정책의 비전, 농진청	293
6.6.1. 농업의 위치와 인식전환	293
6.7. 공무원 조직문화(표현자유, 신상필벌, 내부고발)의 개선방안	296
6.8. 참고자료: 언론기고문	302
6.9. 인용문헌	324
 7. 사람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	325
7.1. 여자	328
7.2. 남자	329
7.3. 여성, 남성 그리고 사람!	330
7.4. 어린이님	331
7.5. 청소년에게	333
7.6. 청년에게	334
7.7. 장년에게	335
7.8. 인생의 정년기, 노년에게	336
 8. 공동체: 공정한 조건, 대화타협 네트워크 소통, 조정	337
8.1. 국가조건 : 국민, 영토, 정부	338
8.2. 국민의 역할	338
8.3. 정부의 역할	340
8.4. 정부의 현안문제	341
 9. 행복조건	342
9.1.1. 국민의 행복(조건) 이야기	343
9.1.2. 가정의 행복을 위한 시행착오 바로보기	345
9.2. 행복 찾기 여행	347
9.3. 거룩한 일을 행하라. 모두가 행복하다!	349
9.4. 나의 희망찾기	353

9.5. 자아실현	355
9.5.1. 공감대 조성	355
9.5.2. 자아실현에 대한 접근	355
9.5.3. 자아실현 이전에 개인문제	357
9.5.4. 자아실현 이전에 공직사회의 부패는 내부정화로 시작해야	359
9.6. 참고자료: 언론기고문	361
9.7. 인용문헌	369

서문

우리는 새로운 세기가 되면 마치 새로운 세상이 될 것으로 말해왔다. 20세기 끝자락에서 세기의 기운에 이끌려 당연히 사람의 마음이 변한다고 그럴듯한 사상이 있는 것처럼 말했다. 우리는 21세기를 그렇게 마음을 설계면서 맞이했다. 하지만 설레임도 잠시 권력을 이용한 인간의 욕망과 사익추구로 대변되는 자본주의 사회는 그 동안 인류가 이루어 놓은 모든 가치를 짓밟아 버리는 시대적 역행의 과오를 범하고 있다.

우리는 근대이후 국민의 희생을 치루면서 419 혁명, 제주 43 혁명, 518 광주 시민혁명, 87 국민민주화 혁명을 통하여 민주화를 이루어 왔다. 하지만, 권력은 지금까지도 국민을 속여 왔다. 금강산 평화의 댐, 4대강 사업, 언론 종합편성 사업 등으로 권력의 사조직화를 하였다. 또한 국민을 위한 정부론의 시각으로 보면, 국민 모독, 국가 모독적 사건이 자행되어 왔다. 최근 용산 이주민 불태우기 진압 및 은폐조작 사건, 고층 타워크레인 농성의 김진숙 의사 때문에 알려진 한진중공업 국민노조 학대 사건, 쌍용자동차, 유성기업 국민노조 학대사건 등 기업의 국민학대 사건을 필두로 삼성기업의 노조출범 탄압의 국민노조 학대사건을 정점으로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언론 3사를 비롯한 언론노조 탄압과 은폐조작 사건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2008년부터 이어진 “언론통제와 개인권력 및 기득권을 위한 언론탄압은 직접적인 선전포고형 국민학대와 국가의 자기부정 모순 사건이다.”

인류가 사회를 이루기 시작하면서 국가의 보편적 이상은 백성의 평안이었다. 지도층은 이러한 공공의 안위를 확보하는 대가로 얻은 것이 권력이다. 이 권력을 중심으로 기득권이 형성된다. 이 기득권에는 권력의 임무에 대한 대가도 있지만, 필요이상의 권력행사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현대사회의 특징을 사익추구의 시대로 규정한다. 상당수가 권력을 이용한 사익추구에 혈안이 되어있다. 이것이 사회의 기득권 문제이다. 필요이상의 기득권이 부패로 표면화 된다. 이 기득권은 권력에 대한 부

패의 산물로서 우리사회는 자세히 보면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부패자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 부패분량이 많아지게 되면 권력이 없는 시민은 생활이 힘들고 노력과 능력은 있어도 신분상승이 어렵게 된다. 구조적 부패상태라고 할수 있다. 이렇게 되면 소시민,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은 기득권과 이권에 개입된 사건에 얽히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심하면 죽음까지 당한다.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생활권리는 물론, 표현의 자유라는 천부인권마저 강탈당하면서 노예수준으로 전락하게 된다.

권력에 도전도 아닌, 권력에 조금이라고 저촉되면 권력자는 그 상대를 가차 없이 짓밟아 버린다. 이때는 모든 사회 안전장치인 사법, 행정, 언론, 인권제도는 물론 개인의 지인도 모두 권력자의 편에서 소시민을 짓밟아 버리는데 동참과 방관을 조장한다. 게다가 거대하고 단단하게 형성된 가진자의 카르텔의 담합은 또 하나의 불법시스템 확인장치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억울한 일이란 사회의 완벽하지 못한 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권력자의 사익추구와 국민의 권리가 상충되는 사람이 겪어야 하는 것이다. 권력자의 임무는 공익추구 이지만, 공무상 나타난 과오문제는 비리대상으로 거론도 되지 못한다. 이런 사태가 언제든지 발생가능한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다.

일반 사회 곳곳에서 언제든지 국민이 겪어야 할 것들이다. 권력이 없는 국민은 이 권력층의 비리에 인권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권리를 강탈당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국민이 처한 상황이다. 이러한 부패 만연사태는 어느 특정 지도자의 출현으로 개선되지 않는다. 권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쟁취되는 것이라고 하듯이 국민의 기본권도 비리권력자와 싸워서 얻어내야 하는 것이다.

만약, 국민이 기본권을 빼앗기지 않을 의식과 지식이 있다면, 권력자의 만행과 횡포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나쁜 권력자를 선출하지도 않을 것이다. 일명 깨어있는 시민의식, 국민의식을 체득하였을 때 가능한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은 물론, 행복추구권을 행사하여 좋은 지도자의 계속된 배출이 정착하여야 한다. 그동안 독재자와 나쁜 지도자는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행태를 보여 왔다. 하지만, 어떤 정부는 언론을 통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가로막고 천부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여 왔다. 또한 기득권은 국민을 죽이는 데 있어, 국민을 대상으로 가공된 언론조작과 탈법과 속임수로 악용하여왔다. 이것은 동물농장의 나쁜 지배자가 만든 국민과 인류사회적 차원에서 위기로서 국민은 나쁜 정부에 속지 않을 권리를 배우고 사회를 감시해야 하는 사태이다.

나는 국민으로 참정권과 자유권이 있어야 한다. 최근 나가수가 인기였다. 여기서도 “나 국민”은 “나는 국민이다”의 줄임말이다. 나국민은 나는 주권있는 국민이다. 국민은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목적과 의무를 인식한 눈동자로 지켜보아야 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그것만이 정치사회의 기득권이 생기지 않게 하고 정부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유럽에서는 초대형기업 리먼브라더스 파산 후 신자유주의 종식선언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신자유주의 추종국가 특등으로서, 교통사고 1위, 자살률 1위, 행복지수 꼴찌에 속한다. 게다가 노동시간은 선진국 1800시간, 우리 2500시간으로 노동시간 최다시간 국가이다. 이렇게 국민의 행복은 처참한 지경에 있다. 세계경제 10위권이라는 미명하에 지금도 국민은 신음도 내지 못할 일정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는 “바쁘게 사는 게 좋잖아!” 라는 말을 흔히 들어왔다. 바쁜 것이 정상이고 미덕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는 일 없이 한가하면 마치, 능력이 없어서 빈둥빈둥 논다는 소리를 각오해야 한다. 사회생활에서 타인의 눈을 기본적으로 감안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타인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우리의 문화 속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사실 편안해 하지는 못한다. 너무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주관이나 가치관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심심풀이 타인의 평에 일희일비 하면서 사는 게 아닐까?

더욱이 특별히 할 일이 없는데도 바쁘척한다.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심사숙고 과정이 있어야 효율이 좋다고 알려져 있

다. 그럼에도 검토과정이 빠진 “뺨할 뺨자” 시행착오의 우려가 있는 것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은 교통사고 1위 자리를 장기적으로 지키는 바쁜 척 문화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효율은 선진국에 비하여 훨씬 떨어진다고 한다. 즉, 쓸데없이 바쁘다. 할 일은 많지만 이를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바쁜 척 문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바쁘지 않게 일한다는 표어를 내 놓아야 할 판이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집중도를 높여야 성취도가 높아질 것이다. 방법은 절제하여 이루고 싶은 것을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집중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반대로 하면 항상 바쁘고 쓸데없이 시간이 없고 나중에는 이루어 놓은 것이 잡히지 않는다. 우리 모습이다. 쓸데없이 바쁘지 말아야 하고, 원하는 것은 이루어 성취도와 행복 지수를 높여야 하지 않을까!

이 글은 깨어있는 시민의식의 초석이 되고자, 국민의 권리 찾기를 위하여 수많은 자료를 모으고, 순수한 여러 사람의 말을 듣고 정리하여 쓰여진 백성을 위한 마음의 표현이다. 국민의 생리적 행복을 넘어 자아실현을 국가 목표를 삼고 나아가 동아시아는 물론, 지구촌에서 널리 사람에게 이롭게 하는 사회운동의 출발이 되고자 국민의 이름으로 제안한다. 활시위를 한껏 당겼다가 밤하늘을 향하여 쏜다. 온 국민이 바라보는 그 날까지. 나국민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원하면서.

2012. 7. 26.

수원 화성장대에서

저자대표 희망실천가 남춘우

공저: 차영순, 박기관, 이영창, 홍순영, 박경애, 정용천, 조병희 등

남훈 Bani
희망실천
2011.3.12
박원순

<박원순 님께서 희망실천을 지지함>

서시

나는 국민이다.

권력자의 정의로운 길을 보게 되기도 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때때로 불의도 겪게 되는 국민이다.

다만, 우리가 가야할 길을 위하여 선택할 권리가 있다.

선택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관련사실을 알아야 한다.

국민이 알기 위해서는 언론이 살아있어야 한다.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비로소 이때, 사실에 접근할 기반이 갖추어진 것이다.

자유로운 표현에 의하여 인간의 삶의 이야기, 학문, 과학, 예술이 살아있어야 한다.

정의는 태산이 무너져 앞을 가려도 쉽게 보이는 것이다.

칸트는 이런 이유로 정의는 하늘이 무너져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정의를 아는 것은 너무나 쉽다.

다만, 실천이 어렵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특히 어렵다.

민초들은 실천도 쉽게 한다. 사욕이 없고 명예욕심도 없고 법을 자기 멋대로 이용하지도 않기에 너무나 쉽다.

하지만, 정치가들은 다르다. 권력으로 수많은 민초를 짓밟으며 다닌다.

저들도 정의가 무엇인가를 안다. 다만, 실천하기가 어려울 뿐이다.

특히 욕심꾼들이 정의를 실천하기란 낙타가 바늘구멍 빠져 나가기보다 어렵다. 정의는 욕심을 버리면 가장 쉬운 것이다.

이런 이유로 국민은 자신의 지도자 선택에서는 무엇보다도 욕심쟁이는 세우지를 않아야 한다.

그것이 지도자를 보는 가장 중요한 안목이다.

정의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사람에게 있어 정의는 본능이다.

이것이 신에게 부여받은 인간의 능력이다.

만물을 지배할 능력을... 다만, 능력을 포기하고 살 뿐이다.

정의는 긴 이야기가 아니다. 역사도 아니다. 어쩌면 정의는 배워야 하는 게 아니라 본능에 충실해야 하는 덕목이다.

행위에 대하여 한순간의 선악의 구별이다. 그 시점에 감각적으로 옳은 일이다. 이것이 정의다. 사람이 부여받은 본능이다. 이것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아닐까!

무엇이 정의롭다는 판단은 순수한 국민에게는 가장 쉬운 것이다.

과거 20년 이상을 중간정도의 정치가로 잘 해왔어도 앞으로 5년을 책임질 비전이 없으면 그 자리에 올리면 안 된다.

과거 20년이 중요하지만 미래의 5년은 더 중요하다.

자칫하면 과거 20년이 족쇄가 되어 단 한 걸음도 전진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마치 20km를 선두로 달린 마라토너가 중도에 기권을 할 수도 있는 것처럼 말이다. 마라톤 선수가 반환점 이후를 생각지 않았다면 중간이 될 수도 있고 꼴지가 되기도 한다.

미래는 관찰이다. 과거의 기록과 현상을 제대로 읽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측하는 안목이다. 미래는 과거와 현실을 얼마나 잘 보았는가에 달려있다. 미래를 위하여 존재한다. 미래를 보고 가야하는 운명이다. 과거를 보면 국민의 역적이 될 뿐이다. 과거가 찬란하였다고 그것을 쫓아가면 퇴보일 뿐이다. 박통을 흉내 내면 그나마 있던 장점마저도 사라져 버린다. 마치 MB처럼.

그런 면에서 정치(政治)는 미래다. 퇴보가 아니라 최소한 진보이어야 한다. 1년 앞을 내다보았느냐? 10년 앞을 내다보았느냐? 100년 앞을 보았느냐? 의 차이일 뿐이다. 선인들은 중용을 통하여 군자는 100년 이상을 내다 볼 안목을 키워야 한다고 하였다.

지금처럼 30년 퇴보이니 100년 퇴보이니 하는 것은 정치라고 할 수 없다. 폭정이라고 하든가? 악정(惡政)이라고 해야 한다.

과거의 성과가 미래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기에 정치는 철저하게 미래이다. 지난 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 선수라고 다음 대회에 대표선수로 뽑지 않는 것처럼 정치가도 대권주자도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운동선수는 한번 얻는 기술은 유지가 가능하지만, 정치가는 예지력이 필요하여 수많은 지혜와 추진력이 없으면 불가능하기에 더 어렵다. 따라서 정치는 함부로 뛰어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동안 순수정치와 상관없는 철면피들이 선점하여 물을 더럽혀져 정치입문은 기본적으로 철면피 기질이 없으면 나갈 수 없는 난장판이 되었을 뿐이다.

앞으로 나국민은 알 수 없는 미래를 이끌어줄 해안의 헌신자를 찾을 뿐이다.

정의에 밝은 것처럼 국민은 안목이 필요하다. 원래 국민은 안목이 있다. 눈동자가 많아서 그렇다. 다만, 그동안 못된 폭군이나 악정의 소인배가 국민의 안목을 가리거나 짓밟았을 뿐이다. 지금도 눈동자를 가리거나 아예 봉사로 만들어 놓고 스리슬쩍 차지했을 뿐이다.

국민은 경청의 귀가 있다. 사심 없는 밝은 귀라서 작은 신음소리도 놓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예민한 귀를 기증기 소리보다 더 큰 포크레인 소리로 먹어버리고 탱크처럼 밀고 갈 뿐이다. 폭압을 하면서 착각 속에 유체이탈 화법으로 자화자찬 하는 자가 갈 자리는 아니다.

국민은 바른 말 하는 천부적 재주가 있다. 그 덕분에 그 나라는 똑바로 선다. 사심 없이 말하는 국민의 소리를 소중하게 듣지 않는 자가 올라갈 자리가 아니다. 선악은 지극히 기본이고 미래의 국민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군자가 서야할 자리이다. 현재 국민이 자살하고 삶에 허덕이는 것은 선악의 구별도 하지 못하고 정의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자들이 정치판에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성의 덕망도 없고 정치이상도 없고 정의본능도 상실한 파렴치한 들이 너무나 많다. 당장 국민의 이름으로 저들을 내려야 한다.

수많은 국민의 언론을 막고 도적처럼 하루저녁에 해치워서는 안되는 게 정치이다. 게다가 공영언론을 가리는 것도 모자라서 쓰러뜨리는 폭군은 이미 반칙이다. 이것이 곧 악정이다.

반장이나 이장도 해서는 안 되는 사회성이 낙제이고 지혜가 없는 독불장군일 뿐이다. 생각해 보자, 작은 이장이라도 저렇게 하면 무슨 일이 되겠는가? 반장이나 이장은 비정치적인 자의 제한구역이다.

미래는 과거 10년처럼 답습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해안이 없으면 최소한 국민이 지혜를 받아드릴 판단력이라도 있어야 기본은 할 것이다.

나는 이 땅의 주인이다.

이 땅의 나라가 어떤 이름이든지 그 나라의 주인이다.

내가 이 땅에 세를 들어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나라에 빚을 진 것도 아니다.

이런 사람이 모여 국민이고, 곧, 나국민이다.

이 나라의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줄 헌신자가 필요할 뿐이다. 그리고 100년을 전진할 진보적이어야 한다. 그를 우리는 지도자라고 부른다. 봉사할 사람이 아니면 지도자가 아니라 명예욕이나 권력욕이나 사리사욕의 욕망으로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국민은 그것을 무늬만 지도자라도 부른다.

국민에게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올라갈 자리가 아니다.

국민의 눈물의 의미를 모르면서 올라갈 자리가 아니다.

이편, 저편으로 나뉘어 한쪽의 욕망으로 가득차서 다른 한쪽의 국민의 가슴에 원한을 쌓이게 하면서 올라가 자리가 아니다.

국민의 원망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일방적 서민타령은 어울리지 않는 사기꾼일 뿐이다.

노망든 꼭두각시 허수아비 명예욕에

역사 대대로 안 좋은 기억으로 제2의 이완용의 득세를 막지 못하면!
가장 역겹다는 썩은 토사물을 자신의 입으로 껌! 대며 자기 스스로 우
겨넣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국민에게 이 땅에 사는 것을 자부심으로 살고, 법 없이도 사이 좋게 이웃
사촌으로 사는 민초에게 희망을 줄, 국민이 행복한 이야기보따리가 있어
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폐만 끼칠 뿐이다.

이 민초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들의 행복을 지켜줄 의협심이 있고
이 민초에게 사기치며 사는 저들을 지혜의 힘으로 막아내고
이 민초에게 위협하며 폭압하는 저들을 물리치고

중간 권력자의 사리사욕에 현혹되지 않을 가치관과
자본을 권력화하는 저들의 파워를 일탈의 권력으로 만들지 않을 선행의
길로 이끌어낼 지혜와 균형감각을 잃지 않을 예민함의 눈동자가 필요하
며 미래로 나아갈 진보적 창의를 필요하다.
희망의 나라로 가는 길을 창의로 개척하는 재미를 알고 있는 이야기가
필요하다.

그 자리는 자신만의 일견으로, 혼자 후딱 해치울 사람이라면 그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
김서방과 마당발 기자도 모르게 은밀함을 즐기는 자는 어울리지 않는다.

선량하고 성실한 이들의 희망을 누구나 인정하는 과정을 거쳐 현실로 만
들어내는 지혜와 추진력과 인내력을 갖추고 나아가는 진보적인 자리다.
보수는 진보적인 지도자가 나오기 까지 퇴보를 막아내는 수문장이다. 최
소한 퇴보를 막는 것이 보수이고 보수도 못하면 퇴보자가 되는 것이다.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작금 진보자가 필요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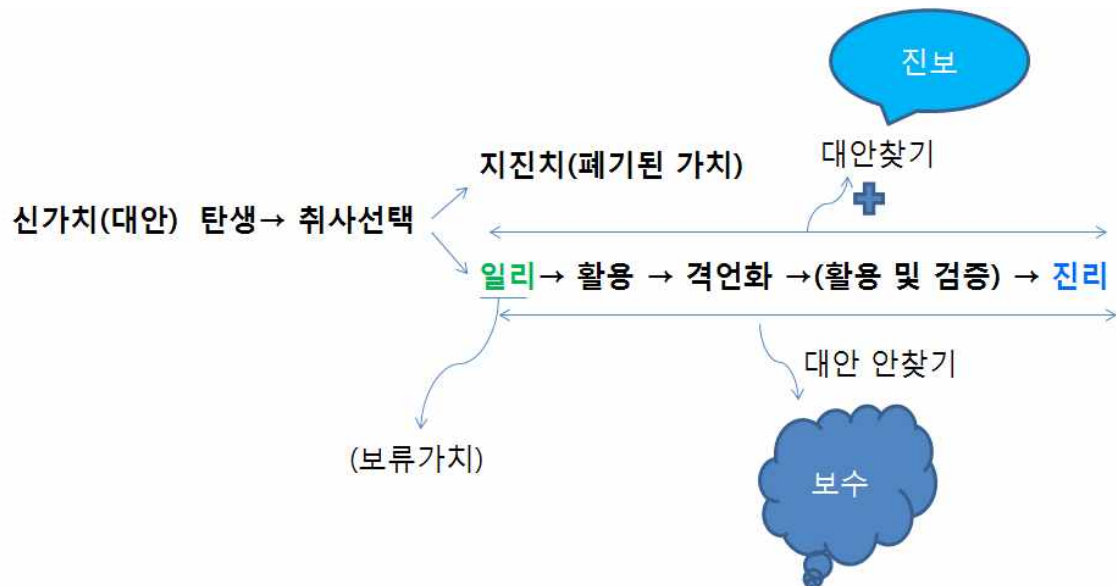
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보수를 바탕으로 진보하여야 하는 것이다.
보수는 일종의 퇴보방지를 위한 버팀목에 해당한다.
마치 평상시 교육은 유능한 인재인 발명가, 대학자, 과학자를
수많은 교육자가 묵묵히 기다리며 헌신하듯,

보수는 진정한 진보를 위한 디딤판이다.
보수는 영혼이 없는 자가
자유로운 미래로 가기 전에 두려워서 서성이는 임시역일 뿐이다.
보수는 아주 오래전 과거의 아픔을 해결한 지금의 억압이기도 하다.
아주 오래된 보수가 아직도 우리를 편하게 한다면
그것은 보수가 아니라 일리를 넘어서 진리에 가까이 간 인류문화이다.
우리를 억압하는 보수를 고치는 것이 진보이다.

진보는 진리가 아니라 현재의 대안이다.
진보는 인간이 발전하는 자연스런 수순이다.
고래로 인간을 억압하는 진보가 있다는 소리가 있는가?
중도보수 욕망 속에서 뒤엎힌 원한을
진보는 잘못된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인간의 원한을 풀 수 있는 도약판이다.
진보는 인간을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마음의 치유이다.
진보는 보수의 반대말이 아닌
억압하는 보수의 해결책이다.
억압하는 보수의 반대는 진리이다. 진보는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해야하지 않을까!
보수는 보수라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인류가 아직까지는 간직할 가치가 있
어서이다.

보수는 인간이 추구해야 할 검토의 대상이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보수하려는 사람은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
 마치 네모판에서 둥근공으로 밝혀졌듯이
 보수가치는 계속하여 인간에게 검토의 대상이다.
 과연 그 보수는 버릴 것인가? 진리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보류하며 더 두고 볼 것인가?
 보수의 반대말은 진보일까? 아니다! 보수의 반대는 진보가 아닌,
 인류가 버린 폐기처분한 폐기생각! 폐기치이다.
 쓰레기이다.
 가치는 대강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생로병사한다.



진보는 새로운 세상에서 화합을 이끌어가는 지혜 이어야한다.
 진보는 현실의 억압에 지친사람을
 자유로운 영혼의 길로 안내하는 여행이다.

2012. 7. 26. 별을 헤아리며
 화성 북노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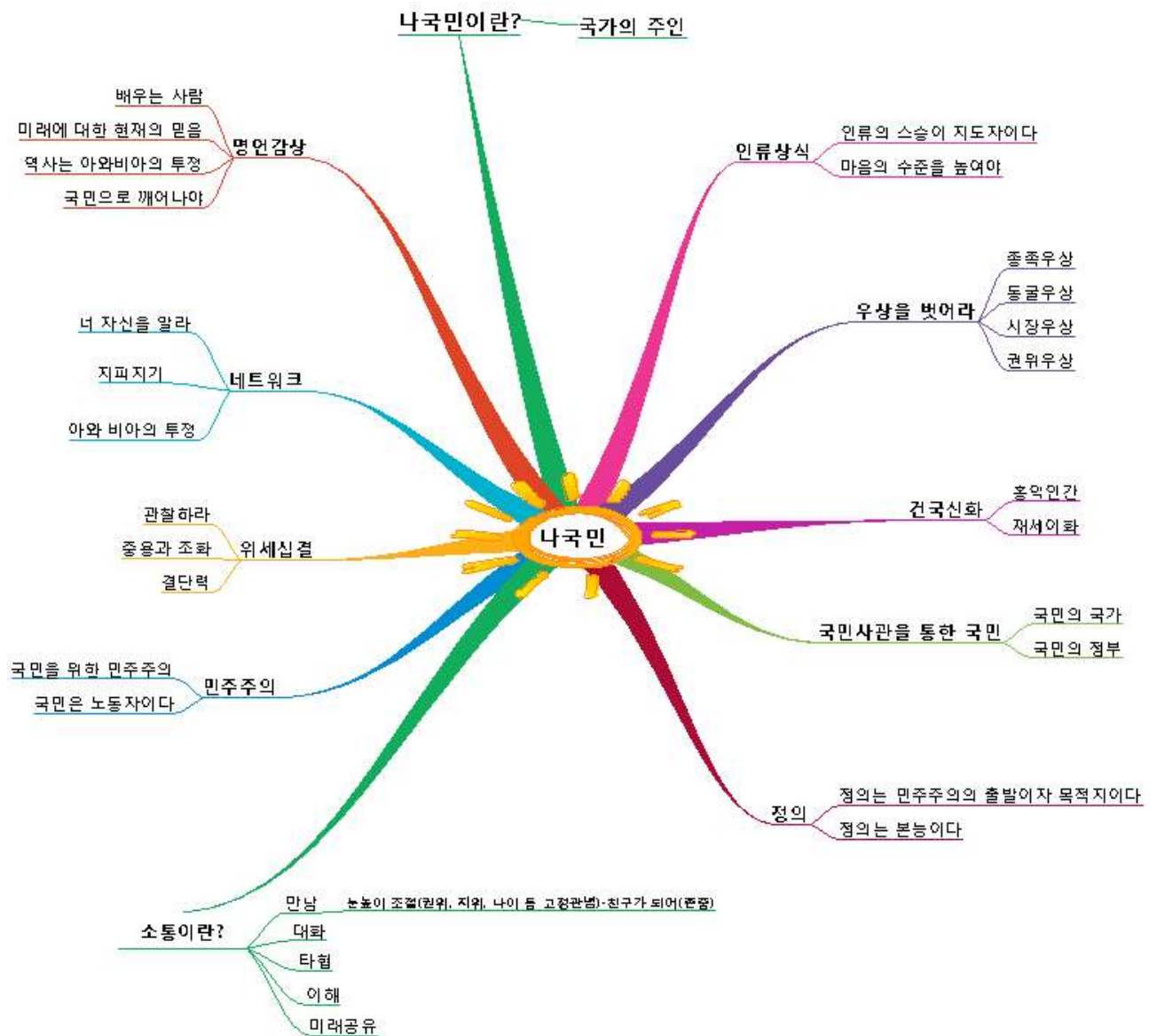
저자대표 희망실천가 남춘우

나국민 = 나(우리)는 국민이다



-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헌법 1조1~2항>

1장. 나국민



1. 나국민

1.1. 나국민이란? 나는 국민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나가수 버전). : 여기서는 좋은 나라를 위해서 국민의 권리는 무엇이고?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할까? 그 권리는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에 초점을 맞추어 국민의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 본 표현이다.

- 국민1: 청소원, 판매원, 회사원, 하위직 공무원, 기업인, 자영인, 국회의원, 대통령 등 모든 역할이 가능한 것이 국민이거든! 국민은 지도자를 뽑을 권리가 있고, 부패비리 권력자를 내릴 권리도 있고, 독재자를 퇴출할 권리도 있고, 나쁜 지도자를 내릴 권리가 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친 권력자는 쉬게 해야 하고 힘있고 지혜로운 사람을 지도자로 선택한 의무가 있거든, 왜냐하면 그 권력의 자리는 국민을 위한 봉사의 자리라고 생각하거든.
- 국민2: 나는 국민으로서 권리인 선거권, 피선거권, 거주이전의 자유, 국가의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인권적 측면, 정치 등 공공성을 위한 모든 표현의 자유가 있거든! 국민의 권리이자 성숙한 국민의 조건은 정부에 속지 않을 의식이 있어야 진짜 제대로 된 국민이 아닐까? 국가는 이런 국민이 되도록 해야 하고. 역사, 정치현황, 특정분야의 개선사항에 표현의 자유가 없다는 것은 그 나라는 특정세력을 비호하고 있다는 증거거든! 이거 벌써 민주국가로서 반칙이라고 선언하는 거잖아.
- 국민3: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존하여 줄 의무가 있다. 이것을 소홀히 하면 국가의 조건에서 함량미달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 국가 3요소인 영토, 국민, 정부의 역할이 무엇이나 이거지. 이러한 근거는 **헌법 1조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헌법사상에 근거한다는 것이지요.
- 국민4: 우리현실은 부패집단의 기득권 연장하기 위한 이권싸움이라고 생각해. 보수가 자리잡기 이전인 것이지. 진보는 당연히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야지. 부패를 몰아내고 상식을 정착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해. 먼저 부패를 밝히고 부패세력을 몰아내고 그 다음 공

정한 절차에 의한 상식세력의 정착이 먼저라고 하겠지. 지금 상식세력은 호흡도 못하고 부패끼리 자리싸움을 하고 있을 뿐이야. 부패는 모두 몰아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식은 숨도 못 쉬게 되는 것이지. 우리는 먼저 좌우로 갈라질 게 아니고 우선은 모두 보수로 가서 보수 속에 숨어있는 기득권인 일제세력과 기득권인 부정부패 세력을 최소한 골라내야 부패와 앞잡이 세력이 보수우익 속에 숨지 못할 것 아닌가? 아니면 이 사실을 상식으로 모든 국민에 알려 보수이외엔 모두 진보세력으로 진용을 갖추어 선거혁명을 이루어야 할 듯... 그렇지 않으면 보수라는 이름아래 극우, 부정부패세력, 일제앞잡이 세력이 뭉치면 지금까지 절대권력을 만들 수 있다는 비극이지. 보수도 아닌 보수 세력을 정리해야 한다는 말이 되지. 이 완고한 세력이 온갖 혈투기로 진보만 갈라지고 있다고? 진보도 의식이 약하여 언론까지 보수로 가세하면 신상털기에 분열되고 있잖은가? 예로부터 도둑이 제발 저리듯이, 부패된 자는 절대로 깨끗한 자를 함부로 들이지 않지. 그렇게 할 수가 없는거야. 자기모순이기 때문이라고 보아야지. 깨끗한 사람을 들이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고, 그 또한 철저한 조건부가 붙을 때 한해서야. 자신의 부패이미지를 바꿀 경우에 그렇다는 거지. 즉, 무늬만 바꾸는 것이지, 조금만 더 나아가면, 즉시 자른다.

- 국민5: 사람이란? 인지상정이란 말이 있다. 삶의 조건이 해결되면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듯, 농민이 안정되면 농민의 마음엔 안전농산물을 공급한다는 농심이 깃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누구든 삶의 터전을 포기하라고 하면 우선 살기위한 본능이 나타나게 마련이지. 농민에게 살기위한 본능은 그 나라의 안전은 안전핀이 없는 수류탄이 되는 거라고 할까. 안전핀의 유무를 모르게 된다고 생각해봐. 국민의 위기는 바로 이거야.
- 국민6: 우리나라는 인류가 정리한 상식수준으로 즉, 우리나라의 현실화, 현행화 이것이 기준을 찾고 기준을 정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 요소이다. 모든 분야의 현행화, 현실화를 시키고 그리고 다시 목표를 세워야 할 듯... 현실화가 되지 않아 기준이 없다고 생각한다.

1.2. 인류문화¹⁾를 통한 상식

: 인류는 무한반복의 시행착오를 거쳐 이룬 것이 “문화”이다. 그 중에서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이야기 하였다.

- 국민1 : 우리나라에서 영향을 끼치는 민족의 지도자가 누구라고 생각해? 나는 이순신, 세종, 신채호, 김구, 안중근, 함석헌, 김수환 추기경, 김용옥, 김대중 등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 국민2: 성인 중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하고 손자병법에 지피지기 백전불태, 신채호 선생이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인간의 결과는 자타관계의 결과이다. 자타의 인식의 중요성을 설파했고, 현재를 지배한 자가 과거를 지배하고 과거를 지배한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여기서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대부분 권력자이나 과거를 지배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 과거를 덮으려다 오히려 밝히는 계기가 되고, 과거를 자기편으로 만드는 게, 만만치 않거든. 여기서 언론을 통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반칙이야, 반칙! 한 가지만 이야기 하면, MB는 노골적으로 내놓고 반칙을 하고 있다고 봐야지.
- 국민3: 오랜 과거에는 무력으로 나라를 차지하여 상대를 노예를 만들어 식민정책으로 부국이 되었다면, 현재는 노예적, 반인권적으로 노동착취하고 있다고 봐야지. 삼성같은 기업이 노동착취로 경쟁력을 높이는 나라가 있지. 슬픈 역사의 한국같은 나라. 대한민국은 과거 식민지 경험을 살려 자국민의 인권과 노동착취를 방조하는 수준으로 떨어진 나라. 우리나라 구성원을 다음과 같은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지. 이 현상에 맞서는 일부 의식있는 사람! 평균이상의 생활을 하면서 들러리로 사는 사람! 이 땅이 싫으면 피해서 살아도 되는 국내외 양륙형 사람! 국내에서 더 이상 살기 싫은 도피성 이민자! 오도 가도 못하는 포로형태의 사람. 가장이지만, 온통 불만투성으로 사회에 적응하지 않는 사람들, 의식이 죽은 상태로 연명하는 사람 중에 사회생활이 없고 마

1) 문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해 습득, 공유, 전달이 되는 행동 양식. 또는 생활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해 낸 물질적, 정신적 소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도덕, 종교, 학문, 예술 및 각종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

지막 남은 개인의 쾌락본능만 남아있는 사람! 그리고 사회안전과 질서를 담당하는 생존형으로 소위 영혼이 죽었다는 공무원! 마지막으로 온갖 부익부체제의 기득권과 특권세력으로 똘똘뭉친 정경유착을 넘어서, 정경언(정치경제언론) 일체형 상위 1%의 인간들-보이지 않는 손으로 연결된 귀족계급형 인간들이 있다.

- 국민4: 인류의 역사를 노동의 시각에서 보면, 무력에 의한 정복 후 조공, 노예, 그 후, 정복 후 노예, 그 후에는 상인에 의한 노예, 생존생계형 일시취업에 의한 예속노예의 노동착취가 있었다. 현대는 세계 인권헌장의 영향으로 표현적 노예는 사라졌다. 하지만, 현대도 내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노예제도가 현재는 가족 생존형으로 기간취업을 통한 노예적 생산자로 전락하고 있지. 게다가 비정규직인 소위 알바형 일자리에 전전하는 유형이 있다. 이들의 인권이 없다고 봐야지. 인권! 자본이 없는 자는 인권이 낮다. 최소한 인권도 없는 노동세계는 현대판 노예일 뿐이다.
- 국민5: 10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간다면 어떨까?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더니, 어쩌면 개선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 것이지. 이완용의 사익추구에 대하여 과거사정리를 제대로 하면 우리는 타국에 침범은 있어도 국민을 팔아먹는 앞잡이 같은 배신은 없어지겠지.
- 국민6: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 우리 정부는 어떤 행위를 하였는가? 이완용 등의 앞잡이 정부, 다른 외세를 이용한 세력, 거기에 채국, 한일합병(을사늑약)를 하면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 국민6: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면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의식상태가 잘 정리되어 있잖아. 다음을 보면서 수준을 높여 보자구.

1.2.1. 의식의 수준(데이비스 호킨스)

신의 관점	세속의 관점	수준	대수의 수치	감정	과정
자아	존재	깨달음	700-1000	언어 이전	순수 의식
항상 존재하는	완전한	평화	600	축복	자각
하나	전부 갖춘	기쁨	540	고요함	거룩함
사랑	자비로운	사랑	500	존경	계시
현명함	의미 있는	이성	400	이해	추상
인정 많은	화목한	포용	350	용서	초월
감화 주는	희망이 찬	자발성	310	낙관	의향
능력이 있는	만족한	중용	250	신뢰	해방
용납하는	가능한	용기	200	긍정	힘을 주는
무관심한	요구가 많은	자존심	175	경멸	과장
복수에 찬	적대의	분노	150	미움	공격
부정하는	실망하는	욕망	125	갈망	구속
징벌의	무서운	두려움	100	근심	물러남
경멸의	비극의	슬픔	75	후회	낙담
비난하는	절망의	무기력	50	절망	포기
원한을 품음	사악한	죄의식	30	비난	파괴
멸시하는	비참한	수치심	20	굴욕	제거

○ 의식의 수준에 대한 풀이

- ㉠ 200이하의 수준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는 '살아남기'이다. '분노와 욕망의 단계'에 이르면 개인의 생존을 위해 자기본위의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자존심'의 수준에 이르면 살아남으려는 본능이 다른 사람에도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최초로 이해하기 시작함.
- ㉡ 200의 수준에 이르면 다른 사람의 안녕이 점차 중요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 ㉢ 500의 수치에 이르게 되면 다른 사람의 행복을 고려하여, 그것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게 된다.
- ㉣ 600에 가까워지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적인 눈뜸에 관심을 갖게된다.
- ㉤ 600대에 이르게 되면 선과 깨달음의 추구가 삶의 기본적인 목적이 된다.
- ㉥ 700이상은 모든 인간의 구원을 위한 삶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만 의식의 향상을 꾀할 수 있는가를 입을 모아 말해 왔다. 이 사다리를 오르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스승이 없이는 영적 성숙을 기약하기는 어려운 일이며, 적어도 특별한 가르침을 받거나 영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깨달음을 얻으려는 열망이 있어도 목표를 성취하기 어렵고 자신의 무능력에 절망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제시하는 위의 도표가 이러한 궁극적인 인간의 열망에 유용하게 쓰여지기를 기대해 본다.

의식의 지도를 숙고하며 들여다봄으로써 인과관계에 대한 새로운 자각도 싹틀수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의 의식 수준과 더불어 의식의 지도를 들여다보는 인지 능력도 향상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흔히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사실은 결과물'이라는 것이 명백해질 것이다. 자기 자신이 인식한 결과물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그 사람은 비로소 피해자의 입장을 초월하여 '나를 지배하는 외부의 어떤 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긍정적

인 영향을 줄 것인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 배움의 기회로 작용할 것인지 우리를 억압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인 것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란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에 저항하거나 도피하고자 함으로써 스스로를 그물에 가두는 데서 생겨나는 것일 뿐,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자체에 어떤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 스트레스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어떤 사람에게는 혈압을 올리는 시끄러운 음악이 다른 사람에게는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이혼도 원하지 않을 때에는 큰 아픔이 되지만, 원하는 사람에게는 해방을 뜻한다.

의식의 지도로 인해 역사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새로운 조명이 가능하게 되었다. 눈에 보이는 힘(force)과 인간에게 내재된 진실한 힘(power)을 구분할 수 있었다는 데에 있다. 대영제국의 억지의 힘(175)은 간디의 진실의 힘(700)을 만나면 결국 패하고 만다.

치료(treatment)와 치유(healing)의 차이는 엄연히 존재한다. '치료'하려는 사람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변화가 없고 한결같다. 그러나 '치유'하려는 사람은 문제의 앞뒤 관계를 파악하여 관점에 변화를 꾀한다. 그리하여 문제로부터 야기되는 증상을 다루기보다는 문제의 핵심을 철저히 제거하는 것이다. 고혈압 환자에게 약을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이긴 하다. 그러나 환자로 하여금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게 하여 분노하고 억압하는 마음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의식의 지도를 들여다보고 명상을 함으로써 '기쁨'의 단계에 이르는 보다 빠른 길을 발견하기를 기대해 본다. 기쁨으로 가는 열쇠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에게 조건 없이 친절을 베풀고 자비심을 갖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자비심이 없다면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자비심 없이는 어떠한 환자도 진실로, 또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 없다는 바로 이 점에서, 개인의 치유는

나아가서는 곧 사회의 건강과 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치유 받은 사람' 이 곧 '치유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다.

○ 인간의 의식 수준

의식의 에너지 장에 상응하는 감정을 거론할 때 유념해야 할 것은, 감정이란 것이 한 개인의 내면에 순수한 상태로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이다. 의식의 여러 층들이 언제나 복합되어 있게 마련이다. 이런 삶의 조건 속에서는 이런 의식 수준이었던 사람이 다른 조건을 만나면 전혀 다른 의식 수준일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총체적인 의식 수준은 이처럼 다양한 여러 수준들을 합산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가) 에너지 수준 20 : 수치심

수치심의 수준은 위험할 정도로 죽음과 가장 가까운 상태로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지만 자살을 할 수도 없으니 마지못해 살아간다는 식의 자세이다. 이 수준의 공통점은 죽음이라는 것을 피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이다. '체면을 잃었을 때'의 아픔이나, 모욕을 당하거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을 때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수치심'의 단계에서는, 자기 자신이 보이지 않기를 바라며 슬그머니 도망친다. 원시 사회에서는 수치스런 죄를 저지른 자를 추방했으며, 추방이란 곧 죽음을 의미했다.

성폭행과 같은 어린 시절의 경험은 '수치심'을 초래하므로 이를 치유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평생 계속된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수치심은 신경증을 초래한다. 또한 정서적, 심리적 건강에 파괴적으로 작용하여 열등감에 사로잡혀 지내게 되며, 이로 인해 신체적 질병으로까지 발전하기 쉽다. '수치심'이 성격의 바탕이 되면 수줍음을 잘 타고 내성적이며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

수치심은 잔인성의 도구로 쓰이며, 여기에 희생된 피해자는 자기 자신을 또한 잔인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수치심'에 찬 어린이들은 동물을 학대하고, 자기들끼리도 잔인하게 굴곤 한다. 의식 수준이 단지 20대에 머

무는 사람들의 행동은 아주 위험하다. 그들은 비판적이거나 피해 망상적인 환상을 보기 쉽고, 정신병 환자가 되거나 엽기적인 범죄를 저지르기 쉽다.

'수치심'이 바탕이 되는 성격의 사람들은 융통성 없는 완벽주의적 사고 방식으로 수치심을 보상하려고 하며, 무엇에 사로잡힌 것같이 자기 자신을 몰아간다. 수치심에 사로잡힌 과격한 도덕주의자들은 그들 자신의 무의식적인 수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영하여 그들을 공격함으로써 자신들을 정당화시킨다. 연쇄살인자들은 나쁜 여자들을 별하여 성도덕을 세운다는 미명하에 자신을 정당화시키면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잦다.

수치심은 개인의 전체 수준을 끌어내리기 때문에 다른 부정적인 감정에 도 영향을 받기가 쉽고, 자만심이나 분노, 죄의식을 낳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나) 에너지 수준 30 : 죄의식

처벌과 농간의 수단으로 우리 사회에서 자주 쓰이는 '죄의식'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자기 연민이나 자기 학대, 피해의식에서 생기는 여러 증상들이 바로 그것이다. 무의식적인 죄의식은 정신 이상에 원인이 있는 신체의 질병을 초래하고, 사고를 저지르기 쉽고, 자살을 감행하기도 한다. 전 생애를 바쳐서 죄의식과 싸우는 사람들도 많고, 죄의식을 전면 부인함으로써 필사적인 도피를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역시 죄의식의 소산이다.

'죄의식'에 가득 찬 사람들은 종교단체의 선동자들에 의해 강요당하고 조종당하기 쉽다. '죄와 구원'을 파는 파렴치한들은 응징의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죄의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덮어씌우는 경향이 짙다.

자학 증상이 심해지면 공공연한 동물 학살로 잔인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죄의식은 분노를 일으키고, 살상은 이러한 분노의 표현이 된다. 사형이란 죽이는 행위가 죄의식에 물든 사람들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에 지나지 않다. 용서에 인색한 미국 사회는 그 죄인들을 언론으로 실컷 두들긴 후 형벌을 결정한다. 하지만 형벌 때문에 범죄가 억제되었다는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에너지 수준 50 : 무기력

이 수준은 빈곤, 절망, 자포자기로 특징지어진다. 현재와 미래가 황폐해 보이고, 비애가 인생의 주제로 보인다. 이 단계는 아무 희망이 없는 상태로서,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도움이 필요하나 그 도움조차도 그들에게는 쓸모없게 느껴질 뿐이다. 보살펴 주는 사람에 의해 외부의 에너지가 전달되지 않는 한, 무기력에 의한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살려는 의욕 없이 허공을 응시하고, 자극에 무감각하며, 시선은 더 이상 사물을 쫓지 않고, 주어진 음식도 삼킬 만한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 이른다.

집도 없이 헤매는 사람들과 사회의 낙오자가 이 수준에 속한다. 나이 든 노인들의 체념 상태이기도 하고, 또 만성 질병이나 심한 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의 수준이기도 하다. 무기력한 사람들은 의지해야 하지만 주위 사람들은 그들을 '무거운' 짐처럼 느끼기가 쉽다.

사회에서는 자원의 낭비로 보이는 이 수준의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동기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테레사 수녀와 그 추종자들이 걷는 인도의 캘커타 거리야말로 바로 이 수준에 해당된다. 이 수준은 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조차 갖기 힘든 희망의 포기 상태이다.

라) 에너지 수준 75 : 슬픔

이 상태는 슬픔, 상실, 낙담의 수준이다.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경험을 하지만 이 수준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계속되는 후회와 우울함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비탄, 공허, 그리고 과거에 대한 후회가 이 수준을 지배한

다. 실패를 생활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만성적인 도박 등으로 돈, 건강, 직장, 친구, 가족, 기회를 잃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

어렸을 때의 커다란 상실은 슬픔과 비탄을 삶의 필요악인 것처럼 받아들이기 쉽게 만든다. 비탄에 빠진 사람들은 만사를 슬픔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어린이들이 자라는 것도 슬프고, 세상만사 돌아가는 것도 슬프고, 삶 자체가 슬프다. 바라보는 모든 것이 슬픔으로 채색된다. 잃은 것은 영원히 채워질 수 없으며 그 기억은 영원히 사라질 수 없다는 생각이야말로 상실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폐해이다.

그들은 하나를 잃어버렸으면서도 전부를 잃어버린 양 일반화시키고, 그리하여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이 사랑 자체의 상실이 된다. 그러한 감정적인 상실은 심각한 우울증이나 죽음을 불러오기도 한다.

'슬픔'은 인생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지만 '무기력'의 상태보다는 더 많은 에너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충격 받은 무기력증 환자가 울기 시작하면 그것은 회복의 조짐이다. 또 일단 울기 시작하면 무기력증에서 벗어나 음식을 먹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마) 에너지 수준 100 : 두려움

100의 수준에는 좀 더 활발한 에너지가 보인다. 위험에 대한 두려움은 건강한 반응인 것이다. 세상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런 두려움이 인간을 활동하게 하는 원천이 되기도 한다. 적에 대한 두려움, 늑음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사회적인 다수의 두려움은 인간 행동에 근본적인 동기가 된다.

이 수준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위험해 보이고, 함정과 위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인다. 두려움은 독재자가 민중의 통제를 위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도구이고, 불안감의 조성은 시장을 독점하려는 회사들의 상투적인 수단이다. 언론이나 광고업체들도 두려움을 유도하여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

두려움의 확산은 인간의 상상력과 마찬가지로 끝이 없다. 일단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사람에게에는 세상이 온통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버린다. 두려움은 강박관념이 되어 여러 가지 형태로 번져간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는 데 대한 두려움은 질투를 유발하고, 만성 스트레스를 초래한다. 두려움은 편집증이나 신경증적인 상태로 진전될 수 있고, 전염성이 있어서 사회 전체를 지배할 수도 있다.

두려움은 개인의 성장을 제한하고 억압 상태를 초래한다. 두려움의 수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뚫고 일어설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짓눌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 갈 수 없다. 그러므로 두려움의 수준에 사는 사람들은 이를 극복한 것으로 보이는 강력한 지도자를 희망하며, 그 지도자가 자신들을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기대한다.

바) 에너지 수준 125 : 욕망

욕망의 수준에는 더 많은 에너지가 발견된다. 경제적인 욕구를 위시한 욕망이야말로 인간 행위의 광범위한 동기로서 작용한다. 광고업자들은 본능적인 욕망을 이용하여 육감적인 유혹을 한다. 목표 달성과 보상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욕망은 우리를 다그친다. 금전, 명예, 권력에 대한 욕망은 “두려움”의 수준을 벗어난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다.

“욕망”은 또한 집착의 수준이기도 하다. 바로 이 점에서 때로는 욕망은 수준으로 뛰어오르는 도약대가 될 수 있다.

사) 에너지 수준 150 : 분노

분노는 살인이나 전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에너지 수준 자체는 죽음의 주위에서 맴도는 단계에서 훨씬 벗어난 상태이다. 분노는 파괴적일 수도 있고 건설적일 수도 있다. 사람들이 '무기력'이나 '슬픔'에서 벗어나 '두려움'을 극복하는 상태에 이르면, 이제 그들은 무엇인가를 원하기

시작한다. '욕망'은 좌절감을 초래하고, 좌절감은 “분노”를 가져온다. 그런 이유로, “분노”는 억압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사회의 부조리와 불평등, 사회에 대한 희생은 분노를 유발하고, 그것이 사회 구조에 대변혁을 가져온 커다란 사회 운동으로 발전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분노”는 흔히 분개나 복수로 표현되고, 따라서 폭발적이고 위험하다. 성급한 사람들, 즉 사소한 일에 과민하고 못된 짓만 하고, 잘 싸우고 소송을 일삼는 사람들이 이 '분노'의 수준에 속한다.

“분노”는 좌절된 욕구에서 생기므로 그 아래 수준인 욕망의 에너지 장에 기초를 두고 있다. 좌절은 지나친 욕망에서 온다. 분노는 증오로 전환되기 쉽고, 증오는 한 개인의 삶 전체를 부식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아) 에너지 수준 175 : 자존심

175로 측정되는 '자존심'은 미국 해병대를 통솔할 만한 충분한 에너지 수준이다. 이것은 미국 국민이 대부분 동경하는 수준이다. 이 수준에 이른 사람들은 낮은 에너지 장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 훨씬 긍정적이다. 자존심의 향상은 낮은 의식세계에서 그들이 경험한 모든 고통의 진통제가 되어 준다. 자존심은 삶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는 버팀목 구실을 한다.

자존심은 '수치심', '죄의식', 혹은 '두려움'에서부터 비약한 상태이다. 빈민가에서 사는 절망의 수준에서 해병대의 자존심으로 비약하는 것은 그야말로 커다란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자존심은 좋은 덕목으로 평가받으며 사회적으로 권장되고 있다. 그러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존심은 분기점인 200을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더 낮은 수준에 비교할 때에만 좋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 '자존심의 팽만은 추락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점이다. 자존심이 방어적이고 약점 투성이인 것은, 자존심이란 외부 조건에 의존해서 생기는 것이며 또 그것 없이는 언제라도 낮은 수준의 의식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부풀어 오른 자존심은 비난에 약하다. 자존심은 아주

쉽게 '수치심'의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으며, 바로 그 때문에 여전히 약한 의식 수준이다.

'자존심'은 분열과 파벌주의를 초래하며, 그래서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람들은 '자존심'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치러 왔으며, 군대는 지금도 애국심이라는 '자존심' 아래 서로를 죽이는 짓을 멈추지 않고 있다. 종교전쟁, 정치적인 테러리즘, 중동과 중유럽의 광적이고 무서운 역사는 “자존심”의 대가이고, 사회 전체가 치러야 했던 벌이었다.

'자존심'의 약점은 오만과 부정(否定)이다. 이러한 특성상 '자존심'에 가득 찬 사람들은 의식의 성장을 스스로 차단한다. '자존심'이 있는 한 집착에서 해방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존심에 가득 찬 사람들은 감정적인 문제임에도 그것을 부인하거나, 자신의 성품이 갖고 있는 약점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부정하는 문제의 근원에는 '자존심'이 자리 잡고 있다. '자존심'은 진실한 성장과 명예를 안겨 줄 수 있는 참된 내면의 힘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인 것이다

자) 에너지 수준 200 : 용기

200의 수준에서는 내면의 참된 잠재력이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에너지 수준 200 이하인 피험자들 모두가 약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기술한 바 있다. 생명력을 증진시키는 200이상의 수준에서는 모두가 강한 반응을 보여준다. 200이야말로 인생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구분하여 주는 분기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되풀이한다. 우리는 이 수준에서 비로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시작하며, 이 단계야말로 탐구, 성취, 인내, 결단의 영역이다.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희망이 없고, 슬프고, 무섭고, 좌절감으로 가득 차 보인다. 하지만 “용기”의 수준에 이르면 인생이 흥미롭고, 도전적이고, 자극적인 것이 된다.

“용기”는 우리에게 기꺼이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게 도와주고, 파란만장

한 인생을 긍정적으로 전환시켜 준다. 이 수준에 이르러 우리는 비로소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 새로운 직업기술을 배울 수 있는 에너지를 갖게 되고, 성장과 교육이 성취의 목표가 된다. 이 수준에 이르면 두려움이나 성격의 결함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두려움이나 결점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수 있으며, 걱정하는 일이 없지는 않지만 낮은 의식 수준에서와는 달리 노력 자체를 마비시키지는 않는다. 200이하의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마는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잠재력을 갖기 시작한 이 수준의 사람들은 이를 자극제로서 활용한다. 이 수준의 사람들은 자기가 흡수하여 소모하는 에너지만큼 세상에 그 에너지를 되돌려 보낸다. 반면, 낮은 수준의 사람들은 사회로 환원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하여 에너지를 흡수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수준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성취함으로써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힘을 얻고, 더욱 더 용기백배 하게 된다. 바로 이 수준에서 비로소 생산성이 생기기 시작한다.

인류의 전체적인 의식 수준은 오랫동안 190에 머물렀으나, 20년 전부터 204의 수치로 괄목할 만한 비약을 보여주고 있음은 특기할만한 사항이다.

차) 에너지 수준 250 : 중용

이 수준이 매우 긍정적인 에너지인 것은, 낮은 수준의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편파적인 관점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하기 때문이다. 250이하의 수준에서는 사물을 이원적이고 융통성 없는 관점으로 바라보며, 이 때문에 흑과 백으로 분명히 가를 수 없는 복잡다단한 세상사를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편파적인 태도는 극단적인 대립을 초래하고, 대립은 분열과 반대를 낳는다. 동양 무술에서도 유연하지 않은 동작은 큰 약점으로 취급된다. 구부릴 줄 모르는 완고함은 그만큼 부러지기가 쉬운 것이다.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반대와 장애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중용'의 태도는 유연성과 포용력,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파악 능력을 갖게 해준다. '중용'의 자세를

취함으로써 우리는 결과를 비교적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또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패배의식으로 좌절하거나 놀라는 일도 없게 된다.

'중용'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이 직장에 못 들어가면 다른 직장에 들어가면 되지'라고 생각한다. 이 단계는 내면의 자신을 신뢰하는 출발점으로서, 자신의 잠재력을 느끼기 시작하며, 쉽게 위협을 느끼지도 않는다. 무엇인가를 증명하기 위해 안달하는 일도 없다. 인생에는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여 자기 인생이 어찌 굴러가든 근본적인 수용의 자세를 잃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250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아도 좋다.

'중용'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편안함을 느끼고,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자기 신뢰를 잃지 않는다. 함께 지내기가 쉽고, 친하게 지내더라도 전혀 위험하지 않다. 그들은 대립이나 경쟁 심리, 죄책감 등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온화하고 근본적으로 정서가 안정되어 있다. 그들의 태도는 비난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다는 충동도 느끼지 않는다.

“중용”에 다다른 사람들은 자유를 아주 중시하므로, 그들을 규제하려는 일은 아주 어렵다.

카) 에너지 수준 310 : 자발성

매우 긍정적인 이 수준의 에너지는 더 높은 수준에 이르기 위한 관문이라고 볼 수 있다. '중용'의 단계는 직장의 일이 적절하게 굴러가는 수준이지만, '자발성'의 단계는 주어진 과제가 훌륭히 이루어지고 성공의 결실을 맺는 수준이다. 이 수준의 사람들은 성장이 빠르고, 마치 향상을 위해 태어난 사람들처럼 보인다. '자발성'이란 인생에 대한 보이지 않는 저항을 극복하고 기꺼이 참여하는 마음이다. 200이하의 사람들은 마음이 답답하게 닫혀 있지만, 310의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은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 이 수준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진실로 친절하게 대하고,

사회적·경제적 성공이 저절로 따른다. 자발성'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실직을 해도 큰 걱정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하려고 하고, 일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그들은 밑바닥 일이나 손님을 접대하는 일에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을 품고 있으며 사회의 선에 이바지한다. 그들은 또한 내면의 문제에 관심이 많으며, 배움에 장벽을 두지 않는다.

이 수준에 이르면 자긍심이 높고, 이것은 사회적인 인정, 존중, 또는 보상 등에서 오는 반응에 의해 항상 보강된다. '자발성'이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기꺼이 응하는 마음이기도 하다. 이 수준의 사람들은 사회를 움직이고 사회에 기여한다. 곤경으로부터의 회복 능력, 시련을 통한 배움을 통해 이들은 자기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수준으로 향상한다. 그들은 '자존심'을 극복함으로써 자신의 결점을 기꺼이 바라보려고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배우려고 한다. 이들은 아주 훌륭한 학생들이며 또 쉽게 가르칠 수 있어서, 사회의 아주 중요한 자원이 된다.

타) 에너지 수준 350 : 포용

이 수준에 이르면 우리 자신이 인생의 모든 경험을 창조하고 원천이 된다는 이해를 하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책임감이야말로 이 단계의 특징으로, 인생의 여러 외적인 힘에 대응하면서도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200이하의 사람들은 무력하며, 자신들을 인생이란 폭군의 피해자로 바라보기 쉽다. 이러한 생각은 자신의 행복이나 문제의 근원이 '밖'에 있다고 믿는 데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 수준에 이르면 행복의 근원이 자신 속에 존재한다고 깨달음으로써 커다란 도약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지에서 그들은 '외부'의 그 어떤 것도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 또 사랑이란 다른 사람들에게서 오거나 그들에 의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임을 알게 된다.

'포용'이란 무기력의 한 형태인 무저항과는 다르다. 여기서 말하는 '포용

'이란 슬프고 기쁜 인생사를 받아들일 수 있고 세상사를 특정한 방향으로 억지로 끌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포용하는 마음은 감정적인 온화함을 가져오고, 부정의 단계를 벗어나 보고 느끼는 능력을 넓혀 준다. 그들은 이제 사물을 오해나 왜곡의 감정 없이 볼 수 있다. 경험의 의의를 깊게 이해함으로써 결국 사물에 대해 '부분적이 아닌 전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 '포용'이란 균형, 조화, 지나치지 않음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포용'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문제 해결과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정열을 쏟는다. 어려운 과제나 일을 만나더라도 괴로워하거나 곤혹스러워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눈앞의 목표보다는 장기적인 목표가 항상 중요하고, 자기 훈련과 일의 숙달이 무엇보다 우위에 있다.

'포용'의 수준에 이르면 대립되는 의견이나 갈등에도 극단주의를 택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보고, 평등의 가치를 중요시한다. 저급한 수준의 사람들이 융통성 없이 경직된 사고에 사로잡히기 쉬운 반면, 이 수준의 사람들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형태의 대답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럼으로써 차별과 편협을 초월한다. 평등이란 다양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에 눈을 뜬으로써, 거부하기보다는 '포용'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

파) 에너지 수준 400 : 이성

이 수준에 이르면 이보다 하위 수준의 감정 단계를 벗어남으로써 지성과 이성이 삶의 전면에 떠오르게 된다. '이성'의 단계에서는 광범위하고 복잡한 자료들을 처리할 능력을 갖고 있어 빠르고 정확한 판단력을 보여준다. 관계의 미묘함, 점진적인 변화와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 것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지고, 추상적인 개념과 같은 상징체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과학, 의학, 그리고 개념화에 대한 이해 수준이 점차 증가되는 것도 이 수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교육과 지식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추구되곤 한다. 이해와 정보가 성취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점이, 400수준의 가장 뚜렷한 특성이다. 노벨상 수상자, 위대한 지도자, 대법원의 판사들이 이 수준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아인슈타인, 프로이트 등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도 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수준의 결점은 상징과 그 상징이 뜻하는 바를 뚜렷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또 세상사에 대한 객관적·주관적인 이원론 때문에 사물의 인과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다. 이 수준에서는 나무에 가려 숲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쉽고, 개념과 이론의 탐닉에 의해 본질의 중요성을 찾지 못하고 지식 자체로 그치고 마는 경우가 흔하다. '이성'의 수준은 본질이나 복잡한 문제의 핵심에 대한 통찰력을 갖지 못함으로써 한계를 갖게 된다.

이성만으로 진리에 도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성은 광범위한 지식과 문헌을 생산해 내지만, 방대한 자료와 결론 사이의 모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모든 철학 이론은 저마다 그럴듯하게 들린다. 이지적인 방법론이 지배하는 현 사회에서 이성이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역설적으로 더 높은 의식세계로 나아가는 데 커다란 장애물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 수준을 초월한다는 것은 오늘의 우리 사회에서는 흔치 않는 일이다.

하) 에너지 수준 500 : 사랑

언론이나 TV에서 묘사하는 사랑은 여기서 말하는 수준의 사랑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사랑이란 육체적 매력, 소유욕, 통제, 탐닉, 에로티시즘, 신선함 등의 격렬한 감정과 결합된 형태를 띤다. 그러한 사랑은 속절없이 무너지기 쉽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 파도치곤 한다. 사랑에 좌절하게 되면 그 동안 숨겨졌던 노여움과 의존성이 발가벗겨져서 그 정체를 드러낸다. 사랑이 미움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같이 되어 있지만, 이러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지독한 감상주의의 소산에 불과하다. '자존심'에서 비롯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며, 그런 관계 속에서는 사랑이 머무르지 않는다.

500의 에너지 수준은 조건 없고 변함없고 영원한 사랑에의 눈뜸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사랑이란 외부의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내부에서 그 근원을 찾기에 이 수준에서의 사랑은 오르내림의 파동을 보이지 않는다. 사랑한다는 것이 존재 자체가 된다. 사랑은 용서와 보살정의 세계로 가는 길이다. 사랑은 지적인 것도 아니고, 표면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고양시켜 주고, 그 동기의 순수성으로 인해 크나큰 성취를 이루게 하기도 한다.

이 수준에 이르면 사물의 본질을 분별할 수 있는 역량이 증대하여 문제의 핵심을 꿰뚫을 수 있게 된다. '이성'의 수준을 넘어서게 됨에 따라 문제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전후 과정을 섬세하게 알아차릴 수 있다. 이성만 문제를 일일이 따지는 경향이 있지만, 사랑은 전체를 다룬다. 직감 혹은 육감이라고 불리는 이 사랑의 능력은, 사물을 꼬치꼬치 따지지 않아도 즉각 알아차릴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말하면 추상적으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일어나는 현상 자체는 아주 구체적이다. 사랑의 느낌을 가지면 뇌에서는 엔돌핀(endorphin)이 분비된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진 바 있다.

사랑은 신분이나 입장을 초월하는 보편성을 가진다. 사랑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있을 수 없기에 너와 나의 공존'을 가능하게 한다. 사랑이란 모든 것을 감싸 안고, 자아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켜 준다. 사랑은 삶의 아름다움에 눈뜨게 하여 삶을 힘차게 긍정하게 한다. 사랑은 삶의 부정적인 요소를 공격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여 그것을 녹여 버린다.

이 수준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단계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열심히 사랑이라는 주제에 매혹 당하고 있고 현존하는 모든 종교가 500개 혹은, 그 이상의 수치로 측정됨에도 불구하고, 세계 인구의 0.4%만이 이러한 수준의 의식 세계에 도달한다는 것은 흥미 있는 일이다.

2가) 에너지 수준 540 : 기쁨

'사랑'에 조건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내면의 '기쁨'이 점차 차오르게 된다. 이 수준에서의 '기쁨'이란 사건의 변화에 의해서 오는 갑작스런 즐거움이 아니라, 모든 활동에 동반되는 항구적인 것이다. 기쁨이란 외부의 어딘가에 근원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존재의 매순간마다 솟구치는 것이다. 540의 수준에서는 치유가 시작되며, 영적인 자조그룹은 이 수준에 속한다. 540 이상부터는 성인, 영적 치유자, 그리고 그 제자들의 영역이다.

이 에너지 장의 특징은 계속되는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고, 긍정적인 자세를 잃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수준의 특징은 이들이 갖는 자비의 마음 상태이다. 이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이들에게는 사랑과 평화를 널리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수준에 이르면 창조의 정교한 아름다움과 완전함에 눈뜨게 된다. 세상 만물은 억지로 이루어진 것이 없으며,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랑과 신성의 표현이다. 이 세상 모든 개개인은 신의 뜻에 따라 생명을 부여받았고, 신성 안으로 녹아들어 갈 것이다. 이들은 우리들이 기대하지 못하는,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 에너지 장의 잠재력이 발현된 것이지, 어느 한 개인의 힘은 결코 아니다.

이 수준에서 느끼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은, 이보다 낮은 수준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어느 특정한 개인보다는 생명 자체의 유익을 위해 쓰려는 강한 욕구를 느끼게 된다.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은, 사랑하면 할수록 사랑의 능력도 증폭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사망 선고를 듣고도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그 경험을 통해 삶의 전환점을 맞이한 사람들이 적지 않고, 또 그들 중 대부분은 540~600의 에너

지 수준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2나) 에너지 수준 600 : 평화

이 에너지 장은 초월이나 자아 실현, 신 의식 등의 용어로 묘사되는 경험과 깊이 관련된다. 이 수준은 천만 명 중, 한 명꼴로 나타나는 아주 드문 현상이다. 이 상태에 도달한 사람에게는 주관과 객관의 차이가, 또 특별한 관점이라는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지복의 상태에 잠겨 있으므로 세상일에 더 이상 흥미를 갖지 않고, 따라서 범인의 생활을 하지 않는다. 영적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확연히 드러나진 않지만 인류의 개선을 위해 일하기도 한다. 또한 자신의 분야에서 천재성을 발휘하여 사회에 커다란 공헌을 하기도 하지만 이는 드문 경우에 속한다. 이들은 성인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서, 성인으로 추대되는 일도 드물지만은 않다. 기존 종교의 형식을 초월한 이 수준의 사람들은, 모든 종교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순수한 영성의 소유자들이다.

600이나 그 이상의 수준에서는 아무 것도 멈춰 있지 않는데도, 아니 오히려 발랄하고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는 세상인데도, 세상 전체가 시간과 공간이 멈춰 서 있는 가운데 마치 슬로모션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한다.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세상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무한한 가능성과 의미로 가득 찬, 진화의 춤을 계속 추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놀라운 계시는 이성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그들의 마음은 그 무엇도 개념화시키는 일이 없이 절대적 침묵에 잠겨 있다. 보는 자와 보여 지는 자의 구분이 사라지고, 바라보는 사람이 풍경 속으로 녹아 들어가 풍경과 하나가 된다.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지금 여기 계시는' 분에 의해 연결되어 있고, 그분의 힘은 무한하고, 끝없이 온화하고, 그러면서도 바위처럼 견고하다.

600~700의 수치로 측정되는 위대한 미술, 음악, 건축 작품들은 잠깐 동안이나마 우리들의 의식을 더 높은 세계로 고양시켜 주며, 시간을 뛰어넘어 영감을 불어넣는 원천이 되어 준다.

3다) 에너지 수준 700~1,000 : 깨달음

이 수준은 영적 완성자의 단계로서, 수많은 세대를 통하여 군중들이 추종하고 따르며 영성의 원천으로 삼는다. 이 사람들은 신성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이들 자체가 신성과 동일시되기도 한다. 강렬한 영감의 소유자로서, 이들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주는 끝개 에너지 장을 형성한다. 이 수준에서는 개성을 띤 어느 한 사람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더 이상 분리되는 일이 없다. '진아(Self)'와 '의식'과 '신성'이 하나로 동일시된다. '보이지 않는' 세계조차도 마음을 뛰어넘어 '진아'로서 경험된다. 이렇게 예고를 초월함으로써 인간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모범이 된다. 이 수준이야말로 인간의 몸을 입고 도달할 수 있는 최고봉인 것이다.

심오한 가르침은 사람들의 정신을 양양하고, 인간성의 자각에 눈뜨도록 부추긴다. 이러한 이상을 갖는 것은 '은총'이라 불리며, 이 은총에 의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평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깨달음의 단계에서는 시간과 개별성을 뛰어넘게 된다. 육신인 나 '에 대한 관념이 없어져서, 운명이라는 것에도 연연해하지 않는다. 육신이란 마음의 창문을 통한 의식의 도구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몸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것일 뿐이다. 자아는 보다 큰 '진아'에로 녹아 들어간다. 이 단계는 이원성을 뛰어넘는, 완전한 “하나”의 수준이다. 의식의 분화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며, 항상 깨어 있는 의식으로 살아간다.

이러한 깨달음의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을 묘사한 그림들은 소위 무드라라 불리는 특별한 손 모양을 보여주는데, 손바닥에서는 축복의 에너지가 발산되고 있다. 이것은 이들이 축복의 에너지 장을 인류의 의식 세계로 보내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신성한 은총은 1,000에 이르는 것으로 측정되며, 역사에 기록된 인간으로서의 가장 높은 수준으로서, 우리가 아는 세 성인에게는 주(Lord)라는 칭호를 붙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주 크리스나(Lord Krishna), 주 부처(Lord Buddha), 주 예수 그리스도(Lord Jesus Christ)가 그 분들이다.

○ 의식수준의 사회적 분포

세상살이의 모습을 살펴보면 수궁하게 된다. 아직도 생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지구 도처에는 너무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기근과 질병은 흔해빠진 현상이고, 여기에 정치적인 탄압과 사회적인 자원의 결핍으로 시달리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가. 수많은 사람들이 '무기력'의 수준으로 측정되는 절망 상태에서 비참한 빈곤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저개발 국가뿐만 아니라 문명화된 사회에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형태이든 안정을 희구하며 살아가고 있다. 절박한 생존 상태에서 간신히 벗어나 어느 정도 선택의 여지가 생긴 사람들도 욕망으로 치달리고 있는 세상의 '경제 방앗간'에서 곡식이 되어 짓뭉어지고 있으며, 욕망을 성취함으로써 기껏해야 '자존심'의 수준에 도달할 뿐이다.

250이 되기 전까지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된다. 250수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어느 정도의 자기만족이 생기고, 그로써 의식의 진화 선상에 서서 긍정적인 삶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 문화적 상관관계

200이하의 에너지 장은 겨우겨우 생존을 유지하는 아주 원시적인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입을 옷이 흔치 않고, 문맹이 보통이며, 소아 사망률이 높으며, 질병과 영양 부족이 만연하고, 그에 따라 사회적인 잠재력을 찾아볼 수 없다. 기술 수준도 보잘 것이 없어서, 고작 땀감 마련이나 식량 구하기, 움집 짓기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정도이다. 그들은 변덕스러운 그때그때의 주위 환경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이것이야말로 석기시대의 문화 수준으로, 동물의 존재 방식보다 낮다고 할 수 없다.

200대 중에서도 낮은 수준에 속하는 사람들은 숙련되지 않은 노동, 원시

적인 상거래, 카누나 움집 만들기 등에 노력을 소모한다. 이렇게 유목민의 상태에서 떠돌며 살다가 의식 수준이 조금 높아지면 농경 사회가 나타나고, 화폐를 사용하는 매매 단계로 진화된다.

200대의 중간 수준에서는 조금 숙련된 노동자들을 볼 수 있다. 소박하지만 생활이라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의식주의 경제가 존재하고, 기초적인 교육이 시작된다.

200대의 높은 수준에서는 숙련된 노동자, 막일꾼, 상인, 소매업자 등을 볼 수 있다. 200대의 중간 이하 수준에서는 고기잡이가 개인이나 부족의 일이었던 것이 200대 중간 이상이 되면 어엿한 산업으로 등장하게 된다.

300대의 수준에서는 기술자, 숙련공, 경영자, 그리고 소박한 형태의 사업가를 볼 수 있다. 이차적인 교육이 시작되고, 옷차림이나 운동, 연예에 대한 흥미가 생기고, TV가 주요한 소일거리가 된다.

300대 중간 수준에서는 전문 경영인, 기능공, 교육자들을 볼 수 있다. 이들에게는 자기 가족이나 이웃, 도시를 초월하여 국가와 국가의 복지를 생각할 줄 아는 세계관이 생기기 시작한다. 문명화된 사회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생존이 보장되고, 따라서 사회적인 관심사를 대화의 중심으로 삼는다. 사회적인 유동성, 융통성, 또는 자원에 의해 제한적이거나 여행과 레크레이션이 가능해진다.

400대의 수준에서는 지성의 눈뜸으로 진정한 식자층이 나타나고,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으로 전문가 층과 과학자, 행정 관리 등이 형성된다. 이보다 낮은 수준에 속하는 사람들의 집에서는 아무런 읽을거리도 찾아볼 수 없지만 이 수준에 이르면 잡지나 정기간행물, 그리고 적지 않은 장서를 갖추게 된다. 이들은 TV 교양프로그램에 흥미를 갖고, 정치적인 사건의 배경에 관심을 갖는다. 컴퓨터나 통신 계통을 이해하여 사용하게 되고, 지적인 관심을 갖고, 예술적인 창조성을 발휘하는가 하면 체스, 여행, 영화나 연극, 연주회 등을 즐기기도 한다. 사회 환경을 개선하려는

계획을 진지하게 토론하기도 한다. 대법원 판사, 대통령, 정치가, 발명가, 산업계의 지도자들이 이 범위에 속한다.

교육은 이 수준의 토대가 되므로, 사람들은 정보의 근원지가 되고 큰 대학이 있는 도시에 모이게 된다. 교수가 되겠다고 나서는 이들도 있고, 변호사나 다른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다. 다른 동료의 안녕은 이들에게 공통적인 관심사가 된다.

400대 중에서도 높은 수준에서는 각 분야의 지도자들, 사회적 특권을 누리는 고위급 인사를 볼 수 있다. 아인슈타인과 프로이트는 499의 측정치를 보인다. 400대의 수치가 대학과 박사들의 수준이긴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어 융통성 없는 뉴턴의 우주관이나 몸과 마음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하는 데카르트적 사고방식에 머무른다. 뉴턴과 데카르트도 499의 측정치를 보여준다.

200의 측정치가 의식세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듯이, 500의 수치는 깨달음의 세계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된다. 500대의 수준에서는 개인의 생존이 여전히 중요하긴 하지만 모든 행동의 저변에는 사랑의 동기가 작용하기 시작하고, 창조성의 능력이 곳곳에서 보이며, 이는 헌신, 열심, 다채로운 경력 등으로 나타난다. 여기서는 스포츠에서 과학 탐구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뛰어난 노력을 보여준다. 원리 원칙을 중시하지만 남을 아끼는 마음이 행동 동기가 된다. 자신은 지도자의 위치를 추구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로 우대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수준에서 음악, 미술, 건축들의 걸작이 나오고, 이들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의기가 고양된다.

500대의 높은 단계에서 우리는 사회 전반의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은 자기들이 속하는 분야에서 새로운 관점과 이해를 창조함으로써 인류 전체에 끝없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들은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잘 알고 있지만, 사회 대중으로부터는 보통이 아닌 어딘가 다른 사람으로 받아들여진다. 500대 중간 수준에서

는 많은 사람들이 심오한 의미를 갖는 영적인 체험을 하기 시작하고, 영적인 추구에 몰두함을 볼 수 있다. 현실에 대한 관점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기기도 하며 이로써 주위의 친구들과 친척들을 놀라게 하기도 한다. 이 수준에서는 사회 전체를 발전시키는 데에 초점이 맞춰진다고 한다.

이 단계에서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600의 수준으로 도약한다. 이 수준에서는 개인의 생애가 전설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600대의 특성은 자비로서, 그들의 행동 밑바닥에는 자비가 깔리게 된다.

○ 의식의 진전

이상에서 기술한 의식 수준의 진폭은 매우 큰 것이 사실이지만, 한 개인이 생애를 사는 동안 한 수준에서 다른 수준으로 도약하는 것은 좀처럼 보기 드문 현상이다. 태어났을 때 측정된 에너지 장은 일생 동안 겨우 5점 정도의 증가를 보일 뿐이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들의 의식 수준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한 무엇인가를 시사해 준다. 인류의 문화로서 표현되는 의식세계 자체는 수많은 세대를 거쳐 아주 천천한 발걸음으로 진화해 온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 경험을 자신들의 타고난 에너지 장 또는 의식 수준에서 해석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진로를 이룩하긴 하지만, 타고난 에너지 장을 초월한다는 것은 실로 드문 일이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 수준이 우리의 행동 동기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면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동기는 의미에서 나오고, 의미는 사물을 이해하고 믿는 개인의 관점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사물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비롯되며, 이 관점에 기반을 둔 행동 동기가 결국 우리들의 의식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생애를 통해서 겨우 5점밖에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물론 통계적인 숫자로, 이것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선택하는 많은 행동들이 결국 의식 수준을 높이는 데에는 그다지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불행한 사실을 보여준다.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의식이 고도로

성장한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의 영향이 낮은 수준의 사람들의 낮은 에너지 장을 상쇄한다. 반대로 극소수의 사람들의 악영향은 전문화를 흔들어 놓을 수 있고, 전반적인 의식 수준을 끌어내린다. 이는 역사가 잘 증명하고 있다. 운동역학의 시험 결과는 단지 전 인구의 2.6%의 잘못된 사람들이 72%에 해당하는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백 이상의 수치에 이르는 갑작스러운 도약 또한 가능하다. 만일 개인이 예고 중심적인 200이하의 에너지 장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친절하고 진실하고 착하고 용서할 줄 아는 의식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는 것이 자기의 근본 목적이 된다면, 그는 높은 차원의 의식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한 의지력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

평생에 걸쳐서도 한 에너지 장에서 다른 에너지 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지만,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잠재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잠재력과 만나고, 그 잠재력이 그 사람의 인생길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서는 진보를 기대하기 어렵다.

의식 수준의 측정치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대수(logarithm)로 확장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그러기 때문에 이 인생길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것은 실로 중요하다. 예를 들자면 361과 361.1이 갖는 에너지 수준은 현저하게 다르다. 따라서 361의 삶과 361.1의 삶은 크게 다를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서는 이러한 작은 차이가 세상 전체를 바꿔 놓을 수도 있다.

1.3. 우상을 벗어라. 4대 우상(베이컨)

: 사람은 사회현상이나 사물을 바로보기 위해서는 그릇된 지식이나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사람이 바로보기를 못하는 가장 이유가 4대우상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정리하고 그에 관한 주요사항만 이야기 하였다.

- 국민1: 우리가 우상에 빠져 산다고 하지만, 국민전체가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어떻게 최고층인 국회에서까지 더 심하게 우상에 빠져서 나오질 못하느냐구. 어쩌면 이들 정치인들이 우상에 빠지기 쉬운 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권력은 항상 감시해야 하는지 몰라.
- 국민2: 돌아보면, 베이컨의 4대 우상이 훌륭해.
철학을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우상을 파괴하여야 한다.
우상(偶像)이란? 우리 마음에 자리잡고 있는 권위의 상징이자,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라고 해야 하겠지. 프란시스 베이컨의 우상타파론을 돌아보면, 어떠할까?

① 종족의 우상, 인간이란 종족의 우상 - 감각

- 인간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우상, 인간이라는 단순한 사실 때문에 생겨나는 우상
- 강아지는 강아지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새들은 새들대로 좋아하고 따르는 것이 따로 있다. 그러나, 인간만이 최고인줄로 알고 있다. 이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우상이다.
- 민족성, 인종, 여기에 문화의 상대성을 생각하면 오류가 보이지.
- 우리는 항상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한다. 꿈을 꾸었는데 어쩌다가 현실과 맞았다. 꿈이 항상 들어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꿈은 항상 맞는다고 단정짓는다. 이것이 곧 종족의 우상이라.
- 베이컨은 우리의 감각을 엉터리 거울(fales mirrors): 엉터리 거울은 사물을 엉터리로 비춘다.

- 우리는 항상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한다. 사람은 성장과정에서 누구든지 고정관념이 생겨난다고 보면, 고정관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이것에 대한 자각이 밝은 세상의 길목이라고 할 수 있지. 파란 불빛아래서 보면? 파란색! 그러면 불펜의 색은 파란색인가 보라색인가? 태양광선 아래서 빨간색, 파란 스텐드를 제거하면 색깔이 변한다. 그러면 실제 색깔은?

② 동굴의 우상, 플라톤이 비유 - 우물 안의 개구리

- (소크라테스와 글라우콘이라는 젊은 학도의 대화) 동굴에 죄수들이 갇혀 있는데 자세와 목이 영원한 쇠사슬로 고정되어 있어 어두운 벽면만 쳐다보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어두운 벽면을 바라보고 있는 죄수들 가로지르는 통로가 있고 그 뒤에는 불이 타고 있어 다른 죄수들이 이 통로를 지날 때마다 벽면에 영상이 나타난다. 즉 이 죄수들은 벽에 비친 그림자만 보고 살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햇빛도 아닌 햇불 빛에 반사되는 그림자들만 보고 그것이 사물의 실재(참으로 있는 것)라고 생각하고 산다. 탄 것은 볼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어, 그림자가 그림자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게 된다. 한 죄수가 사슬이 풀리어 나오게 되면서, 먼저 동굴 안에서, 죄수들(자신)이 참이라고 바라보았던 벽면의 그림자가 거짓임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언자적 사명을 가지고 다시 그 암흑의 동굴로 들어가 죄수들에게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세계가 모두 그림자의 그림자도 안 되는 허위라는 것을 역설하지만, 죄수들은 그의 말이 믿지 않는다. 나중에는 그들의 사슬을 풀고 그들은 동굴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그를 쳐 죽인다.
- 종족의 우상은 인간 전체에 관계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면, 동굴의 우상은 개인의 좁은 소견에서 빚어지는 착각들, 개인의 편견, 만족이 빚어내는 우상을 말한다. 우물 안의 세계와 밖의 세계는 연속성을 지닌다. 전체 속에서 작고 크다는 양적인 차이로 소견의 옳고 그름을 밝힌다. 개구리는 살아서 넓은 바다를 보게 된다. 동굴 안의 세계와 밖의 세계는 이원적 분리된 세계이다.

- 밖과 안/ 빛과 암흑/ 참과 거짓/ 실재와 그림자/ 구원과 타락/
- 참을 본 죄수는 죽었다.
- 예수의 죽음/천국(세계)= 광명, 동굴안= 어둠/ 예수= 밖에 나갔다 온 죄수, 인간= 동굴 속이 죄수/

③ 시장의 우상

- 장돌뱅이들이 서로 말로 싸우면서 만들어내는 우상, 즉 인간의 언어가 교류되는 과정에서 개념적 약속이 틀리거나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애매한 말이 사용됨에 따라 파생되는 혼란들.
- 예) ‘당신’ - 당신이 뭔데 간섭이야.

④ 극장의 우상, 권위의 우상

- 나보다 앞서서 성립한 철학 체계의 도그마에 속박되어 나의 판단을 그르치게 되는 그러한 우상. 우리가 연극을 볼 때, 이것이 인간이 만든 장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과 같다. 현대는 TV, 신문 등 언론의 우상이 극장의 우상에 해당되는 것이겠지.

1.4. 명언 감상

: 세상을 바라 본 선인들의 명언을 통하여 선견지명과 통찰력으로 가득한 명언을 감상하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명언과 속담은 가장 짧고 함축적인 표현으로 우리를 깨닫게 한다. 명언으로 명상을 하면 어떠할까? 우리가 명언과 속담의 올바른 의미를 되새김 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수준이 조금은 높아지지 않을까?

1.4.1. 명언 풀이

- 가장 유능한 사람은 가장 배움에 힘쓰는 사람이다. -괴테
 - 국민1: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그렇다면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은 결국은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가장 유능하다고 할 수 있을 때, 맞는 말인 거 같다. 지식과 지혜의 구분이 필요하지만, 일단은 멋진 말이다.
- 계획이란 미래에 관한 현재의 결정이다. -드래커
 - 국민2: 계획을 바로 세우고 그것을 미래의 청사진으로 보고 추진한다면 미래가 계획대로 된다고 생각함. 멋진 계획을 세우고 믿음으로 추진하면 된다는 말!
- 장기적 비전을 위해 단기적 손해를 감수한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빌게이츠
 - 국민3: 바둑에서 사소취대(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함)라는 말과 상통한다고 볼 때, 종국의 목표를 향하여 사소한 것은 버린다는 말로 멋진 말이다.
- 성공에 중요한 요소는 지식과 창조력이다. -에릭 브리 놀슨
 - 국민4: 기본적 지식에 창조적으로 문제해결을 한다는 지극히 멋진 말!
- 성공은 역경과 번민의 체험을 통하지 않고서는 다가오지 않는다. -김용삼
 - 국민5: 보통사람이 역경과 번민을 통하지 않고 창조력과 의지력을 얻기 어렵다고 볼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를 보완하는 말이라고 생각해.

-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그릇된 믿음을 버리는 것이 성공을 향한 첫걸음이다. -앤드류 매튜스
- 국민6: 목표를 향하여 성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라는 말? 포기하지 말라를 재해석 한 말로 보이는데….

- 하루하루를 우리의 마지막 날인 듯이 보내야 한다. -푸블릴리우스 시루스
- 국민7: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성공할거야, 그렇지.

- 역사는 아와 비아의 싸움이다(신채호). 싸움의 시작은 나와 비아의 규정에 따른다. 개인이나 국가나…
- 국민8: 과거는 아와 비아의 싸움의 결과로 승패가 갈렸다고 할 수 있겠지. 현재는 아와 비아의 관계에 따라 역사가 결정된다는 것으로 민족의 선생이라고 할 만하지. 안 그런가?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후속작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의 진화판 성인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지요.

- 하루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안창호).
- 여기서 글은 지혜, 예, 도, 배움, 이성, 이해, 통찰 등을 의미한다고 볼 때, 도산선생은 하루라도 정진이 없으면 자신이 반성된다고 해석된다. 정진의 으뜸은 일일신우일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매일 정진하다가 하루라도 중단하면 입안에 가시가 돋치게 되어 상대를 욕하고 자신에게 욕한다는 의미이다. 내가 발전하지 못하면 무너지고 거칠어져 상대를 다치게 하고 심지어 자신도 다치게 된다는 무시무시한 반성의 채찍이라고 해석됩니다. 매일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할 일을 하라는 말로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쉬지도 않고(괴테)” “현재에 열중하라. 오직 현재 속에서만 인간은 영원을 알 수 있다. -괴테” “가장 유능한 사람은 배우기에 가장 힘쓰는 사람이다(괴테).” 오늘 현재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인다.

- 국기에 대한 맹세: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 우리는 여러 가지 행사 때마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한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많이 맹세해 놓고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요상도 하더이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에서 왜?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 억울한 사람이 많은 거야! 아무리 양보해도 더 문제인 것은 왜? 그것을 해결할 의지조차 없는 것이냐? 이번 정부에 용산사태, 쌍용차노조, 유성기업, 대교, 한진중공업 등을 보면 국가가 왜 있어야 하는지? 국가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 너 자신을 알라(소크라테스). 30쪽 참조, 1.6. 너 자신을 알라. 지피지기 백전불태, 아와 비아의 관계
-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예수).

○ **나라가 흥하는 7가지로 간디가 말한, 나라가 망하는 징조를 긍정형으로 표현한 것이다.**

- 원칙있는 정치: 이런 것을 국민이 얼마나 바라는 일일까!
- 노동대가에 의한 부유: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아닐까!
- 양심있는 쾌락: 수준높은 인생!
- 인격있는 지식: 지식인이 존경받는 상황이 아닐까!
- 도덕성을 갖춘 상업: 부자가 존경받으며 사는 사회!
- 인간성이 배어나는 과학: 과학의 진정한 사회공헌
- 희생하는 종교: 밝은 사회의 창구!

○ **나라가 망하는 징조 7가지는 마하트마 간디의 경고문이다.**

- 원칙없는 정치
- 노동없는 부유
- 양심없는 쾌락
- 인격없는 지식
- 도덕성 없는 상업
- 인간성 없는 과학
- 희생없는 종교

1.4.2. 명언모음 (● 동양명언, ○ 서양명언)

- “백성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속일 수 없으며, 백성이 아무리 약해도 이길 수 없다.”(명심보감)
- 사소취대, 잃는 것이 감수하고 큰 것을 향하여 나아간다. (위기십결, 빌 게이츠)
- 혈기(血氣)의 성냄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기(理氣)의 성냄은 없어서는 안 된다. - 주자(朱子)
- 호연지기(浩然之氣). - 맹자
- 인간의 본성은 선(善). - 맹자
- 예(禮)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다. - 공자(孔子)
- 왕도와 패도. - 맹자(孟子)
- 인간은 본성은 선도 악도 아니다. - 공자
- 성자(聖者)는 천지도(天之道)요, 성지자(誠之者)는 인지자(人之者)이다. - 공자(孔子)
-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 - 공자(孔子)
- 자비, 검약, 검허를 몸가짐의 3보로 하라. - 노자(老子)
- 인간이 본성은 악(惡). - 순자(荀子)
- 곳간이 차야 예절을 알고, 의식이 족해야 영욕을 안다. - 관자(管子)
- 비록 불행에 이른다 할지라도 군신(君臣)이 함께 제 나라 강토 안에서 죽는 것이 옳은 일이다. - 이순신(李舜臣)
- 사람 섬기기를 하늘과 같이 하라. - 최시형(崔時亨)
- 민중은 국가의 근본인 동시에 군주의 하늘이다. - 정도전(鄭道傳)
-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오]하고 대답할 것이다. - 김구(金九)
- 무실역행(務實力行)하고 충의용감(忠義勇敢)하라. - 안창호(安昌浩)
-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 예수
-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순신
- 인간 속에는 무엇인가 악마와도 같은 것이 있는가 하면, 신과 닮은 무엇이 있다. - 네루(Nehru, J.)
- 케사르의 것은 케사르에게. - 예수(Jesuss)

- 산적을 멸하기는 쉬워도 심중의 적을 멸하기는 어렵다. - 왕양명(王陽明)
- 남에게 부정하게 대하지 말 것이며, 남이 나에게 부정하게 못하게 하라. - 마호메트(Mahomet)
- 백성은 아무리 허약한 것 같아도 꺾을 수 없고, 아무리 우둔한 것 같아도 속일 수 없다. - 맹자
-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 유베날리스(Juvenalis)
-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을 바라기에 앞서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 케네디(Kennedy, J.F.)
-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柱:원래 파커가 한 말). - 링컨(Lincoln, A.)
- 그래도 지구는 돈다. - 갈릴레오(Galileo, G.)
- 강대국의 책임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봉사하는 것이다.
- 트루먼(Truman, H.S.)
- 개방된 도덕과 폐쇄된 도덕. - 베르그송(Bergson, H.)
- 곱사등이에게서 그 혹을 떼어 버리면 그에게서 혼을 없애는 것이다.
- 니체(Nietzsche, F.W.)
- 공포로 인해 타협하지 말 것이며, 남이 나에게 타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 케네디(Kennedy, J.F.)
- 인간을 위해 국가가 만들어졌지, 인간이 국가를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
- 아인슈타인(Einstein, A.)
- 국가는 시민의 하인이자 주인은 아니다. - 케네디(Kennedy, J.F.)
- 군주정치가 타락하면 폭군정치, 귀족정치가 타락하면 과두정치, 민주정치가 타락하면 중우정치. -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 근면과 성실로 재산을 모은 것은 신의 섭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 캘빈(Calvin, J.)
- 나는 보았다. 그러나 믿지 않았다. - 괴테(Goethe, J.W.)

- 나는 노예가 되고 싶지 않은 것처럼 주인도 되고 싶지 않다. - 링컨 (Lincoln, A.)
- 나는 살려고 하는 생명체에 둘러싸인 살려고 하는 생명이다. - 시바이 켄 (Schweizer, A.)
-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 데카르트 (Descartes, R.)
- 나는 세계시민이다. - 디오게네스 (Diogenes)
- 나는 승리를 흠치지 않는다. - 알렉산더 대왕 (Alexander, The Great)
- 나는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 - 제퍼슨 (Jefferson, T.)
- 나는 조국 프랑스는 사랑하지만 프랑스인은 싫어한다. - 드골 (de Gaulle, C.)
- 날고 있는(飛) 화살은 순간적으로 정지상태에 있다. - 제논 (Zenon)
- 내가 무엇을 아는가. - 몽테뉴 (Montaigne, M.de)
- 내가 안토니우스가의 한 사람인 한에서는 내 도시, 내 나라는 로마이지만 내가 인간인 한에서는 내 조국은 세계이다. -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Marcus Aurelius)
- 너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라. - 피히테 (Fichte, J.G.)
-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 - 예수 (Jesus Christ)
- 너 자신을 알라. - 소크라테스 (Socrates)
- 네 개(종족. 동굴. 시장. 극장)의 우상. - 베이컨 (Bacon, F.)
- 노병(老兵)은 결코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이다. - 맥아더 (MacArthur, D.)
- 높거나, 낮거나, 덥거나, 춥거나, 동쪽이거나, 서쪽이거나, 남쪽이거나, 북쪽이거나 도시가 있는 곳이면 올림픽은 열린다. 그것은 이 세상의 오아시스이다. - 브런디지 (Brundage, A.)
-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보수. - 레닌 (Lenin, N.)
- 덕(德)은 중용을 지키는 데 있다. - 아리스토텔레스 (Aristoteles)
- 도덕은 이기심과 동정심의 조화. - 아담 스미드 (Smith, A.)
- 로마는 하루아침에 세워진 것이 아니다. - 세르반테스 (Cervantes, M.)

- 만물은 유전한다. - 헤라클레이토스(Herakleitos)
- 만물의 근원은 공기. - 아낙시메네스(Anaximenes)
- 만물의 근원은 땅, 물, 바람, 불. - 엠페도클레스(Empedokles)
- 만물의 근원은 무한자. - 아낙시만드로스(Anaximandros)
- 만물의 근원은 물. - 탈레스(Thales)
- 만물의 근원은 불. - 헤라클레이토스(Herakleitos)
- 만물의 근원은 수(數). - 피타고라스(Pythagoras)
- 만물의 근원은 원자(原子). - 데모크리토스(Demokritos)
- 만인(萬人)의 만인(萬人)에 대한 싸움. - 홉즈(Hobbes, T.)
- 만족한 돼지가 되는 것보다 차라리 불만을 가진 인간이 되는 편이 낫고, 만족한 바보 보다는 불만을 품고 있는 소크라테스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좋다. - 밀(Mill, J.S.)
- 말은 물론 인류에 의해 쓰이는 가장 강력한 약이다. - 키플링(Kipling, R.)
- 모든 것은 무한수의 단자로부터 이루어지고 잘 조화되고 있으며 아름답다.
- 라이프니츠(Liebniz, G.W.)
- 모든 길은 로마로. - 라퐁테느(La Fontaine, J. de)
- 목적은 모든 법률의 창조자이다. - 예에링(Jhering, R.von)
- 목적은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 마키야벨리(Machiavelli, N.B.)
- 민주주의는 공동생활의 한 양식이며 주고받을 수 있는 경험의 한 태도이다. - 듀이(Dewey, J.)
- 민주주의라는 말은 헤로도투스 시대 이래 국가의 지배권력이 어떤 특정한 계급에 있지 않고 사회 전체의 구성원에게 합법적으로 부여된 정부형태이다. - 브라이스(Bryce, J.)
-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 콩트(Conte, A.)
- 법률과 도덕의 관계는 법철학에 있어서 케이프 혼(Cafe Horn)이다.
- 예에링(Jhering, R. von)
- 법률은 인간의 폭군. - 힤피아스(Hippias)
- 법은 도덕의 최소한. - 엘리네크(Jelinek, G.)
- 보이지 않는 손. - 아담 스미드(Smith, A.)

- 보지 않고 믿는 자는 행복하다. - 프리드리히(Friedrich)
- 비록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여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 스피노자(Spinoza, B.de)
- 빈곤의 악순환. - 너키(Nurkse, R.)
- 빛나는 것이 모두 금은 아니다. - 라퐁테느(La Fontaine)
- 사람은 나면서부터 사형선고를 받았다.-쇼펜하우어(Schopenhauer, A.)
- 사람은 삶이 무서워서 사회를 만들고 죽음이 무서워서 종교를 만들었다. - 스펜서(Spencer, H.)
- 사람은 좋이기 때문에 욕구하는 것이 아니라, 욕구하기 때문에 좋다. - 스피노자(Spinoza, B.de)
- 사람은 형이상학적인 동물. - 쇼펜하우어(Schopenhauer, A.)
- 사자와 같은 폭력과 여우와 같은 계략. - 마키야벨리(Machiavelli, N.B.)
- 사회에 유익하면 종교도 가치가 있다. - 듀이(Dewey, J.)
- 생명에 대한 외경. - 시바이쩌(Schweitzer, A.)
- 생의 근본적 기분은 불안이다. - 하이데거(Heidegger, M.)
- 생존경쟁에 의한 자연도태설로 모든 생물은 적자생존의 원칙에 의하여 진화된다. - 다아윈(Darwin, C.R.)
- 세계는 미망(迷妄)과 투쟁, 고통의 무대.-쇼펜하우어(Schopenhauer, A.)
- 세계 역사는 세계 심판이다. - 쇼펜하우어(Schopenhauer, A.)
- 셰익스피어의 예술은 인도 전부와도 바꿀 수 없다. - 카알라일(Carlyle, T.)
- 소년이며, 야망을 가져라. - 클라아크(Clark, J.B.)
- 신은 죽었다. - 니체(Nietzsche, F.W.)
- 신은 죽었다. 그러므로 인간의 운명은 인간의 손 안에 있다. - 샤르트르(Sartre, J.P.)
-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 샤르트르(Sartre, J.P.)
-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 샤르트르(Sartre, J.P.)
- 아는 것은 힘이다. - 베이컨(Bacon, F.)
-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존재하더라도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있어도 전할 수가 없다. - 고르기아스(Gorgias)

- 악법도 법이다. - 소크라테스(Socrates) 사실은 이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누가 악용? *오류의 하나: 악법은 법이 아니다.
- 약한 자여, 너의 이름은 여자니라. - 셰익스피어(Shakespeare, W.): 이 말에 자극받아서 인지, 요즘은 여자가 아주 강합니다.
-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 히포크라테스(Hippokrates)
- 예술의 목적내지 효과는 카타르시스에 있다. -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 스피노자(Spinoza, B.de)
- 요람에서 무덤까지. - 비버리지(Beveridge, W.H.)
- 우리는 전투에는 졌지만, 전쟁에는 아직 지지 아니했다. - 드골(de Gaulle, C.)
- 우리들이 두려워할 것은 오직 공포뿐. - 루우스벨트(Roosevelt, F.D.)
- 우리 생활에 유익하면 그것이 진리이다. - 제임스
- 유럽의 모든 나라가 행복한다 해도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바다에서, 하늘에서, 들판에서, 런던에서. 우리는 행복하지 않는다. 행복이란 것은 어떤 순간에도 상상조차 할 수 없다. - 처어칠(Churchill, W.)
- 유럽인에 의한 대유럽. - 드골(de Gaulle, C.)
- 유효수요의 증대를 통해서만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다. - 케인즈(Keynes, J.M.)
- 이것은 인간의 한 작은 일보지만, 인류를 위해서는 거대한 도약의 일부이다.
- 암스트롱(Armstrong, N.)
- 이 무한한 공간의 영원한 침묵은 나를 두렵게 한다. - 파스칼(Pascal, B.)
- 이제 대결의 시대는 가고, 협상의 시대가 왔다. - 닉슨(Nixon, R.M.)
-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 헤로도투스(Herodotus)
- 인간 소외. - 마르크스(Marx, K.)
- 인간은 도구(道具)를 만드는 동물. - 프랭클린(Franklin, B.)
- 인간은 동물과 초인(超人)사이에 맺어진 밧줄이다. - 니체(Nietzsche, F.W.)

- 인간은 만물의 척도. - 프로타고라스(Protagoras)
-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 인간은 상징적 동물이다. - 카시러(Cassirer, E.)
-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 파스칼(Pascal, B.)
- 인간은 정치적 동물. -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 인간은 천사도 아니요, 짐승도 아니다. - 파스칼
- 인간은 태어났을 때는 자유스러웠으나 사회 속에서는 무수한 쇠사슬에 얽혀져 있다. - 루소
- 인간의 마음은 출생할 때에는 백지(白紙)와 같다. - 로크
- 인간의 본능은 경제적 본능. - 마르크스
- 인간의 본성은 권력에의 의지. - 니체
- 인간의 본성은 성적(性的)인 본능. - 프로이트
- 인간의 상태는 모든 인간의 모든 인간에 대한 투쟁상태이다. - 홉스
- 인구는 기하급수, 식량은 산술급수로 증가한다. - 맬더스
-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 히포크라테스
- 인생을 진실하게 그리고 전체로서 보아라. - 에피쿠로스
- 자기와 남의 인격을 수단으로 삼지 말고 항상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 칸트
- 자연에는 비약이 없다. - 다아윈
- 자연으로 돌아가라. - 루소
- 자유가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 - 페트릭 헨리
- 자유가 있는 곳은 어디라도 나의 조국이다. - 프랭클린
- 재산은 도품(盜品)이다. - 프루동
- 정신은 물질의 최고 산물. - 포이에르 바하
- 중용은 덕 중의 최고의 덕. - 브라이스
- 지식은 도구이다. - 듀우이
- 진리의 척도는 실용에 있다. - 듀우이
- 짐은 국가이다. - 루이 14세
- 천재란 하늘이 주는 1%의 영감과, 그가 흘리는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 에디슨
- 철의 장막. - 처어칠

- 청소년기는 제 2의 탄생. - 루소
 -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 벤담
 - 카리스마적 지배. - 베버
 - 쾌락이 유일한 선이고, 불쾌는 유일의 악이다. - 에피쿠로스
 -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세계의 역사는 변하였을 것이다. - 파스칼
 -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 링컨
 - 펜은 칼보다 강하다. - 리튼
 - 풍요 속의 빈곤. - 케인즈
 - 행복이야말로 최고의 선. - 아리스토텔레스
 - 학문과 예술만이 인간을 신성에까지 끌어올린다. - 베토벤
 - 회화는 말없는 시요, 시는 말하는 그림이다. - 시뮈니데스
 - 회화와 조각의 목적은 볼 줄 알게 되는 것. - 레오나르도 다 빈치
 - 인간의 역사는 아와 비아의 싸움이다. 그 인생은 누구와, 무엇과 어떻게 싸웠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신채호와 후손.
-
-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의 이마에 희망이라는 단어를 써주셨다. 빅토르 위고.
 - 가장 유능한 사람은 배우기에 가장 힘쓰는 사람이다. -괴테
-
- 게을리 걸어도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달할 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잘못이다. -괴테
 -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남의 장점을 존중해 주고 남의 기쁨을 자기의 것인 양 기뻐하는 자이다. -괴테, 이타락시아(불경): 타인의 즐거움을 나의 즐거움으로 한다.
-
- 결혼 생활은 모든 문화의 시작이며 정상(頂上)이다. 그것은 난폭한 자를 온화하게 하고, 교양이 높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 온정을 증명하는 최상의 기회이다. -괴테
 - 가장이 확실하게 지배하는 가정에는 다른 데서 찾아 볼 수 없는 평화가 깃든다. -괴테

- 누구나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경험한 선배의 지혜를 빌지 않고 실패하며 눈이 떠질 때까지 헤매곤 한다. 이 무슨 어리석은 짓인가. 뒤에 가는 사람은 먼저 간 사람의 경험을 이용하여, 같은 실패와 시간낭비를 되풀이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선배들의 경험을 활용하자. 그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다. -괴테
- 격언에 가로되, “머슴에겐 영웅이 없다”고 했다. 그 이유는 영웅은 영웅만이 알아주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머슴도 자기와 동등한 자라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괴테
-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참된 인간이 되어 가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한다. -괴테
- 고상한 남성은 여성의 충고에 따라 더욱 고상해진다. -괴테
- 고통이 남기고 간 뒤를 보라! 고난이 지나면 반드시 기쁨이 스며든다. -괴테
- 괴로움을 남기고 간 것을 맛보라! 고난도 지나고 나면 감미롭다. -괴테
- 과거를 잊는 자는 결국 과거 속에 살게 된다 -괴테
-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 꿈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실현할 때가 온다. -괴테
- 그대의 마음속에 식지 않는 열과 성의를 가져라. 당신은 드디어 일생의 빛을 얻을 것이다. -괴테
- 그래, 어쨌든 간에 인생은 좋은 것이다. -괴테
- 기쁘게 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말고 기도(정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성경)
- 기쁘게 일하고, 해 놓은 일을 기뻐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괴테
- 커다란 위험이 가로놓인 것은 현명함과 어리석음이 상반하고 있을 경우이다. -괴테

- 타인을 자기 자신처럼 존경할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을 타인에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된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에는 그 이상 가는 사람은 없다. -괴테
- 평화시의 애국심은 다만 사람들이 앞뜰을 쓸고 가업에 충실하면 세상 일을 학습하여 나라의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다. -괴테
- 평화시나 위기시나 애국심은 관찰이다. 의심나거나 이상한 것을 보고 하고 나쁜 것은 피아불문 고발한다. 또, 이 정보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관찰하여야 한다.
- 하늘은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베푼다. 신속히 이것을 포착하는 사람은 운명을 개척한다. -괴테
- 행복한 인간이란, 자기 인생의 끝을 처음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괴테
- 항상 사람들은 '옛 사람을 연구하라'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것은 '현실 세계에 주의하고 그것을 표현하도록 힘써라!'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 왜냐하면 옛 사람도 그들의 생존 중에 그렇게 한 것이므로. -괴테
- 현재에 열중하라. 오직 현재 속에서만 인간은 영원을 알 수 있다. -괴테
- 확실한 일을 실행할 힘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괴테
- 허영은 경박한 미인에게 잘 어울린다. -괴테
- 현자에게 잘못이 없다면 어리석은 자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괴테
- 희망만 있으면 행복의 작은 그곳에서 움튼다. -괴테
- 희망은 제2의 혼이다. 아무리 불행하다 하더라도 혼이 있으면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혼이 있으면 쉽게 좌절하지 않는다. -괴테
- 나는 시를 만든 것이 아니다. 시가 나를 만든 것이다. -괴테
- 나는 인간이었다. 그것은 싸우는 자란 것을 의미한다. -괴테

- 사람은 표현하는 대로 만들어진다. 표현하지 않으면 한평생 무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사람은 실행하는 대로 만들어진다.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과 같다.
- 나는 죄와 더불어 실책을 미워한다. 특히 정치적 실책을 한층 더 미워한다. -그것은 수백만의 인민을 불행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기 때문이다. -괴테
- 모든 것은 젊었을 때 구해야 한다. 젊음은 그 자체가 하나의 빛이다. 빛이 흐려지기 전에 열심히 구해야 한다. 젊은 시절에 열심히 찾고 구한 사람은 늙어서 풍성하다. -괴테
- 부패가 보이는 데도 그대로 두면 곧 자신도 부패된다. 부패되어 전염되는 것을 보는 것은 가장 큰 고통이다. 결국은 통째로 버려야 한다. 한 사람의 부패가 전 백성을 고통의 늪에 빠뜨린다. 고통을 물리치기 위하여 부패를 퇴치해야 한다. 정의란 불의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지금 불의에 참을 수 없다.
- 남의 좋은 점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남을 칭찬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남을 자기와 동등한 인격으로 생각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괴테
-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나 습득할 수 있지만, 나의 마음만은 오직 내 자신의 것이다. -괴테
- 눈물과 더불어 빵을 먹어 보지 않은 자는 인생의 참다운 맛을 모른다. -괴테
- 당신은 항상 영웅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항상 사람은 될 수 있다. -괴테
- 당신이 만약 참으로 열심히라면 "나중에"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당장이 순간에 해야 할 일을 시작해야 한다. -괴테
- 마음에는 예의란 것이 있다. 그것은 애정과 같은 것이어서 그같이 순수한 예의는 밖으로 흘러나와 외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괴테
- 마지막에 할 일을 처음부터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이 만들어질 것인가는 처음부터 결정된다. -괴테
- 모든 국민은 각자 자기의 천직에 전력을 다하라. 이것이 조국에 봉사하는 길이다. -괴테

- 몸가짐은 각자가 자기의 모습을 비치는 거울이다. -괴테
- 무식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허위의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두려워하라. -괴테
- 법률의 힘은 위대하다. 그러나 필봉筆鋒의 힘은 더욱 위대하다. -괴테
- 보람 있는 일에 복종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이다. 그 일을 방해하는 것들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 곧 생활이다. 정복이 없이는 생활의 내용을 얻지 못한다. 우리의 하루는 정복의 노력으로 빛나야 한다. -괴테
- 부정한 것이 부정한 방법으로 없어지는 것보다는 부정이 행해져 있는 편이 오히려 낫다. -괴테
- 불에 피운 향이 인간의 생명을 상쾌하게 하는 것처럼 기도는 인간의 마음에 희망을 북돋워 준다. -괴테
- 불의(不義)를 발견하기는 매우 쉬운 일이다. 불의는 남의 행동을 보고 있으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금방 알 수 있다. 그러나 진리를 발견하는 것을 어렵다. 사람이 발견하고자 애써야 할 것은 이러한 진리이다. -괴테
- 비겁자는 안전한 때에만 위압적으로 나선다. -괴테, 군자는 보여주기 위하여 행동하지 않는다. 현실에 알맞게 실천할 뿐이다(속담).
- 사람들은 누구나 친구의 품안에서 휴식을 구하고 있다. 그 곳에서라면 우리들은 가슴을 열고 마음껏 슬픔을 털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괴테
-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신념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일을 실행할 만한 힘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법이다. 자신에게 그 같은 힘이 있을까 주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괴테
- 사람의 욕망은 내버려두면 한이 없다. 끝없는 욕망은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다. 자기 욕망에 한계를 갖는다는 것은 목표를 분명히 가진 것이 된다. -괴테
- 사랑이 없는 삶,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생활, 그것은 하찮은 환등기가 비춰주는 '쇼'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슬라이드를 잇따라 바꾸어 비춰보지만 어느 것을 본들 모두가 시시해서 다시 되돌려 놓고는 다음 슬라이드로 다급히 바꾸고는 한다. -괴테

- 사랑이여, 너야말로 진정한 생명의 꽃이며 휴식없는 행복이다. -괴테
- 사랑하는 것이 인생이다. 기쁨이 있는 곳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결합이 이루어진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결합이 있는 곳에 또한 기쁨이 있다. -괴테
- 생명은 자연의 가장 아름다운 발명이며, 죽음은 더 많은 생명을 얻기 위한 기교이다. -괴테
-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쉬지도 않고. -괴테
- 선(善)을 행하는 데는 나중이라는 말이 필요 없다. -괴테
- 선의의 말이 좋은 장소를 점령한다면 겸허한 말은 보다 좋은 곳을 점령한다. -괴테
- 세상에는 어느 하나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과오도 범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 있다. -괴테
- 세상에서 해방되는 데에 예술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또한 세상과 확실한 관계를 갖는 데에도 예술을 통하는 것이 가장 좋다. -괴테
- 순간은 참으로 아름답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노력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영원히 아름답다. 순간이 여기 있으리라. 내가 그와 같이 지낸 과거의 날들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으리라. 이러한 순간에야말로 나는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 -괴테
- 시간이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지 말라! 게을리 걸어도 결국 목적지에 도달할 날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다. 하루하루 전력을 다하지 않고는 그날의 보람은 없을 것이며, 동시에 최후의 목표에 능히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괴테
- 시인은 진실을 사랑한다. 시인은 반드시 그것을 느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괴테
- 고기를 잡은 사람은 낚시를 계속한다. 프랑스 속담.
- 신만이 완벽할 뿐이다. 인간은 완벽을 소망할 뿐이다. -괴테
- 신앙은 모든 지식의 시작이 아니라 끝이다. -괴테
- 신앙의 가장 사랑스러운 자식은 기적이다. -괴테
- 배가 항구에 있어 가장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이유는 아니다. -괴테

- 나는 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다. -칸트
- 너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든, 그들은 용서받을 것이다. 성경(신약).
-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 성경(구약).
- 코끼리는 절대로 잊지 않는다. 헥터 휴먼로.
- 아이들에게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라(교황 요한네스 파울루스 2세).
- 용서하고 잊어라. 필론.
-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 플라투투스.
- 즐거움 없이는 아무도 살수 없다. 때문에 정신적 기쁨을 빼앗긴 자는 유체적 쾌락에 의존한다. 토머스 아퀴나스.
- 아무것도 탐하지 않는 것만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또한 행복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오라티우스.
- 우리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그들이 창조주로부터 어떤 고유의 권리를 부여받았음은 자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잘 안다. 그 중에는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추구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USA 독립선언.
- 자선은 내 집부터 시작한다. 테렌티우스.
- 자선은 내 집부터 시작하지만, 정의는 이웃집부터 시작한다. 찰스 디킨스.
- 말은 행동의 그림자이다. 데모크리토스.
- **말보다 행동(로마 격언), 언행일치(공자).**

1.4.3. 속담

- 사필귀정.
- 고진감래.
- 진인사 대천명²⁾ (盡人事待天命).
- 아는 길도 물어서 간다.
-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 시작이 반이다.
- 하면 된다. 옳게
-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 길고 짧은 것은 재보아야 안다.
- 쥐구멍에도 별들 날이 있다.
-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정신을 차려야 한다).
-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가야 한다.
-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 구슬이 세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 아무리 높이 뛰어도 반드시 땅으로 떨어진다. (필리핀)
- 진실은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영국)
- 바보와 미친 사람은 진실을 말한다. (영국)
- 높은 사람한테서 칭찬 받을 때는 조심하라. (미얀마)
- 높은 사람의 웃음과 푸른 하늘은 믿지 마라. (유고)
- 명예와 거울은 약간의 입김으로도 흐려진다. (스페인)
- 전쟁과 연애에서는 이긴 자가 언제나 옳다. (스페인)
-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 천 명을 죽이면 영웅. (인도)
- 소리 나지 않는 냇물은 깊다. (영국)
-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그리스)
- 천둥 번개가 칠 때는 도둑이 정직해진다. (이태리)
- 시간이 모든 슬픔을 치유한다. (독일)
- 꽃은 십일을 가지 못한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한국)

2)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서 하늘의 뜻을 기다림

- 아름다운 꽃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 (일본)
- 잡초는 벼락에 상처입지 않는다. (포르투갈)

- 꼭 필요할 때는 개가 짖지 않는다. (스페인)
- 짖는 개는 별거 아니다, 짖지 않는 개를 조심하라. (터키)
- 생선은 싱싱할 때 먹어 치우라, 딸은 어렸을 때 시집보내라. (덴마크)
- 너무 굵으면 피부를 상하고 너무 지껄이면 마음을 상한다. (러시아)
- 눈은 무엇이나 볼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볼 수 없다. (유고)
- 백년을 살지 못하는 인생이 천년 일을 걱정한다. (중국)
- 세 가지 불행이 있다. 어려서 부모를 잃는 일, 중년에 상처하는 일, 늙어서 자식을 잃는 일. (중국)

- 술에 취한 사람은 깨어난다. 그러나 돈에 취한 사람은 깨어나지 못한다. (스와헤리족)
- 술이 앞문으로 들어가면 지혜(비밀)는 뒷문으로 나간다.
- 기적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만 일어난다. (프랑스)
- 하나님도 인간이었을 때는 죽음을 두려워하였다. (이태리)
- 비천한 자가 부자가 되면 한밤중에 양산을 쓰고 다닌다. (타밀족)
- 부자가 자식을 원하면 돈이 들어온다. 가난한 사람이 돈을 원하면 자식이 생겨난다. (무어족)
- 수전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행은 빨리 죽는 일이다. (불가리아)

1.4.4. 속담 만들기

- 국민이 깨어있지 않으면 기득권과 권력은 도적이 되고 지배자가 된다.
- 국민은 권리로 무장하여 깨어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권력의 도적을 키우는 것과 같다.
- 똥은 더러워서 피하지만 그릇된 일은 피하면 무섭게 변하여 되돌아 쫓아온다. 더러운 것과 그릇된 것은 다르다. 물론 더러운 것도 잠시 피했다가 청소를 해야 이후로 편리한 생활이 보장된다. 더러운 것을

피하기만 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계속하여 나온다. 아무도 치우지 않는다면 뚱 하나에 온 국민이 더러움을 경험할 것이다. 더러운 것은 기회가 되는대로 치워야 한다.

- 세상사 남의 일이 내 일이 되거나, 우리 일이 될 경우가 많다.
- 세상사는 우리 일이다.
- 겉보고 속 보고 사방팔방 보아야 본래모습.
- 우리동네, 우리나라, 우리지구촌,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다.
- 같은 편임을 확인하는 일에 화를 낸다는 것은 진정한 같은 편이 아니라는 뜻이다.
- 서로 우리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흐뭇한 일이다.
- 확인하여 확신하라. 의심하지 말고.
- 약한 자를 괴롭히는 자는 우리라는 공동체라고 할 수 없다.
- 나쁜 일은 모두가 감시해야 경찰이 잡을 수 있다.
- 나쁜 일은 무관심을 좋아하고 무서운 일은 “간섭 하지마” 하고 시작한다.
- 악당은 농담으로 방심시키고 진담으로 협박한다.
- 좋은 말을 악담으로 바꾸는 자는 충신을 모함하는 것과 같다.
- 거짓은 겉으로 유혹하고 속은 믿으라고 한다.
- 믿어 달라 되풀이 하지 말고 진짜를 보여 믿게 한다.
- 믿어 달라 되풀이 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진짜는 믿게 하는 재주가 있다.
- 믿음은 의심이 풀리면서 서서히 오고 오래간다.
- 가짜는 빨리 믿어 달라 졸라 댈다. 진실은 믿어 줄때를 기다린다.
- 진실은 확인 받고 이해시키는 일을 즐거운 세월.
- 진짜는 대부분 서두르지 않는다.
- 영원한 최고는 없다. 다만 최선을 다 할 뿐이다. 최선을 다하는 길에 중간과 때때로 최고에 다다를 수 있다. 승패로 비교하면 병가지 상사다. 최고만이 살아남는다는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것과 같다. 일에서는 최고와 그 이하가 공존하는 경우가 많다.
- 모든 혈연관계를 떠나 폭력은 감시하여야 한다.
- 애정관계도 폭력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 남녀관계에 있어서 폭력으로 해결하는 것은 사회문제로 된 것이다.
- 과거없는 현재없고 현재없는 미래없다.
- 싸움이란 말을 너무 남용하고 있다. (투쟁의 시대가 계속되긴 했지만) 이견만 있어도 싸웠다고 하니까 모두가 싸운 것이 된다. 토론이나 대화에서 이견은 당연히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대시 하는 표현이 난무하였다.
- 이견은 다양성(객관성)의 시작이다.
- 세대차를 줄이는 자가 앞서간다.
- 자랑과 겸손의 멋진 균형은 서로를 필요로 하게 한다.
- 공정한 가운데 아름다움이 있다.

1.4.5. 언어와 이성

- 국민1: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현대인의 언어인가? 시대적 조명이 필요하다. 우리가 정말, 현대에 맞는 진리와 지식을 활용하여 이성을 사용하는 것인가!
- 국민2: 어쩌면, 식민지와 전쟁의 후유증에 대한 혼돈과 우상 속에서 살아온 건 아닐까?
- 국민3: 자유, 정의, 진리, 개혁(창조)이 보장된 사회일까? 국가가 이런 덕목을 추구하는 나라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의혹이 제기된다.
- 국민4: 자유는 경찰이 mb에게 운영상의 과오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비판하고 대화와 사유가 있어야 정상이 아닐까? 이렇게 표현의 자유가 전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회가 되어야 권력과 기득권의 부정부패, 독재비리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 국민5: 몇 년 전, 미네르바 사건에서 당사자를 옥살이 시켰었지. 혼란을 가져온 게 아니고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 정부는 고맙다고 훈장을 주며 홍보하여야 정상이 아닐까! 어떻게 필요한 말을 하면 학대를 하느냐고….
- 국민6: 정의로운 사회란? 사건이후, 시간이 흘러 충분히 정리된 역사적 불의에 대하여 바로 잡는 것에 대하여 복수를 하는 저질적 인사정책을 쓰지 않는 정치사회! 정적이라고 해도 이 정도 배려하는 나라가 되어야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이상한 논리로 국격 운운 하지 말고.
- 국민7: 역사정리는 천안함 사건에서 서세정 교수가 제시한 것을 허심탄회하게 검증하는 정부와 국민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거 뭐, 내가 시간성 착각을 일으킨 것인지. 세상이 착각하는 지. 이 따끔 내가 잘 못 들었나? 하고 반문을 한다니까.
- 국민8: 사람이 이성을 가졌다는 것은 언어에 대한 자유로부터 출발한다. 언어통제를 한다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뿐이다. 왜냐하면, 언어를 자유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이 이성이 없다는 말이 아닐까? 이성이 없는 자가 언어를 통제한다. 즉, 제대로 된 인간은 언어통제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 그러니까 함부로 언어를 통제하는 자는 사람의 자격이 없다는 증거!

1.4.6. 세상을 바꾸려는 10계명

- 모든 것을 버려라. 그러면 다 얻게 될 것이다(버림의 미학, 희생의 리더십)
- 지옥에 가서라도 아이디어를 얻으라. 그리고 현장을 누벼라.(비전, 현장주의 실천)
- 사람을 얻으라. 팀웍이 세상을 구한다.(주체, 사랑, 우정)
- 가서 두드려라. 그리도 요청할. 거절당해도 상처받지 말라.(모금, 돈)
- 카피가 세상을 바꾼다.
- 매일 공부하고 스스로를 혁신하라.(창조와 혁신)
- 작은 것이 아름답다. (섬세의 미학)
- 혼자서 되는 일은 없다. 사람들을 모으고 포용하라. (감투의 미학)
- 쉬운 일은 없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시지프스의 운명이다.(고난을 즐기는 마음)
- 인생은 끝없는 방황이고 여행이다. 늘 떠나라. (사향과 이별의 인생관)

1.5. 건국신화

: 세상에는 신화가 있고 그 후손은 그 힘으로 살아간다. 그리이스로마 신화는 많은 지혜와 흥미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 신화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너무 훌륭하여 긴 말이 필요하지 이야기!

- 홍익인간: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지구촌 어디에서 이런 사상을 찾을 수 있을까! 인류의 이상이다.
- 제세이화: 세상을 고르고 이치대로 한다. 성경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이다.” 와 일맥상통 한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1.6. 너 자신을 알라. 지피지기 백전불태, 아와 비아의 관계(net work), 그리고 마음

: 이 말은 일리는 넘어 격언을 거쳐 진리의 수준의 말이 아닐까! 4대 성인이 전해 준 “너 자신을 알라”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한 것이 손자의 “지피지기”이고 현대에 와서 종합정리된 것이 있다. 이 말은 우리 민족의 지도자 신채호 선생의 어록이다. 그것이 바로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 국민1: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아와 비아의 관계를 알면 우선 쓸데없는 싸움은 안 하겠지. 선인의 말대로 나를 알면 상대도 알 수 있는 안목이 높아지는 법이지. 나를 알라.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이 들겠지.
- 국민2: 우리나라의 전시작전권을 USA에 위임하는 방법은 힘과 전략이 약한 경우 등의 특수한 상황에 한하여 유리할 수도 있다. 냉전시대 약소국의 위기에 지원병을 약속받기 위한 궁여지책 처세법일수도 있다. 상대를 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의 상황과 판이하게 다르다. 지금은 냉전시대도 아니고 남북한 투자규모가 확연히 다르다. 따라서 가능한 우리의 현실에 맞게 대처하려면 가능한 한 주권을 찾아야 단결이 가능하다. 올바른 세력과 상황적 실리주의 논리를 펴는 의존형 이론이 서로 다르다. 즉, 분열의 싹을 안고 산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국민3: 우리나라는 전적으로 사대주의에 의한 의존형 방법을 유지하여 왔다. 주권 독립형 세력과 언제든지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국가의 안정성을 감안하면 사대주의 의존형은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다.
- 국민4: 민족의 지도자 신채호선생의 말처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아(我)와 비아(非我)”의 네트워크 관계를 만들어 가면 충분하다는 감이 느껴지는데.
- 국민5: 말하면 잔소리지. 이보다 확실한 길은 없다고 봅니다.
- 국민6: 너 자신을 알라,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나 자신을 알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알아가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나 자신을 알면 상대도 어느 정도 알게 되어 스스로 선다는 의미이다. 적대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다. 자신을 제대로 알면 상대도 보이게 마련이듯이.

- 국민7: 동양에서는 사람에게 군자가 되기를 권한다. 군자란 타인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수준 높은 지성과 지식위에 통찰력을 갖춘 인재를 말한 것이지. 여기서 단재는 상대가 적대적일 경우에 해당하는 나와 상대, 즉, 나와 타인의 관계가 역사를 만든다고 설파하였다. 나와 상대를 알고 그 관계정립이 역사를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란 의미로 현대사회의 복잡한 관계에서도 결정되는 것을 통찰한 것이라고 생각해.
- 국민8: 사회운동가에게, 그리고 수많은 탄압받는 자의 처세는 즐겁게 기쁨 속에서 의연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작금, 진퇴양난이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버텨야한다. 아니, “버티는 것이 아니고 기쁘게 살아야 한다.” 시대의 사명을 따른다는 대의와 이 참담한 현실을 개선하려는 희망,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단재 선생의 말씀대로 아와 비아의 관계설정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자. 어렵다고 어려운 이야기만 하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상당수가 도망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이지. 부담스럽고 걱정되고 겁나는 현실참여잖아. 어려운 현실만 전달하다보면, 지레 겁먹고 도망하기 때문이라고 할까! 이 때야 말로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비전을 가지고 마음을 미래에 두고 즐겁게 사는 거야. 수준에 맞추어 참여를 유도하여야 하지 않을까. 만약 아무에게나 고난의 길을 전하면 응원하지 못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외면한다. 진보의 위치가 너무 멀게 느껴지면 포기 하는 거잖아. 의식도 없는데 어떻게 어려운 길을 가느냐고. 그건 배움과 깨달음이 필요한 것 같아.
- 국민9: 사측의 분열작태에 의하여 지도부는 고립될 수 있다. 지도자는 특성상 외로운 자리가 아닌가! 그렇다고 관계망을 약하게 하여 고립되어서는 안 되잖아. 스스로 관계를 넓히고 연결고리를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현실을 잘 알리고 연대의 힘을 갖추어야 한다.
- 국민10: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왕따 문제! 지금이 경쟁사회라도 긍정적으로 보면 한편이지 경쟁관계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 때는 이런 세상 만들지 말아야 하지요. 인디언속담에 “빨리 가려거든, 혼자가고, 멀리가려거든 모여서 다함께 가라.” 즉,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한다는 말이다. 자기가 아는 사람은

경쟁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소통을 하기위한 가장 필요한 도움의 대상이기도 하지요.

- 국민10: 경쟁관계라고 하지만, 학교 전체가 잘 되려면 같은 학교학생은 서로 도움의 관계가 되어야 서로 성공한다. 그리고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선의의 공정경쟁은 필수이다. 공정체제는 국가정부의 임무이자 목적이다. 기득권이 많으면서 공정사회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즉, 기득권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 나라 공정사회의 진위와 수준이 결정된다. 아무리 공정사회를 떠들어도 기득권을 방치하면 민주사회! 공정사회는 사실상 포기한 것과 같다. 민주사회! 공정사회! 선진국! 도처에 숨어있는 기득권을 자라게 해서는 불가능하다.
- 국민11: 자기가 자신을 객관적 수준으로 평가하지 못하면 오판할 가능성이 있다. 자신이 하면 로맨스, 타인이 하면 불륜인 자기 본위론과 같다. 이렇게 되면 깨달음이 없다. 거듭나기 어렵다. 의식의 지도가 바뀌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
- 국민12: 하루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잠시라도 자아를 찾기 위한 배움이 없으면 퇴보하여 타인을 가시처럼 날카롭게 찌른다. 마치 남의 불륜을 지적하는 사명을 받은 것처럼, 이러한 표현은 남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싸움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배움이 없으면 예의가 나타나지 못하게 악마가 유혹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배움이 없으면 겸손도 함께 출장 간다는 점이다.
- 국민13: 창조, 개척, 순수자유, 거듭남(부활), 깨달음이 있어야 행복을 확신할 수 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 의식의 지도에서 긍정보다 상위수준에 이해와 통찰이 있다. 세상을 이해하고 통찰 한다면 어떠한 삶이 주어지겠는가? 또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어떠한 인생을 펼칠 수 있을까! 최소한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을 믿는 사람만이 자신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정글게임일 뿐이다.

1.7. 세상을 위한 10가지 비결(바둑의 10가지 비결을 위세십결화 한 것임)
 바둑을 배우게 되면, 흔히 듣는 말은 “바둑은 인생의 축소판이다”라는 말이다. 실제로 바둑을 즐기게 되면 그 변화가 인생역정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위기십결은 바둑을 위한 10가지 비결인 바, 인생의 축소판이라는 바둑에서 나온 비결이라고 한다. 인생에 비유하여 음미하는 것을 어떨까?

<중용기본>(괄호 안의 숫자는 위기십결의 순서)

- (1) 탐승부득(貪勝不得) : 지엽 전투만을 탐하면 진정승리를 못한다.
 = 전국을 놓치지 말고 읽어라. 승리만을 위해 두면 좋은 판단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단하기 전에 전국을 충분히 관찰하여 작은 승리에 빠지지 말라. 따라서 승리에 탐하지 말라. 먼저 패배하지 않고 균형을 맞추어 가다가 기회가 오면 승리를 향한 투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 (7) 신물경속(愼勿輕速) : 신중하라, 경솔하게 서두르지 말라.
 = 신중하게 진실을 파악하라. 경솔하고 서두르는 것은 금물. 서둘러 판단하지 말라.

<전체목표흐름>

- (4) 기자쟁선(棄子爭先) : 버릴 것은 버리고 선수를 잡으라.
 = 부분을 손해 보더라도 전체 흐름을 잡아라. 승부열쇠 주도.
- (5) 사소취대(捨小就大) : 작은 것은 버리고 큰 것을 이루라.
 = 큰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작은 손해를 감수하라. 두 마리 논리

<타협수비>

- (6) 봉위수기(逢危須棄) : 위태로움을 만나면 마땅히 돌을 버려라.
 = 작은 위기를 전체위기로 만들지 말고 활용하라.
- (9) 피강자보(彼強自保) : 상대가 강하면 자신을 보호하라.
- (8) 동수상응(動須相應) : 움직일 때는 마땅히 서로 상응하라.
- (10) 세고취화(勢孤取和) : 기세가 외로우면 화평을 취하라.

<조화공격>

- (2) 입계의완(立界宜緩) : 경계 들어갈 때는 마땅히 느슨하게.
- (3) 공피고아(攻彼顧我) : 공격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라.

1.8. 국민사관에 의한 역사의 재인식(목표설정)

: 개념정리하면, 여기서 국민사관이라 함은 과거의 지배자적 역사관이 아닌 국민중심적 역사관을 말한다. 그 동안 힘이 약하다고 식민 또는 사대주의 사관 조차도 찬미되면서 굴종의 역사인식으로 바라 본 것은 아닐까?

- 국민1: 과거 고구려, 백제, 신라가 지역 할거하여 다투는 것과 현재의 분열할거는 어떻게 비교될 수 있을까? 각각의 지역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영토축소 지향적 후퇴를 하여왔다고 할 수 있지. 이제 한반도의 반토막 지역을 내용적으로 3등분하여 다투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작은 대한민국 내에서 아직도 삼국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면 인정하기 싫겠지. 시각에 따라서는 현대판 삼국시대란 말이지. 말로만 지역통합을 외치며 통합을 위한 실질적 방법을 실천하지 않는다. 잘못하면 북한은 우리영역에서 멀어질 수 있잖아. 계속 소아적으로 싸우면 그렇게 계속되는 분열이 우려가 된다.

- 국민2: 승리만을 탐하면 장기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패배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국내문제를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외세에 힘을 빌어 이기고 나면 후에 이적행위를 할 수가 있다. 내부경쟁이냐? 외부싸움이냐에 따라 해결방법이 다르다. 다르게 말하면 내부문제는 선의의 경쟁, 서로 간 예를 지켜서, 지킬 것을 지켜야 악화되지 않고 선의의 경쟁관계가 유지된다. 내부문제를 외부문제화 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부가 분열되고 외부문제 때문에 내부분열이 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외부문제는 내부단결이 되어야 하고 내부문제는 선의의 타협이 될수 있게 협력하여야 한다. 이 원칙에 위배되면 평가받아야 한다.

- 국민3: 경쟁에도 반드시 규칙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어기고 반칙을 하면 결국은 부분적인 승리를 한 것이지만 세계적인 시각으로 보면 패배가 된다. 바둑에서 비유하면 사석작전에 말린 소탐대실형 싸움에 해당한다. 세계와 경쟁하는 것을 잊지 말고 내부는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하는 당위성이 제기된다. 여기서 반칙을 하는 것을 언론을 통한 국민이 감시해야 한다.

- 국민4: 우리나라 역사 중, 고구려 말기 이후를 줄거리로 정리하여 보자.

- 국민5: 고구려가 세력이 강할 때 대륙으로부터 신라와 백제의 보호막 역할을 하였다. 성장한 신라는 후에 당나라와 연합하여 한민족 영토를 대부분 헌납하고 일부를 차지하게 된다. 그 후 영토의 협소함에 따른 총량이 부족하여 거란침입을 대승으로 위기를 넘기지만 쇠약해져서 그 이후 늘 수세에 몰렸다. 고려말기 요동을 치려다가 분열되어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었다. 조선은 사대주의 사관에 따라 안주하려고 하였으나 신분사회의 고착화로 임진왜란에서 패망의 위기에서 영웅 이순신의 활약으로 역전시켰다. 신분사회의 고착화에 이은 기득권의 타락으로 열강의 틈에서 외줄을 타다가 일본에게 늑약에 의하여 강제합병 되었다. 결국 위기에다 기득권 다툼으로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
- 국민6: 백제와 고구려를 패망시킨 신라는 당나라에 결사항전 끝에 2국통일에 해당하는 영토, 즉, 한민족 영토의 부분영토분할로 전쟁이 일 단락되었다. 엄밀하게 말하면 통일이란 말을 쓸 수 없고 사관차이의 이질성에 따른 이해를 위함이지. 2국통일, 불완전 통일 이란 단어로도 적당하지 않다는 말이지. 부분통일로서 나당연합군의 영토분할 사건이다. 지금까지의 신라통일에 대한 의의가 없다는 것은 아니야! 다만, 불완전통일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하고자 하는 것이지. 신라의 후예들은 너무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해. 어쨌든, 이 상태에서 당나라와 신라는 300년 정도의 평화시기가 있었다. 이 때, 장보고의 활약이 대단했지.
- 국민7: 고려와 조선이 거쳐 한반도를 차지하였으나 상황에 따라 명나라, 청나라의 사대주의 국가로 연명하였다. 사대주의로 국정운동을 한 것은 고려가 원나라에 항복을 한 이후 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고려 삼별초가 대몽고전을 치를 때, 관군이 삼별초 진압의 앞잡이 노릇을 하였으며 조선말 동학군을 공격한 것은 관군으로 마치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 자국민을 진압하였다. 사대주의의 극치라고 할까?
- 국민8: 동학군은 원래 조선왕조를 공격하려 한 것이 아니고 일본군의 만행에 대항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고려의 왕씨정권과 조선의 이씨정권을 지키기 위하여 그 국민을 진압한 셈이다. 그것도 관군이 폭동 세력도 아닌 국민을 사살한 내전보다 더 불행한 역사가 진행되었다.

정부의 기득권 지키기의 막장이라고 해야 할까?

- 국민9: 이렇게 국내문제를 외세를 이용하여 해결하려다가 보면, 영토는 계속하여 줄어들고 작은 영토를 가지고 또 싸우게 된다. 지금 한반도가 이분되었고 북한은 중국에 기울고 있고 남한은 3등분 될 지경에 도달했다. 이 상황에서 서로 규칙을 지키지 않고 반칙을 해서라도 승리만을 위한 정쟁이 된다면 또 영토는 축소되고 또 분열될 것이다. 사대주의가 경쟁하는 방법의 결과라고 하겠다. 사대주의 방식은 상대가 양보하면 반칙으로 승리만을 취하고 상대가 강하거나 양보하지 않으면 분열을 시도하여서라도 작은 토막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 사대주의의 운영방식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것이다. 마치 도마뱀이 살기 위해 꼬리를 잘라내면 점점 힘이 없어지는 것이지. 어디든지, 지나친 기득권이 생기면 이렇게 자멸하게 되어있지.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 국민10: 이런 사대주의 방식은 국민이 분열될 수 밖에 없지. 작은 위기도 더 큰 위기로 만들면서 점점 더 힘이 빠져드는 것과 같지. 마치 도마뱀의 분열처럼.
- 국민11: 일제식민지에 김구를 대표한 독립영웅의 활약에 힘입어 나라를 되찾았으나 진정 세력은 억울하게 죽고 역사정리가 안된 채, 장기독재 상태로 근현대를 맞았다. 국민은 인권이 유린된 채, “전태일평전”에 기록된 것처럼 피 눈물 나는 자국민의 노동착취였다. 이 참담한 대가를 치루면서 오직 잘 살기운동의 열망으로 10위권에 근접한 경제대국의 궤도에 진입하였다. 하지만 분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지. 마치 자본가만의 빼어난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인 양... 정말 그럴까?
- 국민12: 하지만, 급속성장의 후유증과 사회안전망의 열악함, 국민의 권리는 형체가 없는 상태로 자살률, 교통사고 사망, 노동조건 열악성, 산업재해 등 처참하게 열악한 처지에 신음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등은 권력과 대기업을 위시한 정경유착을 넘어 일체화에 고착되었다. 이러한 기득권 중심의 사회질서는 빈익빈부익부,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더욱 고착화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국제세력 다툼의 외부환경과 내부의 기득권 쟁탈전은 조선제국 시대와 흡사하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사관의 최악의 상황이 재현되는 위기에

처해있다.

- 국민13: 오직 자본경제 중심의 사고와 사대주의 교육관에 따른 역사성 부족과 국어교육의 미흡으로 개념이 약하여 시장우상, 언론우상, 종족우상 등 우상이란 우상에는 모두 빠져있다고 생각해. 개념이 없고 우상에 빠져 있어서 결국은 발전적인 대화가 안 된다는 게 핵심문제라고 해야겠지. 공정성이나 대화기술이 이전의 문제라고 보아야 할 걸.
- 국민14: 작금,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위기를 가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마치 타이머신을 타고 100년 전으로 여행을 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엮어갈 것인가?
- 국민15: 갈등이 심할수록 선거가 끝나도 화합할 수 없다. 선거후 승리가 힘만 믿고 오만한 권력을 휘두르면 그 다음부터는 선거후에도 분열되어 정쟁을 하게 된다. 18대 국회, 정부가 그렇다. 힘으로 지나치게 상대를 억압하고 국민의 권리를 탄압하였다. 실로 일제 앞잡이 정권같은 행태를 보였다. 그 다음이 진짜 심각한 문제에 부딪칠 수 있다. 선의의 경쟁은 없어지고 추악한 정쟁만 있을 것이고 살아있는 자만의 승리가자 된다는 논리에 휘말리면 피 비린내나는 치킨싸움과 반칙과 부정적 경쟁만이 계속될 것이다. 이런 악화상태에서는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분열주의에 빠지게 된다. 솔직히 말해 정치라는 단어를 쓸 수 없지. 중학생 수준의 상식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정치라고 하겠어. 개인이 정쟁이란 말을 사용하다가 역공을 맞을까 참은 것이지. 대다수가 정쟁만 있을 뿐이지. 이런 상태가 계속되니까 국민의 전반적인 정치 불신이 생긴 거라고 생각해.
- 국민16: 현대국가의 선거는 4년간의 정권위임일 뿐이다. 정권후보자가 비전을 제안하는 것이다. 그것을 국민은 선택하는 것이고 다음을 위해 국민에게 신뢰를 지키는 의미있는 패배를 할 수도 있어야 진정한 정치가라고 할 것이다. 정당의 목적이 정권창출만이 되어서는 정치가 자격미달이라고 할 것이다. 정치가의 목적은 자신이 이상으로 하는 정치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사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 정권창출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 정치이상은 없고 탐욕만이 있다면 분명히 정치가의 자격미달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정당의 목적은 오직 정권탈환이라는 말처럼 선언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현대 정당의 목적은 그 정

당의 정치사상과 방법으로 국가경영을 하겠다는 희망사항이다.

- 국민17: 현대이전에는 정권싸움에서 패배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권도전에 대한 위협이 너무 커서 정당의 목적은 정권탈환이라는 말은 그 위험성을 감수하기 때문에 통용될 수 있었으나 현대는 다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당의 정치이상 실현이 정당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너무 고상한 것일까! 정당목적의 재정립이 도달하지 못하면 현대국가로서 안정성에 적합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당의 목적이 정권탈환이다 보니까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파행을 일삼지 않을까?
- 국민18: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면 다시 분열의 고통이 따르겠지. 경고성 사례로 설명하면 대한제국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의 지역분할 주의로서의 선거는 지양하여야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지금의 분열주의 속도로 보면 다음 선거이전에 분열될 수도 있다. 이것을 막기 위하여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온전한 선거 방법은 화합형 선거방법이다. 더 이상 지역할거 주의로 당선이 되게 해서는 위험한 나라가 될 것이다.
- 국민19: 소아적 승리자인 지역주의가 아닌 대의적 승리자인 공정주의가 정권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해결방법으로 시한적 보완책으로 지역주의가 심한 곳은 지역주의 집권당에서는 그 지역후보를 내지 않는 방법을 써서라도 지역할거 주의를 멈추어야 한다. 이 방법으로 국민의 선택에 달려있다. 지역주의로 표몰이를 하는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표를 주지 않는 방법이 있다.
- 국민20: 국토균형 발전의 원칙에 따라 선거구를 인구비례와 지역(행정구역)비례를 보완하는 방법도 있다. 실제, 도시에 인구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사안이 많은 것은 아니다. 도시화문제점으로 균형발전에 저해되고 도시민 특성상 대다수 월급쟁이로서 인구비례에 의한 인구비례만큼 정치사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구가 많다고 해서 선거구를 무한정 늘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스포츠에서 축구나 농구에서 대인방어와 지역방어를 적절히 구사하여야 경쟁기력이 높아질 것이다. 현재의 인구비례 선거법은 어느 정도 도시화가 진행되자 절대적으로 도시에 예산이 투자됨에 따라 사람이 몰리고 그

다음은 더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처럼. 이곳 대한민국! 특히 서울한복판!

1.8.1. 역사적 사건을 통한 정부역할에 대한 고찰

: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 반전드라마를 생각해보자.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오면 또 그렇게 기득권의 입장에서 결정해야 할까?

- 국민1: 국가는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여야 하듯이. 정부의 역할과 방향에 대하여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국가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워 부정한 정부에 대한 무한 충성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시대적으로 변화가 필요해.
- 국민2: 조선시대 선조정부에 대한 이순신 장군 투옥, 백의종군의 마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 국민3: 충무공은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하려 했으나 반역으로 모함하여 옥살이를 한 사실. 그리고 전장이 어려워지자 다시 전쟁터로 나가라고 한 거. 이런 국민을 좀먹는 정부를 인정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때, 개인적으로 너무 억울하여 “내가 왜 나가느냐고 항변할 수 있는 거잖아.” 그것을 뛰어넘는 의인이었지만,
- 국민4: 개인적으로 어려서부터 그런 상황에서도 묵묵히 다시 전쟁터로 나가는 충무공이 존경스럽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보는 후손인 우리가 억울하고 그 시대가 한탄스러운 거잖아.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냐고 늘 의문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개선된 것이 없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한 사람 중에는 일제가 물러나고 일제 앞잡이들, 기득권에 의해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했다는 사례는 너무나 뼈아픈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김구, 조봉암, 장준하 등 …. 이들이 죽은 지 얼마 지나는데, 아직도 역사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거야. 무엇 때문에 이 작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역사바로세우기 등 과거사정리를 제대로 하여 더 이상 수구세력과 진보세력간의

소모적 다툼은 없어야 한다.

- 국민5: 그리고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만약 그가 살아있는 전쟁영웅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상황으로선, 어찌면 또 다시 시기의 무리가 반역죄로 몰았을지도 모르는 시대적 상황이었다. 신분사회에 더하여 권력의 기득권이 팽배한 시기! 망조가 들었었지.
- 국민6: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불길한 예감이 든다는 거지. 정적간의 반칙에 의한 누명으로 정계에서 퇴출시키려는 사건! 게다가 타살의 의혹까지! 이런 것은 중세적 발상 아닌가!
- 국민7: 역시 성웅자신도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는 전쟁영웅이 수많은 살생의 책임을 지고 최후의 전장에서 스스로 장렬하게 전사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는 의견도 있다는 것이지. 이 나라는 아직도 사리사욕에 잡혀 책임지지 않고 오로지 이합집산을 하는 정치몰이배가 다수가 있는 거잖아. 이 점과 기득권파행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야만 더 이상 불행을 막을 수 있고 상식적인 나라가 되지 않을까?
- 국민8: 성경에도 의인은 머리를 편안하게 둘 장소도 없다고 하였지요. 예수탄생 2천년이 지난 지금, 조금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 의인이 제대로 사회에 기여하고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사람의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

1.8.2. 진정한 행복의 추구

- 국민9: 해탈, 자비, 인의예지, 신언서판, 신의, 서로 사랑하라. 두려워 말라. 네 자신을 알라(깨달음). 현대인은 지구의 자원한계를 감안하여 소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물, 수소에너지 같은 대안을 찾는다. 생명, 환경, 연대협력, 창조, 인성, 인심, 정의를 정립하고 공고히 해야 생명을 지키는 기본이 된다.
- 국민10: 현대 사회의 문제는 학교에서는 지식위주의 교육이다. 인간의

중요한 행복, 인의예지를 모르고 신언서판을 못하게 되며 예정된 대로 실수 연발한다. 노동, 기술을 착취하고 사익을 추구한다. 행복을 가르치기 위하여 사랑의 학습과 실천, 건강, 가족의 삶 공유, 자유, 창의력 배양, 지혜를 배양하여 깨달음을 통한 자아실현을 위한 환경조성에 힘쓰고 공익(과학, 학문, 기여 등), 최소한의 경제력, 기부나 봉사를 통하여 남을 즐겁게 하거나 일시적 행복감을 주며 행복감을 느낀다.

- 국민11: 사랑의 속성은 관심, 이해, 배려, 책임, 존경, 느낌이라고 한다. 이상한 것은 사랑은 인류사회의 중심이지만, 대부분 공교육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관심도 없는 사랑을 하면 쾌락이나 사욕의 대상(사기)으로 이용된다. 상대에 대한 배려 없는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돈과 쾌락의 대상으로 이성을 대한다.
- 국민12: 이런 자가 나오지 않도록 인성교육을 제대로 해야 좋은 나라이다. 교육은 사랑의 실천이 교육의 목표이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 지식은 대부분 스스로 배워도 되지만 사랑은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 국민13: 자유, 그중의 가장 기본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생각! 표현은 자유이자 자랑이다. 표현의 본질은 자랑이다. 너도 자랑하고 싶지만, 타인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속성이다. 너는 자신이 표현할 때는 당연한 것이고(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자랑으로 보인다. 즉, 자랑스럽지 못한 불륜이다. 결국은 남이 표현해도 질투나 시기를 해서 공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타인에게 유익했느냐에 따라 그 자랑의 가치는 결정된다.
- 국민14: 가치의 문제이지, 원천적으로 타인의 표현을 막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다만, 너 또한 표현의 자유가 있을 뿐이다. 타인의 표현 유무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오류이다. 사람은 자랑하기 위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국민15: 지성이면 감천, 궁하면 통한다. 약육강식, 자본주의, 이것을

능가하는 감동이 진짜 행복을 찾지 않을까? 약육강식의 시대, 자본주의 시대에서 공권력의 한계, 정의를 세우기 위한 길, 국민의 목소리로 여론형성하여 비정한 자본주의를 능가해야 하겠지. 그래야만 만물의 영장이란 표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 국민16: 국민건강의 기본은 잘 먹고 적당히 활동하는 것이 아닐까? 건강의 비결을 물으니깐 밥먹고 10분간 걷기, 밥 먹고 10분간 걷기, 즐겁고 기쁨으로 산다(종교적으로 할렐루야!, 황수관 박사제안).
- 국민17: 시력은 체력이고 국력이 아닐까? 정신력, 지식(교육), 이상(꿈)이 흥익인간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아닐까?
- 국민18: 성공은 실력(지식) + 관계(net work)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계를 맺고 실력이 이르면 진입관문이 쉽고 집중도전의 동기유발이 된다고 생각해. 물론, 지인을 이용한 의도적 비리로 될 수 있는 점을 경계해야 하겠지만.
- 국민19: 인간성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남자는 목표지향형, 여자 관계지향형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 정도면, 여와 남은 서로 상부상조의 치명적관계가 아닐까? 남녀는 상대를 거부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필요성이 확인된 셈이지. 거부할 수 없는 치명적 보완관계! 그러니까 서로 무시하면 야~ 안 돼!

1.9.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

: 근현대 이후 국가의 법은 모두 정의와 민주주의를 잘 하기 위하여 개정되어 왔다. 그런데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어쩌면 기득권과 그를 비호하는 사회 안전장치가 아닐까? 국가안정망이라는 명분으로 지나치게 국민의 권리가 약화된 현상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총화는 불가능하게 된다. 이것은 바둑에서 말하는 국가적 자충수(自充手)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9.1. 정의란 무엇인가 바로보기

정의는 누구든지 안다고 확신한다. 정의가 어렵다면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인류가 지속적으로 확고하게 추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정의는 판단의 가장 기초로서 보통 초등하고 고학년만 되어도 혼동할 수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 도덕시험에서 가장 쉬운 것이 정의구분 문제이다. 따라서 정의가 무너지면 인간의 원칙과 규율이 모두 무너지는 것이다. 정의가 바로 서지 않았는데, 공정한 사회가 될 수가 없고, 각종 제도는 무용지물로 변하는 것이다. 정의가 무너지면 사회원칙이 말 그대로 “그때, 그때 달라요”가 된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정의와 도덕, 공정을 구분하지 않고 전개하였는데 사실은 정의는 보다 쉬운 단어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의 옥에 티라고 해야 할까? 그 훌륭한 대작에 대한 흠집 내기를 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다. 정의를 수준과 도덕성, 역사성을 포함하여 정의를 설명하다 보니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게 되었다. 우리가 그 동안 알고 있는 **정의는 사건이 일어난 순간의 옳고 그름의 가치판단이다. 정의는 그 시점의 옳고 그름의 판단이다.** 전혀 어려울 것이 없는 것이 정의이다. 만약 정의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것이라면 칸트가 외친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바로 세워야 한다”라는 인류의 지상명령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이다. 한 순간에 한명 죽을 것과 1년 후에 100명 죽은 것을 한꺼번에 포함하여 정의를 설명하면 미궁 속에 빠진 것처럼 어렵게 된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본문처럼 조난당한 배에서 10명이 살기 위하여 1명을 죽였다면, 그 순간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10명이 모두 죽으면 생명의 생로병사의 법칙이나 사고로 죽은 것이다. 한 명이 죽는 것보다 10명이 죽었다고, 더 정의롭지 못하게 죽은 것이 아니다. 책의 가설대로 9

명이 모두 죽을 때를 기다려 정의로 설명하는 것은 끝이 없게 된다. 정의란 가장 쉬운 문제로 “어느 시점의 행위에 대한 사람의 옳고 그름의 판단이다.” 옳고 그름은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정의”이다. 정의보다 조금 덜 쉬운 것이 도덕이고 도덕보다 덜 쉬운 것이 규칙이나 법이다. 정의는 한 시점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용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예수의 가족사에서 한 때 선조의 불륜이 있는 것을 예수가 인류에게 공헌한 것을 보고나서 먼 훗날, 정의와 불의를 판단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정의는 사람의 본능이다. 본능은 감각을 잃어버리면 나타나지 않는다. 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온 이후, 인간은 정의에 대한 감각이 떨어졌지 않았을까? 하고 사유한다. 감각을 잃어버렸다면 본능을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가장 소중한 본능이자 능력이기 때문이다. 정의는 아마도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최고의 능력이 아닐까? 마치 인간의 양심처럼... 인간은 감성과 이성을 가졌듯이,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현대와 와서 특히, 이성적인 인간을 강조하여왔다. 그러다보니 본능적 기질이 죽어서 발현되지 않는 감각으로 퇴행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긴박한 자연현장이나, 위급한 상황에서 본능에 맡기야 한다. 그것이 더 유익할 것이다. 그러니 이성과감성을 가다듬어 늘 깨어있게 하여야 한다. 그것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살아있는 영혼의 소유자! 그것이 사람답게 살기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1.9.2. 정의와 민주주의 : 정의는 국가이전에 인간이 근원적으로 추구하는 옳고 그름이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목적인 국민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 국민의 민심이 퍼져 있으면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정의와 민주주의는 같은 방향이지만, 출발점이 다르고 종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정의와 민주주의는 진리를 쫓아가지만, 속도가 다르고 과정이 다르다. 정의는 이미 정해졌지만, 민주주의는 과정을 통하여 사람에 의하여 선택될 뿐이다. “민주주의는 정의를 찾아가기 위한 과정이자 여행이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임을 동의한 순간부터 인간은 민주주의를 통하여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은 것이 아닐까?

1.9.3. 정의를 세우지 않고 법치국가, 선진국, 국민행복을 논하지 말라

우리나라가 국가목적에 맞게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 다음 국민 개개인의 생리적 만족의 복지행복을 넘어 자아실현의 꿈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현대국가가 추구해야 할 이상이 아닐까? 물론, 자아실현이란 특정조건이 되어야 개인의 자아실현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생리적 만족조건을 이루고 나면 개인의 이상실현이 꿈일 것이다. 따라서 현대국가는 경제발전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정신적 행복을 위한 투자가 진정한 국민을 위한 국가라고 할 것이다.

국민의 행복지수를 변화를 한 해 목표로 삼고, 인권, 사랑실천, 경제지표, 교육만족도, 민생지수, 정치지수, 언론지수 등의 목표를 세우고 매진하여야 비로소 현대국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국기에 대한 맹세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 바뀌긴 했지만,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국기에 대한 맹세가 나의 희망이기도 하였다. 쇠뇌효과도 있겠지만, 나의 하나의 희망인 국기에 대한 맹세 수준이 사회에 실현되는 것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충성을 다 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다. 이 정신과 방향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실천 및 실행하라. 방향과 목표가 틀린 국정운영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진정한 행복조건은 자율, 안전이 확보되고 자신이 행한 일에 보람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공익적으로 국민의 행복조건을 만들기 위하여 전반적인 국민에 대한 자아실현 시스템 조성, 여가선용 조성, 건강 및 안전체제 조성을 목표로 해마다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사람은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고 자유를 찾고 타인에게 자유케 하였을 때 근원적이고 차원 높은 행복을 느낀다.

국기에 대한 맹세의 눈높이로 대한민국의 자유언론이 활성화 되어 입법, 사법, 행정의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행하는 억압의 현실과 MB정부의 권력의 사익추구 수준의 부패비리를 모든 국민이 알게 된다면? 과연 어떻

게 될까? 단 하루라도 정부를 유지할 명분이 있을까! 인류의 스승인 칸트가 외친 정의를 모른다면 그가 누구든지 지도자의 위치에 절대로 서면 안 된다. 정의를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은 인류를 부정하는 것이다. 정의를 세우지 않고 법치국가, 선진국, 국민행복을 논하지 말라. 정의는 법 이전의 문제이고 우선적으로 지키고 나서 법을 논해야 한다. 정의는 인류의 기본덕목이고 법치는 국가의 강화된 규칙일 뿐이다.

건강, 환경조건(경제, 이상), 종교를 통한 안정상태의 행복조건을 만들고 나아가 개인의 자아실현을 하기 위하여 매진한다. 건강을 위하여 인류의 발명품인 술, 담배, 게임으로부터 벗어나서 즐겁고 보람찬 행복한 생활을 유지한다. 이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목표가 이 수준 안 되면 21세기 선진국 아니잖아! 그냥 중세국가이지.

1.9.4. 민주주의 그리고 노동자

- 국민1: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국민이 중심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노동자가 곧, 국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우리는 지금까지 노동자를 근로자로 명칭하면서 상황에 따라 국민을 노동자와 근로자로 구별하기도 하고 분열조장 하여왔다. 굳이 설명하자면, 노동자와 근로자는 같은 뜻이 건만, 정부와 자본권력은 다르게 사용하며 국민을 압제하여왔다. 노동자를 국민으로 대접하지 않는 치졸한 방법으로 쓰인 것이 “바로 근로자”이다. 국민을 위한 결정을 하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을 위하여 필요하고 존재한다. 즉, 정부중심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과정은 정보의 공유이다. 그리고 다양한 시각에서 본 의견을 교환하여 공유하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토론과 타협을 통하여 합의한다. 만약 합의를 하지 못하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표결한다. 우리나라 국회는 날치기 처리가 난무하다. 이것은 토론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 표결처리로 결정하는 것으로 과정이 생략된 것이다. 민주주의는 과정이 생략되면 한낱 세력다툼에 불과하다. 마치 조선시대 당리당락에 따른 당파싸움에 불과하다. 아니! 총칼의 무력싸움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 국민2: 만약 날치기 표결처리를 한다면 국민 앞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선서를 하고 해야 할 것이다. 그것도 10년에 1건 정도 있을까 말까해야 한다. 날치기 통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이다. 절대 일상화 되어서는 아니 될 사건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날치기 통과를 매년하고 있다. 국민이 보는 앞에서 전 세계로 중계하면서 말이다. 국회의 날치기는 국가모독에 국민모독이다. 정치에 대한 근본적인 자질부족을 스스로 낙인찍은 것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
- 국민3: 민주주의가 탄생되기 전에 왕권정치에 의하여 민본주의가 시도되었다. 민주주의가 이상은 좋으나 실현이 어려운 것은 자본시대에 자본력이 정치력을 압도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민주주의가 어려운 것은 정치경제 권력을 잡은 세력의 기득권 때문이다. 왕권시대는 기득권 세력이 적은 반면에 기득권 독점력이 강했을 것이고, 현대는 기득권 세력이 광범위 하되 기득권 독점력은 약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언론이 활성화 되지 못한다면 기득권이 세력이 강화될 것이다. 좋은 직업일수록 세습화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언론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장인 정신에 의한 세대물림과는 다른 불법적 대물림을 말하는 것이다. 공직의 대물림이라니! 조금만 확대해석 하면 공직의 세습이다. 나아가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을 이용한 부정부패! 그리고 자본, 언론, 생명(의료), 종교와 연결된 보이지 않는 권력형성! 그리고 모두가 합쳐진 기득권! 이렇게 되면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기득권 중심의 횡포적 제도운영이 된다. 헤어나 올수 없는 부패의 악순환이다. 북한정부의 김일성 부자의 세습과 무엇이 다르랴! 장인의 대물림은 합법이지만, 공직의 대물림은 자칫 신분세습이 된다.
- 국민4: 자본시대에 자본권력에 의하여 민주주의의 실현은 이상에 불과하다. 자본력이 극대화 된 현대에 가난한 국민은 완전히 소외되고 있다. 자본에 의하여 정치경제의 발전의 명분을 쌓고, 다수의견처럼 만들어 내고, 온갖 행정력을 동원한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전혀 상반되는 결정이다. 우리나라에는 용산철거민 사태, 쌍용차 노조탄압, 한진중공업 노조탄압, 재능교육, 유성기업 노조탄압 등의 사건은 반국민 정

책결정이다.

- 국민5: 쌍용차 노조탄압 사건을 대표하는 노동자 탄압, 즉, 국민학대 행위는 과거 신분사회의 노예학대 사건과 무엇이 다르랴! 또 일제 식민시대에 우리 국민의 처절한 학대받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주체와 객체, 그리고 시대상황만 다르고 인권학대 행위의 정도로 보면 다를 것이 없다. 앞잡이 정부가 국민을 학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부가 아무리 국가체제론, 사회 안정론을 떠들어도 이것은 분명 국민학대 행위의 연속일 뿐이다. “국민보호”란 대의명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자그마치 4~5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유의 인권이 유린되어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못하는 민주주의는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이다. 다수가 마치 점령군처럼 군림해서는 이미 민주주의는 파괴된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정부는 민주주의 시대의 고유한 정부의 임무를 망각한 것이다. 무엇 때문에 국가가 존재하는가? “자본권력에 의한 국가 임무 망각사건”이다.
- 국민6: 식민시대와 독재시대를 거쳐 인권탄압이 상습화 되면서 상식이 파괴되는 현상이 되고 있다. 교사 등 어느 특정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화 하는 것을 학대탄압 하는 것은 가히 일제 식민시대에 견줄 만하다. 공무원 노조, 교사탄압은 정치사회 기득권이 만들어 낸 것으로 이것은 정상적인 발전단계를 가로막는 반국가적, 반역사적 행태이다. 어쩌면 우리가 근현대의 격동기에 일제 식민역사의 과거사 정리를 하지 못한 후유증이라고 할 것이다.
- 국민7: 민주주의! 즉, 국민을 국가의 중심사상으로 보는 것으로 국민은 노동자이자 곧, 국민이라는 인식이 절대적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노동자 즉, 국민을 착취하고 학대하는 국가는 이미 국가의 의미와 역할을 포기한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진행 상태는 정치적으로 보면, 정치 민주화는 제도도입의 단계인 형식적 민주상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1987년 정치 선거제도의 꺾데기만 도입된 상태로 세월만 보내고 있다. 언론통제에 의한 우민화 정책이 만연되고 학생 및 사회교육이 시도되지 않는 것이 미래마저도 어둡게 하고 있다.

- 국민8: 정치민주화가 형식적이면 사회단체 민주화는 당연히 똑같고 기관 및 직장의 민주화는 어느 단계일까? 어느 단체, 어느 회사의 속을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제왕적 권력화 상태이다. 우리 사회의 껍데기만 민주사회이고 내용을 보면 중세시대를 방불케 한다. 일부세력은 말한다. 그래도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지 않았느냐구? 마치 잘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고 합리화 시키려한다. 하지만, 그것은 처절한 인권과 노동착취의 대가로 만들어낸 피눈물 탐일 뿐이다. 신분사회에서 신격화한 1%를 위한 99%의 기계적 노예화의 희생일 뿐이다. 여기서 우리는 “국민을 위한 국가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 완전한 모순이 자행되었음을 체감할 수밖에 없다.
- 국민9: 이러한 사회분위기 때문에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이 목표를 잃고 있다. 따라서 사회파괴 현상으로 가치관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 목표를 잃은 가정은 비사회화, 즉, 사회 부적응자를 만들고 자본지상주의 논리에 따라 온갖 비행사건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을 대표로 인권탄압, 노동탄압 하는 기업은 이윤을 최고로 내고 있다. 국가는 자본악덕을 방관하는 반국민적 정책의 주체로 전락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희망을 잃은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가장 상식적인 인간가치의 기본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 자살률 세계 1위, 교통사고 최고수준 등의 사건은 악마적 자본권력에 인권주의를 포기한 사회의 단면일 뿐이다. 그것도 청년 자살률이 높은 것은 이 사회의 존재가치를 의심할 잔혹한 비극이다.
- 국민10: 사회의 최소단위가 가정이다. 인류는 오랜 세월을 가정을 중심으로 사회활동을 하였다. 하지만, 중세이후 자본사회가 되면서 가정중심이 아닌 직장중심으로 가정수준이 결정되었다. 역으로 가정이 최소단위라고 한다면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마음 놓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이 원하는 가정을 지키고 키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직장인의 자유선택에서 현대사회의 자본영향력 때문에 직장의 인권화가 지켜지지 않은 한, 가정은 포로일 뿐이다. 직장인의 판단의 기로에 섰을 때, 주위사람과 기득권은 이 약점 아닌 약점을 노린다. “가정을 위해서 네가 참으라고!” 가정의 안녕을 위하여 직장의 부정부패를 포함한 사회악의 부조리를 방관하고 있는 성인이 얼마나 될까?

아마 절대다수라고 해도 과언인 아니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을 위한 사회발전을 위해서 직장의 민주화, 직장의 인권화를 지키는 것이 최선이다. 사회변화의 중심은 가정이 아닌 직장이 중심추가 되었다. 현재 직장은 자본주의의 폐해가 가장 극심한 돈의 전장이다. 인정도 눈물도 없이 오직 돈으로 결정되는 냉혹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 돈이 가치기준이 된지 오래되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직장을 버릴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 국민11: 요즘 국민의 권리가 유린되는 사건의 상당수가 민주주의가 파괴된 사건이 많다. 자본권력에 의하여 소수의 국민 사건은 언론에서도 취급하지 않는다. 옛날 농민이 대부분인 시대와 비교하여 말해보면, 현대 우리나라의 직업종류가 2만개 이상이다. 교사, 공무원 등 몇몇 직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소수국민이 되는 상황이다. 어느 직업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을 동원하여 힘으로 막는다. 언론은 기득권의 편에서 서거나 아예 기사로 다루지 않는다. 국민에게 일어날 사건을 원천봉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부정한 자본권력이 독버섯처럼 퍼지는 이유이다. 이 시점에서 자본권력, 기득권에 휘둘리지 않는 언론이 필요하다 고 제안한다. 그러면 깨어있는 건전한 시민, 상식적인 국민의식이 살아나겠지. 이러한 소수의 직업과 국가의 방관은 그 직업군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한 여론조차도 언제든지 무시될 수 있다. 단 한사람의 자본권력에 의하여... 현대사회는 그 동안 국가는 최소한의 간섭이 요구되었다. 하지만, 21세기인 작금, 국가의 역할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의 존재가 무의미하게 되었다. 현대의 국민을 노예로 전락시킨 악덕 자본권력의 폐해를 감시하고 조정할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고 단언한다. 민주주의에서 정부와 언론의 역할에 말을 소개한다. “나는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 - 제퍼슨(Jefferson, T.)

- 국민12: 21세기의 민주주의는 직업수를 감안하고, 현장의 소리와 다수결의 원칙은 공정한 정보공유 후, 결정단계의 의사결정 방법일 뿐이다. 형식적인 다수결의 원칙은 제고되어야 한다. 다수결의 원칙은 불가피할 경우에만 한정하여 추진하고 그 전에 공정한 조건과 다수의 횡포를 제한하여야 한다. 즉,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주의를 하기 위한 특

정 상황의 선택방법이지, 민주주의의 목적은 아니다. 목적과 방법을 혼동하면 다수의 횡포가 만연할 것이고 근본적인 민주주의는 훼손될 것이다. 날치기 통과로 다수의 횡포를 마치 국민이 동의한 것처럼 말하는 현 정부처럼….

- 국민13: 민주주의! 옛날에 백성의 소리는 거부할 수 없는 소리였다고 할 수 있지. 농민이 일어나면 당연히 백성 전체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았지.
- 국민14: 민주주의 원리가 있지만, 현대에 와서 민주주의 원칙이 더 헛갈린다.
- 국민15: 다수결의 원칙, 소수자 의견존중의 원칙, 공평한 원칙, 투명의 원칙의 적용이 이상해.
- 국민16: 다수결의 원칙은 결정방식이 그런 것이지. 토론 중에는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 국민17: 가끔은 토론의 원칙과 표결방식의 원칙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해.
- 국민18: 나는 우리나라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과정의 잘못이라고 봐. 과정의 파행이지. 과정이 생략되거나 파행되면 민주주의는 죽은 거야.
- 국민19: 그런데 그들은 그들당 머리수가 많으니 표결만 통과시키면 된다는 착각이지. 그건 이미 반칙 중에 중대반칙이야.
- 국민20: 가끔은, 소수자의 의견대로 가는 경우도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병폐라고 해야겠지.
- 국민21: 현대는 직업의 분화로 처해진 상황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르다. 어떤 직업은 소수자가 전부이다. 소수자이지만, 그 구성원 전부가 만장일치 의견을 낼 수도 있다. 용산 이주민, 쌍유자동차, 유성기업 등 그들에겐 생사가 달린 것이다. 그들을 소수자로 몰아세우면 안 되는 것이지. 민주주의 원칙이 깨지는 거야. 그들도 엄연한 국민이다. 민주주의는 그 소수국민의 입장에서 가치판단을 해야 한다. 용산이주민을 국민으로 보느냐? 개발자인 자본권력을 국민으로 보느냐? 이다. 백번 양보해서, 만약, 국가의 손익을 따진 것이라면, 이주민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하고 개발을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면 정부는 민주주의

가 아니라 자본권력의 이익을 추구한 것 밖에 되지 않는다.

- 국민22: 말대로 현대는 직업의 분화로 의식주, 석유 등 필수 소비품 종사자가 아니면 10만 명 이상 모이는 게 불가능하다고 봐야지. 청소 노동자 1만 명이 모이면 그것은 대다수 의견의 표출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해. 분명 그들은 직업군에서는 소수의견이 아니라고. 확실한 중론이지. 민주주의 결의방식과 대의민주주의, 토론의 의미를 혼동해서는 안 되는데, 가끔 다수결의 원칙이 시도 때도 없이 나와서 헛갈리는 것이 아닐까? 토론에서는 같은 의견이라 해서 다수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 의견 중에 한 가지 의견을 선택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즉, 토론과 표결은 다르다. 토론은 토론일 뿐, 표결의 결과가 아니다. 100명이 토론에 참가하였다고 하자. 그 중에 9명이 투자하자는 의견을 냈고 1명이 투자하지 말자는 의견을 냈다고 하더라도 9명이 투자하자는 의견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토론에서의 의견수와 표결수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표결은 토론을 거친 후 100명이 가장 좋은 의견을 선택하는 것이고 토론은 선택 전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것일 뿐이다. 솔직하게 구분하면 자신이 1번 의견을 발표하였다가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보니 2번 안이 좋다고 생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결 전에는 반드시 토론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을 생략했다는 것은 거수기라는 선언이고, 정치적 조율이 필요 없다는 것으로 발전적인 체제를 거부하는 수작일 뿐이다.
- 국민23: 그렇듯이 직업의 분화로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해야 하고. 분명한 것은 소수의견이라고 해도 대화의 자리나 충분한 검토는 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지. 대화가 생략된 것은 이미 반칙이란 증거지. 폭도가 하는 거 아닌감.
- 국민24: 그건 그렇고 대중이 모이면?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말은 뭐야. 사람이 정치적 동물이거늘? 사람취급을 안한다는 것 아닐까?
- 국민25: 그 모순화법 논리는 21세기 희대의 사기극이야. 소수자가 모이면? 극히 일부의 의견일 뿐이라고 무시하고. 다수가 모이면 정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무책임을 기본으로 깔고 그때, 그때 둘러대기 답변 말이야. 유체이탈 화법 말이지요!

1.10. 대화, 타협 그리고 소통

- 국민26: 민주주의에서 대화와 타협은 필수적이다. 소통의 시대의 대화!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소통에 이른다. 하지만, 우리 국회는 어떠한가? 대화를 하려면 ①상대 인정하기를 해야 하고 ②만나기 ③대화하기 ④상대 알기, ⑤수차례 대화와 타협에 의하여 신뢰 쌓기 ⑥상대 이해하기 ⑦비로소 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 국민27: 그런데 우리는 만나지도 않으면서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아니 상대를 인정하지 않기에 만나지 않은 것이겠지. 이것이 현실이다.
- 국민29: 자고로 소통이라 함은 서로를 거의 완전히 이해하는 아주 친한 친구사이를 말하는 것이지요. 소통을 친한 친구로 비유해야 하는데, 대부분 일방적 표현을 하고 소통했다고 말하는 거 같아. 솔직히 현재 소통이란 단어의 뜻을 모르고 사용하는 수준이다.
- 국민30: 국회가 소통했다고 함은 1년에 10번은 만나서 대화하고 매년 타협하여 4년이 되어야 서로를 이해한 것이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해야 비로소 “여야가 소통했다” 이렇게 이야기 말할 수 있는 거지. 우리나라는 18대 국회에서 매년 날치기 통과를 했는데 이것은 중세시대 적대적 관계일 때나 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해 놓고 심각성을 모르는 국회철면피 들이야.
- 국민31: 그리고 대화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대화하기 전에 중요한 것이 빠졌네요. 바로바로 “눈높이” 랍니다. 제일 중요하지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악어! 그 이름도 무서운 악어와 친해하려면, 아니!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눈높이를 맞추어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사람과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눈높이 조절이 필요 하겠지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어른이가 서서 얼굴을 마주 보고 있습니다. 눈높이를 맞추는 때, 누가 높이를 맞추어야 하는지? 어린아이가! 이렇게 이야기 하는 자가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가끔씩 기관장과 하위직원이 대화를 시도한다. 부서장이 상의 기관장인 고위직은 대다수가 아랫사람에게 눈높이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무식이 하늘을 찌르는 짓이다. 어린아이가 어른에게 눈높이를 맞추라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능하기는 한가? 한다면 만화에서처럼 어린아이가 아톰이 되어 대가리에 박치기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선 눈높이 조절을 하여야겠지요. 눈높이 조절이 안 되면? 대화는 하나마나!

1.11. 지도자를 위한 참고자료 : < 명상록 >

- 마르쿠스: 로마의 황제(161~180 재위)

마르쿠스가 골치 아픈 국정 수행기간 동안 추구한 사상과 비록 역사적으로 매우 값진 것은 아니지만 그의 일상 정치사상을 좀더 자세히 알려면 <명상록>을 읽으면 된다. 그가 이 책을 쓰면서 어느 정도로 타인을 염두에 두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명상록>은 전쟁을 수행하고 통치하는 동안 머리 속에 떠오른 생각들을 단편적으로 기록한 책으로, 논증적인 글과 경구가 번갈아 나타난다. 어떤 면에서 이 글은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쓴 것으로 보인다. <명상록>은 로마인의 가장 내밀한 사상을 다 모아놓은 것이지만 놀랍게도 그리스어로 씌어졌는데, 이는 당시에 여러 문화들이 통합되어 있었음을 말해준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마르쿠스의 사상을 찬탄해왔지만,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지나친 까다로움과 히스테리가 뒤섞인 마르쿠스 사상의 병리학적인 측면이 더 눈에 띈다. 마르쿠스는 항상 이룰 수 없는 행동목표를 추구하고 있었으며, 사색 속에서 그 자신을 포함한 인간 일반과 물질 세계가 덧없고 야만스럽고 보잘것없음을 깨닫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세상을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희망도, 심지어 영원한 명성에 대한 희망도 없이 의무와 직책에 얽매어 있었다. 평생 동안 병고에 시달렸으며 만성 위경련으로 고통받으면서 매일 많은 약을 복용했던 것 같다. <명상록>의 책갈피 속에서 풍기는 종말론적 분위기는 약물중독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더 확실하고 중요한 점은 마르쿠스의 불안이 다소 과장된 형태이긴 해도 그 시대의 풍조를 반영한다는 사실이다.

철인왕(哲人王)의 사상이 담겨 있는 <명상록>은 오랜 세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 가운데 하나로 여겨져왔다. 그 사상은 마르쿠스 자신의 것이긴 하지만 독창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스토아주의의 도덕철학이고,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에 따르면 우주는 지성이 지배하는 하나의 통일체이며, 인간의 영혼은 신이 가진 지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혼돈과 변화의 한가운데 홀로 내던져진다 하더라도 더럽혀지지 않고 순수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정확한 이해의 부족 탓이겠

지만 마르쿠스 사상의 한두 측면은 스토아 철학을 벗어나 플라톤주의에 가까웠다. 플라톤주의는 당시 에피쿠로스주의를 제외한 모든 이단 철학을 다 끌어안아 신플라톤주의로 바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종류의 영혼불멸의 위안을 받아들일 정도로 스토아주의를 벗어나지는 않았다.

마르쿠스가 도나우 강을 가로지르는 국경지역을 평정하고 있는 바로 그때 이집트·스페인·영국 등은 반란과 침공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전에 베루스 아래에서 일했던 아비디우스 카시우스 장군은 175년에 이르러 로마 제국의 동방지역과 이집트까지 사실상 통치하게 되었다. 그해 아비디우스 카시우스 장군은 마르쿠스 황제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문을 우연히 듣고 스스로 황제가 되었음을 선포했다. 마르쿠스는 북부 지역의 미정복 부족들과 평화조약을 맺고 아비디우스의 반란군을 진압할 준비를 시작했다. 그러나 반란 장군 아비디우스 카시우스는 부하에 의해 살해되고 말았다. 마르쿠스는 그 기회에 동방지역을 평정하고 시찰할 목적으로 로마를 떠났다. 그는 안티오크·알렉산드리아·아테네를 방문했으며, 아테네에서는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그랬던 것처럼 엘레우시스 제전을 참관했다. 그러나 이 비의적(秘儀的) 제전은 그의 철학관점에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않은 것 같다. 도나우 강 지역 원정에도 동반했던 황비 파우스티나는 이 여행 도중에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도 전 로마 시민은 극진한 경의를 표했으며, 마르쿠스도 <명상록>에서 사랑과 존경의 글을 그녀에게 바치고 있다. 어떤 고대 사료는 그녀가 정직하지 못하고 충성심이 없었다(즉 아비디우스 카시우스와 함께 모반을 꾀했다고)고 쓰고 있지만, 이러한 비난은 아무 설득력이 없다.

177년 마르쿠스는 16세의 아들 콤모두스를 공동 황제로 선포했다. 그들은 협력하여 도나우 강 전쟁을 다시 시작했다. 마르쿠스는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하여 제국의 북쪽 국경선을 확장·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180년 마르쿠스가 아들 콤모두스를 국정의 최고 조연자로 임명하고 난 직후 군대 사령부에서 숨을 거두었을 무렵 거의 결실을 맺고 있었다.

1.12. 인용문헌

4대 우상(베이컨)

나라가 망하는 징조 7가지(간디)

명상록(마르쿠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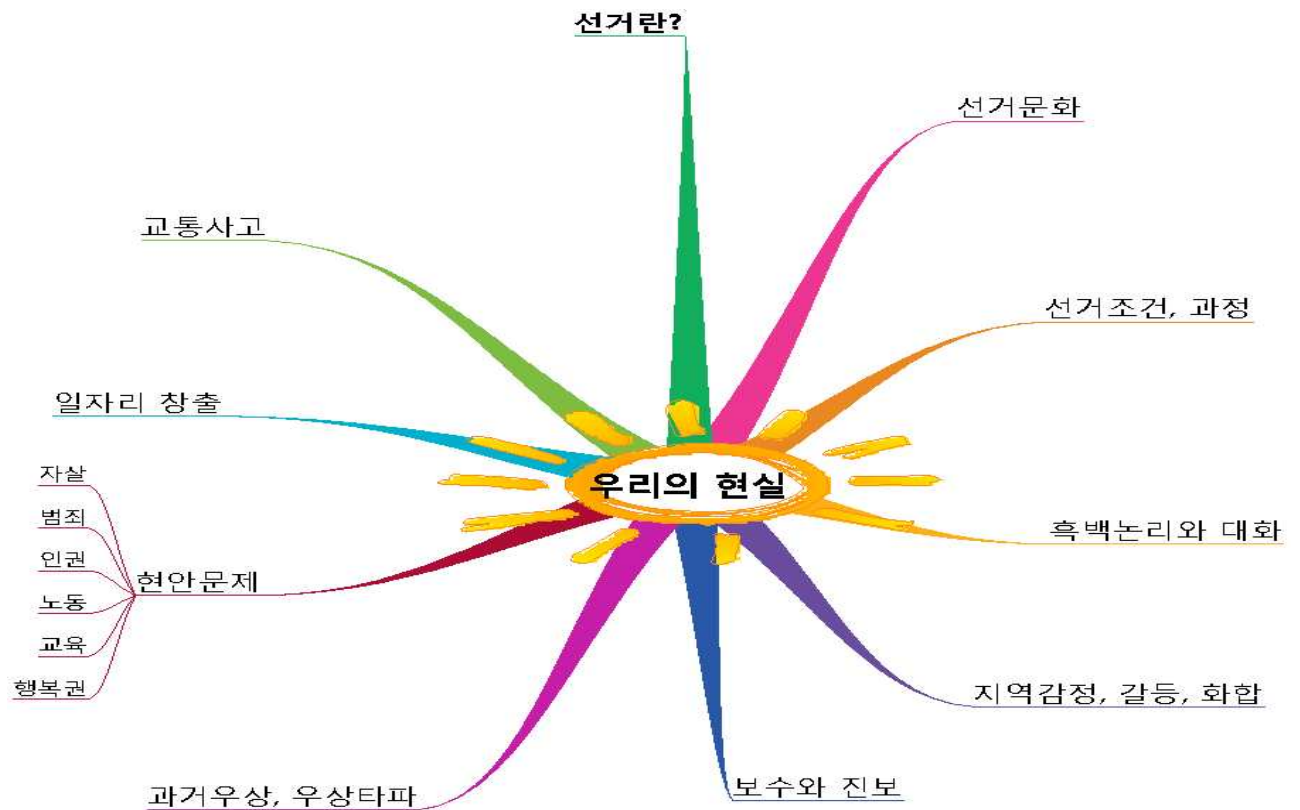
명언 감상(괴테 등 다수)

위기십결(바둑을 위한 비결)

의식의 수준(데이비스 호킨스)

정의란 무엇인가(마이클 샌델)

2장. 우리의 현실: 대한특수성



<출처: cafe.daum.net/beyondthetoeic >

2. 우리의 현실: 대한특수성

2.1. 선거

: 현대사회는 선거를 통하여 좌우가 정권교체를 통하여 발전하여왔다. 그것이 좌우 균형을 잡고 발전하는 모습이다. 그것이 국민의 열망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만일, 공정한 선거가 아닌, 반칙이 존재한다면 정상적인 변화는 물 건너간 것이다. 국민의 열망에 맞지 않는 선거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국민의 뜻대로 되려면 선거는 최우선적으로 공정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믿어온 민심은 천심론! 이다. 그것이 최소한의 민주주의라고 해야 할 것이다. 과연 우리의 선거의 모습은?

2.1.1. 선거에 대한 국민 중심적 가치

- 국민1: 과거 중세이전까지 선거에 해당하는 것은 나라가 망하고 다시 세워지는 과정과 같다. 새나라가 서는 100-200년에 한 번씩 치르는 과정으로, 지금은 생명이 아닌, 권좌, 권력자만 교체하는 것이라고 봐야지. 공정하지 못하면 정권교체를 해야 하듯, 선거과정은 엄중하게 지켜져야 한다. 반칙은 또 하나의 쿠데타이다. 선거는 전임 임기에 대한 평가로서 시시비비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론이란 결국은 언론의 영향을 받는다. 언론의 정론여부에 따라 선거결과는 결정된다. 지금 같으면, 유급 시민단체모임 활성화가 되든지, 사회단체지원예산이 정식으로 확보되어야 하겠지. 언론도 감시하고….
- 국민2: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선거기간만이라도 진위과정 필요(과거사 정리)와 공정인사의 의견이 필요한 것이지. 과거가 투명해야 미래를 선택하듯이, 이 시기에 모든 언론은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고 국민을 속이면서 선거한다는 것은 독재수단에 불과해. 국민이 노예의 굴레로서 삶을 강요받는 거지. 지금과 같은 조종동은 해체(인적쇄신)하고 선거해야 해. 공정인사로 언론을 정보통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고 권력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은 급선무로 배제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솔직히 서민의 삶이 고달파서 일반인은 이것을 분석할 시간이 없잖아.

- 국민3: 꿈은 이루어진다.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잠시나마 이상사회를 추구하여 보았지. 2002 + 5년= 2007년 까지 지속되었다. 2008년부터 암흑기로 퇴보하였다. 1998년 IMF - 국민적 총화로 살아나서 - 과거를 정리하라. 미래를 뒷받침 하게 하라. 과거가 정리되어 정의가 미래를 지배하게 하여야... 그것이 우리의 자연스런 역사가 아닐까?
- 국민4: 지역감정! 이 문제는 제대로 풀어야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역감정이 심한지역에서 기득권당의 출마제한을 한다(예 100석이상 당 중에서 경상도, 전라도처럼 특정지역에서 80%이상 독식당은 다음 선거에 2지역구에서 출마제한을 한다. 지역감정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할 시기까지 한시적 제도로써 이주정책 대신 정책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 국민5: 예를 들면, 이번 선거법 고치고 제대로 선거해야 하는데, 2개 기득권정당이 문제이지. 이럴 때는 무조건적으로 기득권세력에게 한 표도 안주어 선거혁명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것이 가능한 시대라고 알고 있거든.
- 국민6: 선거에서 후보자가 누가누군지, 정책이 어떤지 모르고 찍었다고 가정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선거참여만 하면 된다? 이 상태라면, 총투표가 필요없다. 기본 정보도 모른다면, 사실 기권해야 정당하다. 무효표를 만드는 거지. 투표 안하면 참정권을 포기하는 것이 되지만, 무효표는 다르잖아.
- 국민7: 그리고 무효표가 지나치게 많으면 언론을 고치든, 선거법을 고치든 해야겠지.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국민에게 정보를 주지 못했다는지, 국민이 여력이 없어서 선거에 관심이 없었는지. 원인이 나오면 그 처방전이 나오겠지.
- 국민8: 그래야만 불순세력에 의하여 선거가 되지 않겠지. 여론이 잘못 되면 무자격자인 불순세력도 당선되거든. 이게 말이 되느냐구. 정책도

안보고 조직력에 의하여 기득권세력인 부유층, 자본권력이 대부분 당선되겠지. 선거정보도 접하지 못하는 소외층은 관망 세력과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해.

- 국민9: 선거는 언론(공정위 필요), 공평한 교육과 정보의 평등, 자유(미래사회 전략, 공상과학)이다. 공정한 규칙에 의한 최선으로 우리의 지도자를 뽑는 것이다. 당선자가 반칙이 없었는가? 검증해야 하고 문제점을 계속하여 합리적인 제도로 개선하여야 한다.
- 국민10: 여기서 합리적 제도 개선하는 사람이 곧 대안세력이 되는 것이다. 지도자는 새로운 피가 돌듯이 계속하여 순환되어야 한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선거에서 정보와 언론통제로 여론을 인위적으로 만든다면 사기꾼이 아닐까?
- 국민11: 여론 조작! 사기꾼! 관주도, 즉, 정부가 하는 행위 중에 현재의 편파적 정보전달 행위를 폐해를 막아야 하지 않을까! 이것은 국민을 오판하게 하는 행위로서 중세 전쟁에서 거짓 정보누설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의 여론조작은 역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참형에 해당했다.
- 국민12: 국민의 가장 큰 권리는 지도자를 뽑을 권리이다. 이번에 갑이라는 지도자를 뽑았다가도 정말 아니다 싶으면 다음에 을이라는 지도자를 뽑을 권리가 있다. 그 공동체가 잘 살기위한 자연스런 현상이자 권리이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가 공멸하기 때문이다.
- 국민13: 그런데 지금 우리는 중세이전 제왕을 대하듯, 불만이 있어도 국민의 뜻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불편한 구석이 있다. 대한민국이 살고자 한다면 정치가의 논리가 아닌 국민의 논리와 권리가 작동해야 한다.
- 국민14: 현재의 지역구도, 자본권력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선거구도는 전체를 병들게 하고 마침내 공멸하게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먼

저 지역구도와 기득권의 정치논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다. 대한민국이여! 국민의 권리를 찾자. 국민을 위하는 정치지도자를 내가 선택해보자.

- 국민15: 내가 원하는 후보를 뽑는다. 뽑을 후보자 없어 아무나 뽑거나 기권하는 나라는 가장 위험한 나라이다. 분명, 우리는 그런 나라를 원하지 않는다.
- 국민16: 선거가 국민을 위한 축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선거전에서 소위 네거티브 전략이 지나치다. 선거는 국민이 중심이 되어 후보자는 국민 앞에서 깨끗한 모습과 선명한 정책대결로 임해야 하지 않을까?
- 국민17: 선거가 국민을 위한 축제라고 해서 말인데, 솔직히 말해 후보자는 국가 발전이나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 아니면 국민의 화합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거 아닌가?
- 국민18: 선거가 공약대결로 조금 양보해서 “말 잔치 아닌가? 최소한 그럴듯한 미래 청사진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가 말이야! 그런데 공약도 못하고 상대와의 네가티브 전략에 빠져 인신공격! 조잡한 신상털기! 언론사의 상대후보의 부정의혹 만들기 소설기사나 쓰고!
- 국민19: 몇 가지 선거용어가 국민을 우롱하는 말 아닌가? 싫어! 예를 들면, “표밭” 이 말은 지극히 후보자 중심적 말이잖아. 실제로 국민을 위한 선거 전략이 아니고 실제로 “국민을 이간질 시켜서” 자기의 표를 얻기 위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 문제이지.
- 국민20: 표밭이란 말에 나도 동감해. 그런 후보의 언론잡지의 관계! 정언유착관계라고 해야하나! 이러한 정언 유착관계의 언론지는 그 당이나 그 후보의 입장에서 기사를 쓰고, 아니 저질 의혹 소설을 쓰고 있잖아!

- 국민21: 나는 선거용어 중에 맘에 안 드는 것이 “부동층”이란 말이야! 대개가 부동층이란 선거일 전까지 결정을 안했다는 부류를 가르키는 거잖아. 대강 단어의미대로라면 “마치 물 위에 떠있으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관망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잖아. 나름대로 좋은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유세를 지켜보는 사람이잖아!
- 국민22: 그런 사람을 후보자 시각에서 마치 물위에 뜬 물고기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부동층(浮動層)! 그 물고기를 낚아채기 위한 낚시꾼이 후보자가 되는 것이지.
- 국민23: 신문잡지에 “부동층을 잡아야 승리한다” 등의 기사를 보면 솔직히 기분 나쁘지 않나? 유권자인 내 입장에서는 좋은 후보가 있으면 벌써 마음에 결정해 놓았겠지.
- 국민24: 그런데 좋은 후보가 나타나지 않아 그래도 조금 괜찮은 후보를 선택해 볼까? 하는데…. “뭐” 뭐라고? 물위에 떠서 아직 결정하지 못한 부유물이라고? 그 용어 자체가 맘에 안 들어!
- 국민25: 그러니까 정치선거에서 나는 유권자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표현하는 자체가 후진 선거를 하고 있다고 자백하는 증거자료라고 생각해!
- 국민26: 내가 볼 때는 “소위 말하는 부동층이 이미 결정한 유권자 보다 선거에 바람직한 태도를 보였다고 본다.” 왜냐하면, 흑색선전을 포함한 네거티브 선거전에서 아무리 눈 씻고 찾아보아도 후보자 모두가 그렇고 그런 후보이건만, 어떻게 그렇게 후보자를 빨리 결정하느냐고?
- 국민27: 이래저래 도토리 키재기니까 감으로 찍었나? 뭐, 뇌물이라도 먹었나? 선거 방송도 하기 전에 이미 지지할 후보를 결정했다는 것은 후보를 비교해 보고 정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닐까?

- 국민28: 나는 20여년이 넘는 선거를 생각해 보면, 한 번도 선거당일 전에 미리 결정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기억되네요. 사실 누구를 찍어야 좋을까? 하고 늘 생각해왔어. 누구를 찍나 “그 나물에 그 밥” 수준이었기 때문에 일찍 결정하지 못한 것 같네요.
- 국민29: 나도 미정층에 속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심정 이해가 갑니다. 한 한번은 순간의 생각이지 말이지요. 허경영이나 찍어볼까보다 하고 생각한 적이 있어. 한마디로 유권자가 인내하면서 기다려서 그렇지 우리선거전은 대부분 도박판에 가깝다고 생각해.
- 국민30: “미정층”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층이란 말이지요? 그 말이 오히려 유권자 입장에서 나온 말로 보입니다.
- 국민31: 좋습니다. 부동층을 “미정층”이란 말로 쓰자는 것이지요. 정리하면 미정층(未定層), 미(未)결정층을 가르키는 용어이지요. 부득이 “부”자를 쓸거면 부정층(不定層)이 더 의미 있지 않나요? 물론 동음어인 부정부패를 말하는 단어와 동음어라 헷갈릴 수는 있지만요.
- 국민32: 어쨌든 선거용어를 후보자의 일방적 입장에서의 용어를 중립적이거나 객관적 용어로 순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선거가 국민중심적인 선거가 되고 나아가 선거가 국민의 축제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2.1.2. 선거과정(후보자 선택)

- 국민1: 선거 모르면 참여하되, 기권 표기하라. 기권이 많으면 설문조사하여 본다. 이렇게(언론책임이나, 선거홍보부족이나, 내 책임이나)...
- 국민2: 현재, 정치는 억울한 사람의 양산,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의 모임! 그 집단이라고 생각해. 정치를 하는 것인지, 패거리 싸움 라이브 쇼를 하는 것인지. 정치가 아니라 망치라고 해야겠지. 사실 그렇게 싸우는 사안은 보류를 시켜야겠지. 그것을 날치기 통과, 강행처리 등 상식이하의 짓을 하는 놈들이 정치를 한다고! 내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저 따위 놈들을 우리 손으로 뽑아야 하는 불편한 현실과 그들을 뽑을 수밖에 없는 현 체제에 배신감을 느낀다 이거지. 괜히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이 나온 것이 아니거늘!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국회의원을 한나라당, 민주당 전체를 물같이 하는 거야. 그러면 최소한 앞으로 누가되든 그딴 짓은 못하겠지.
- 국민3: 선거에서 과거로부터 정치꾼 문화를 조성하였다고 생각해. 조금이라도 안다고 뽑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가치추구가 아니라, 인지도 즉, 인기인 선거구도라는 말이 된다. 여기에서 선거제도와 문화를 개선하여 후보자가 가치를 비교하여 선택하는 문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선관위, 언론, 개인의 국민은 최소한 후보자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에 대하여 정보를 습득할 시간이 최소한 필요한 것이지. 선택할 정보가 부족하면 무효표를 선택하여야 한다. 무효표에 따라 선관위나 개인의 문제인지 분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도 없이 선거만 참여하는 것은 로또와 같은 도박판이 된다. 이점을 국가와 국민은 경계해야 한다.
- 국민4: 기득권이 일정비율을 넘으면 그 우물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효율이 상식이하로 떨어지는 거야. 국민 대다수가 정치권 불신이 있잖아. 전쟁이 터져도 당파싸움, 기득권 싸움만 하는 격이지. 이쯤 되면 그 분야는 대폭 물갈이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 대권예비 설문조사를 보면, 일반 국민인 비정치인이 현직 정치인 대권 후보보다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하지만 그 지지율이 차기에 정치혁신에 대한 희망이 있어서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거든. 야! 여기서 “국민”이란 주어가 분명하게 있다. 그런 면에서 안철수 바람현상도 자연스러운 거라고 봐. 지금의 현상은 분명하게 정치권 전반의 불신현상으로 보이거든.

- 국민4: 정치자유란? 누구든지, 휴직가능한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정치꾼이 되는 구도로 만든다는 것이지. 모르면 무시당한다고. 모르고 적당히 찍어주었기 때문에 그를 지지한 후에도 그에게 무시당한다. 언론이나 정부는 국민이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시켜야 비로소 선거권이 행사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는 요식행위일 뿐, 세력다툼으로 전락할 뿐이다.
- 국민5: 정치다운 정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은 정치가 아니라 망치! 아니면 학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조선의 당파싸움과 지금이 무엇이 다르랴? 대화와 타협이 없는 정치행위는 사실, 정치가 아니라 못 박는 망치가 아니라 망할 망치(亡治)라고 해야겠지. 정치가의 덕목은 청렴이 기본이다. 권력을 지향하는 자는 현대정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국가나 국민에게 헌신과 봉사정신, 공평한 성품,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이 적격자라고 할 때 선거제도에서 그것을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지. 특정지식보다 보편적 지식과 균형있는 가치관의 소유자, 백성들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하고, 사익추구가 아닌 공익적 소양이 있는 사람. 정의롭다 이거나 공의로운 사람. 최소한 이것은 기본이 아닐까?
- 국민6: 그런데 그 동안 법조계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법을 조금 안다고 법망을 악용하는 역할이 많았다고 생각하지. 이런 세력들이 득세하였으니, 국민은 뭐가 되냐구? 진짜 20살 이후 화딱지 나서 못 봐주겠다고. 이런 사람이 나 뿐일까!
- 국민7: 깨끗한 선거제도 중 하나는 금권정치가 안 되게 해야 하는데, 돈 있는 자를 위한 피선거권을 개선해야겠지. 후보자가 너무 나올까 걱정된다고? 한동안 그러다 말겠지.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근다는

소리가 아닐까?

- 국민8: 언론, 학자, 과학자, 종교, 기업가, 정치가 바로 서고, 무엇보다도 학자가 바로 서고 그 다음은 언론이 바로 서야 국민이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절대로 국민이 먼저 부패되지 않는다고 봐. 언론과 기득권이 부패되면 국민은 정확한 정보없이 그냥 여론에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해. 국민이 언론이상으로 어떻게 더 아느냐고? 언론이 잘못된 정보를 주면 그냥 전체가 부실해 진다는 말이지.

2.1.3. 선거에 대한 잘못된 의식(선거냉소에 대한 의견)

- 국민1: 나는 선거에 누가되든 관심 없어.
- 국민2: 그래, 정상적인 후보자 일 때는 관심 없어도 일반시민이 별로 손해 볼 것 없지.
- 국민3: 옛날, 점령군처럼 하면 너는 피지배가가 되는데도 상관 없다구.
- 국민1: 아니, 그건 아니지.
- 국민4: 그건 니 생각이구. 선거에 승리한 인간은 그것이 아닐 수도 있거든. 현 정부와 점령군 행사하는 여당처럼.
- 국민5: 그 동안 부정선거와 기득권의 반칙으로 이어져 왔다. 그 잘못된 관행으로 선거에 대한 기대가 없어졌다는 사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의 정치권은 반성하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과거부터 정치인은 조폭수준의 행태로 국민에게 실망을 주어왔다. 최근의 “안철수 현상”을 만든 주범은 철저하고 완벽하게 정치권의 책임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정치권의 행태는 어떠한가?

※ 참고 자료: 언론기고문

[세상 읽기] 후배에게 권하고 싶은 책 / 금태섭

금태섭 변호사

밀턴 프리드먼을 한번 읽어보라

극단적 자유주의를 곱씹다보면

대응논리가 더 풍성해진다

대학 입학철이 되었다. 대학에 들어가는 후배에게 선물할 책을 고를 때면 그 시절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려본다. 대학 때 좋아했던 책은 여러 권 있지만, 그때가 아니면 읽기 힘들었을, 지금 생각해도 그 책을 만난 것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책은, 조금 뜻밖의 책이다. 그 당시나 현재나 나의 생각과는 상당히 다른 주장을 펼쳤던, 극단적인 우파 경제학자가 쓴 책이기 때문이다.

대학 시절 친구 집 책장에서 밀턴 프리드먼이 쓴 <선택의 자유>라는 책을 발견하고 무심코 빌려왔다가 며칠간 손에서 떼지 못한 일이 있다. 평상시 별생각 없이 보던 사회현상을 너무나 흥미있게 설명해놓았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그리고 대기업 최고경영자가 그렇게 터무니없는 수입을 올리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자유로운 경쟁이 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지, 복지가 왜 사회를 망가뜨리는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 석학은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말해주고 있었다. 대가의 글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처음 느끼는 순간이었다.

25년이 지난 지금, 프리드먼의 책을 다시 읽는다면 어떨까. 고민할 필요도 없이 틀렸다고 자신있게 말할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세계경제를 요동치게 만든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이 바로 프리드먼 같은 사람이 주장했던, 어떠한 규제도 불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월가는 수익률을 극단적으로 높이기 위해 이공계 출신의 수학 전문가들을 끌어들였고 이들은 복잡한 방정식에 기초해서 조금이라도 계산이 빗나가면 시장 전체가 파멸할 수 있는 투기를 서슴지 않았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개인의 탐욕에 기초한 이윤의 추구와 경쟁이 모든 사람에게 부를 안겨다줄 것이라며 이들을 칭

송하기에 바빴다. 그 결과는? 전세계가 동시에 파산할지 모르는 최악의 위기가 도래했다. 프리드먼의 생각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학 시절 프리드먼의 책을 읽은 것을 행운으로 여긴다. 다른 무엇보다도, 잘못된 생각도 때로는 정말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만약 그 책을 읽지 않았다면 극단적인 자유주의가 나름 얼마나 정교한 이론체계를 갖추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반대를 해왔을 것이고, 만약 논리적인 설득을 당했으면 쉽게 무너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린 시절 프리드먼의 해박한 설명을 접해본 덕에, 오히려 ‘상대방’의 논리에 대해서 알고 나름의 반대논리를 만들어볼 수 있었던 것이다. 나의 생각과 정반대의 입장에서 제시된 치밀한 분석과 날카로운 논증을 접해본 덕에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교훈이었다.

그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최근 내 편과 네 편을 가르고 귀에 거슬리는 주장을 하는 사람을 적으로 몰아붙이는 움직임이 생겨난 것은 매우 걱정스럽다.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것만큼 힘없는 허세는 없다.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논리에 부딪히면 한순간에 ‘혹 갈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약한 ‘우리 편’이 아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열린 마음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이다.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는 절판이 되어서 현재는 구할 수 없다. 그러나 선배로서, 대학에 입학하는 후배의 손에 책을 한 권 쥐여 준다면, 나나 그 후배의 평소 생각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남의 편’이 쓴 책을 선택하고 싶다. 나와 다른 생각을 들어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헤쳐 나가는 데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금태섭 변호사

2.2. 선거문화

: 공정한 선거를 치루기 위한 문화!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제도개선으로! 언론자유로! 현재로서는 국민의 깨어있는 의식뿐이다. 기득권과 연결된 부패와의 연결고리를 누가 끊을 수 있을까? 그것은 전적으로 그 나라의 국민에게 달려있다.

- 국민1: 정치는 선거로 결정하는 것이고, 선거문화의 정상화가 중요하겠지, 국민여론에 의한 득표율! 선거 때면 후보자가 말하는 사표라는 의미! 이 무도한 말을 사용한 다는 것이 이미 우리는 후진, 도박선거를 한다는 징표라고 생각해. 사실, 사표는 없는 것이다. 유권자의 시각으로 보면 사표는 없다. 어쨌든 특정후보자에게 지지가 있을 뿐이다. 사표라는 것은 당선 가능성에 있는 후보자가 상대를 이기기 위한 지지층 확대를 위한 발언일 뿐이다. 너 안 찍으면 사표가 되는 거임. 후보자가 사표라는 말을 쓰는 것은 유권자를 무시하는 말이다. 그것은 후보자가 결정할 권한이 아니기 때문이다. 후진 후보자 일수록 선거를 정책대결이 아닌 난장판, 도박판으로 만들려고 한다. 공정한 게임을 하면 불리하니까 시궁창 게임을 하려고 한다. 유권자는 선거를 도박판으로 만들려는 유혹에 빠지면 안 되는 이유이다. 그 유혹은 국민을 피폐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든다. 너 자신을 표현하라, 국민이 어떠한 비율로 후보에게 지지하고 있다는 현실은 매우 중요하다. 정치권 전체가 물갈이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아무도 지지 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방법도 있다. 정치가다운 후보! 즉, 나을 사람이 나와야 한다. 자격도 못 되는 후보가 나와서 애매한 사람끼리 싸우게 않게 하는 것도 유권자의 선택이 아닐까? 만약, 예비후보가 10명인데 모두 10%이하의 지지율이 라면 새로운 후보가 도전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방법이다. 맘에 드는 후보가 없다면 뽑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물갈이 방법이 아닐까?

- 국민2: 후보자의 가치관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 우선은 정책공약을 검토하고 언행일치를 보아야 하겠지. 신언서판으로 치면 보통 우리가 정확한 정보 없이 신(身)만 보고 결정하게 되지. 사실 부족하였지. 앞으로는 언(言)에 해당하는 정책, 언변, 가치관 등을 보고 선택해야겠지.

서(書)를 보면 대부분 그 사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만한 저술을 한 사람이 대부분 부족하다고 봐. 그냥 대충 출판기념회 하는 수준이거든. 판(判)에 해당하는 미래를 보는 안목, 즉, 예지력, 이런 판단력은 경험도 못하고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 예를 들면, 1-2년 앞을 내다보는 안목, 즉, 한-USA FTA에 대한 행동을 보고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지. 우리는 어쩌면 대단히 불쌍한 유권자라고, 선거의 맛을 모르고 한 표 행사에 의미가 전부거든. 정말 재미없거든. 후보자를 찍을 때는 그 후보에 미래에 대한 짜릿한 기대가 있어야 하는데 말이야.

- 국민3: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진 자가 부족하면 우리는 이러한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안하거든. 그게 근본적인 문제이지.
- 국민4: 공정한 여론을 막으려는 자가 선거문화를 망치는 하나의 반칙 행위이다. 정의가 아니다. 정치는 어렵다. 시시각각 미묘한 사건이 많다. 이것을 순간적으로 가치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론을 모으고 토론과 소통을 통하여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과정은 생략하거든.
- 국민5: 우리 정치문화는 정말 척박하거든. 이런 정치를 어렵다고? 아니 더럽다고, 사람들이 혐오하면서 정치입문을 꺼리고 있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일종의 악순환이랄까? 이런 틈새를 노려서 오히려 정말 말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고 할까? 백성에게 애정도 없는 사람이 사리사욕과 명예욕만으로 톨톨 뭉친 자들이 많다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덩달아 관중도 함께 끌려 다니고 있다는 게, 이중으로 된, 악순환 고리라고 해야겠지. 현실이 이러니, 욕을 먹더라도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선수를 바꿔야 하겠지. 87년 껍데기, 이제 내부인 작은 기관단위! 직장 내 민주화가 절실하다고 보아야겠지. 단체별 민주화 추진, 요즘 유행하는 말로 공동체별 민주화 추진이 되어야겠지. 정치 민주화가 안 되어 권력의 남용과 부패에 의하여 경제 불균형이 된 것이지. 정치민주화가 되면, 사실 경제 민주화라는 말도 안 나오겠지. 경제민주화하려면 먼저 정치민주화는 필수가 아닐까!
- 국민6: 금권선거에 대한 인식개선, 정치는 돈이 있어야 한다. 정치에

의존하는 사회의 집단인식에 대한 개선이 먼저라고 하겠지.

- 국민7: 한나라당 Ddos, 국회정당 돈선거를 생각하는 자! 이런 무리를 정치권에 머무르게 해서는 희망은 없다고 생각한다. 정치판은 우리를 대표하는 유능한 사람이어야 한다. 정치판이 도박판이 되어 표놀이 게임이 되어서는 우리 삶은 한평생 패배이다. 나는 이미 30년 정도 패배하며 살았다. 더 이상 패배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으면 해! 사회는 서서히 변한다는 말로 유혹하지 마! 사람은 언제든 깨닫는 순간 변화한다는 말이 맞다고 동감해! 국민은 이 사실을 알아내고 언론과 같이 타인에게 사실을 알려주면 되는 거야! 선거문화(제도개선, 발전단계)는 국가가 가장 힘써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해! 자질검증(신언서판, 검증)과 실수와 범죄를 구별하여 대표자 자질을 높여 가야만이 비로소 권력이 국민의 정부가 된다고 확신해. 선거를 통하여 생활 속의 정치가 되게 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 언론자유와 정보가 공유되고, 노동의 주체권리를 회복하여 현재 일어나는 반칙이 일상인 권력을 방지하고, 공명선거로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민주주권을 가진 국민이 된다. 지금은 민주주의 주권국가가 아니다. 여기가 우리의 출발선이다. 우리의 위치를 모르면 사기꾼 정치집단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재미없는 정치가 된다. 이제 이것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2.3. 선거참여의 기본적 자세(조건)

- 국민1: 우선, 좋은 후보가 당선되어야 그 시민은 행복하거나 좋을 것이다. 즉, 좋은 후보가 당선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당위성이 내재되어 있다. 현대 선거의 권리는 자유이다. 후보자를 모르고 아무나 찍으면 어떻게 되나? 그렇게 되면 운으로 당선되는 거다.
- 국민2: 과거 중세에는 참정권에 제한이 있었다. 여성은 투표권이 없었던 시절, 조건부 선거제도가 있었던 시절, 많은 사람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할 신분제도하에서 만약, 이들에게 투표권을 주었다면 어떻게 될까? 후보자를 모르고 찍었다고 생각해 보자. 분명, 모르고 투표하는 비율의 정도에 의하여, 즉, 운수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실제 유권자가 후보자를 분석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우스꽝스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따라서 유권자는 투표권이 자유이나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접하지 못했다면 기권, 또는 불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무조건 투표에 참여하여 정말로 아무나? 찍으면 곤란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이번 선거에서 무지무지 바빠 후보를 선택할 수 없을 정도로 모른다면 투표는 참여하되 기권하는 것도 좋은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만약, 이렇게 부득이 한 유권자가 너무 많다면 제도개선(모바일 투표 등)과 환경개선(언론의 선거 정보 증원 등)을 해야 하겠지. 요즘, 먹고 사는데 바빠서, 혹은 돈 버는데 미쳐서, 선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즉, 유권자를 성인 모두에게 투표권을 준 이상, 이들이 70%는 참여하게 하여야 좋은 제도가 아닐까? 정책대결에 의한 미래에 대한 기대로 축제 한마당이 된다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 투표율은 70%가 참여하게 하고, 내용적으로도 후보의 정책대안은 알고 투표에 참여하여 하여야 하지 않을까? 참여와 투표의 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려면, 국민에게 알권리와 언론역할이 중요하겠지. 그러면 유세차도 아닌, 선거용 광고판 선거전과 도우미 숫자에 의한 이벤트성 행사나 해서 지지도가 높아지는 않겠지.
- 국민3: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의 편파적 정보전달 행위로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선거기간만이라도 진위과정 필요(과

거사정리)와 공정언론과 사회에 덕망받는 공정인사의 의견과 토론이 필요하겠지. 정확하게 보면 현재의 선거방식에 국민은 속고 있다. 선거후유증을 없애기 위해서 비밀선거를 하는 것이고, 당선되면 일단 선거(과거로 말하면 전쟁)을 잊어버리고 선거 후유증이 없는 일상의 귀환을 위해서 비밀로 선거하는 의미를 살려야 하지 않을까? 일종의 이야기 거리인 선거결과를 지나치게 분석하여 결국은 비밀투표의 장점없이 선거후유증을 만들어 낸다면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좋은 후보를 선출하기 위하여 선거를 해놓고 후보자에 따라 갈등이 유발된다면 승복의 정치도 무색해지고, 다시 다음선거를 위한 정치꾼의 졸속적 행위만 조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면 정책선거가 아닌 소위 네거티브 선거문화가 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 선거에서 유권자는 선거 공약이나 정책노선을 보고 당락과 상관없이 자신의 성향대로 지지해야 한다. 그래야만 다음의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이대로 당선권 후보자에게 도박선거가 계속된다면, 수차례 선거를 해도 서서히 발전한다는 것도 기대할 수 없다. 미래가치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발전한다는 기대가 없이 우후 죽순현상이 반복될 뿐이다. 물론 여론에 의하여 당선권이나 그렇지 않느냐는 따질 수는 있어도 사표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지. 단 1%라도 그가 지지하는 정책과 사람이 있는 것이지. 당선권에 있는 자가 사표논리를 피면서 유권자를 끌어들이는 술책에 불과하다 이거지. 이렇게 되니, 지지해 주고도 국민이 그들의 노예의 굴레에 빠지는 것에 불과해. 선거철만 유권자로 보이지, 보통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세상이 아는 거잖아. 이런 세태를 그들도 알 더이다.

- 국민4: 우리나라는 기득권의 최고가 조중동 이잖아. 그들 스스로가 기득권이고 최대의 기득권 옹호세력이라고 해야지. 이것을 해체하지 않고는 국민은 모두 속고 사는 것이지. 기득권의 선전지로 전락했거늘, 공영 공중파마저 땡전방송이 되었으니 문제가 심각해졌지. 대부분 국민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는 아니잖아. 사람이 4대 우상에 빠지듯, 지금의 조중동 소리를 들으면 그래만 하는 줄, 아는 거잖아. 그리고 그들의 속성이 그렇게 나쁜 줄, 보통사람은 의심을 하지 않거든. 일종의

극장(언론)우상이라고 해야겠지. 그래서 사기 치는 게, 먹혀드는 것이지. 조중동 해체(인적쇄신), 공정인사로 언론을 정보통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고 권력으로 이용하려는 음모를 확실하게 견제해야지. 현대 언론은 권력이자 가장 큰 무기잖아. 특정분야의 세력화를 배제해야지, 정말 급선무야. 일반인은 이것을 분석할 시간이 없다는 것도 문제지만... 우민화 되어 국민이 기본 정도가 없는 세상에서 무슨 건전한 여론형성이 되겠느냐구!

- 국민5: 꿈은 이루어진다.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이상사회를 추구하였다. 2002 + 5년= 2007년 까지 지속되었다. 다소 시끄러웠으나 희망 속에 진행되었다고 생각한다. 현실이 생각을 못 따라가듯 개인의 이상보다 못하다고 질책한 것이지. 이 시기의 국민이 과거보다 못하여 불만을 토로한 것이 아닌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2008년부터 암흑기로 퇴보하였다. 1998년 IMF - 국민적 총화로 살아나서 - 과거를 정리하라. 미래를 뒷받침하게 하라. 정의가 미래를 지배하라. 사람만 바뀌는 게 아니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부패의 틀에서 나오게 하는 정치구조로 제도와 문화가 개선해야 된다고 박요. 요즘 우리나라 선거시기가 되면, 상당수 이상이 줄서기 진풍경이 나타난다고 한다. 과거 절대권력의 시절은 줄서기를 잘 못 했다간 패가망신이 되는 시대도 있었다. 현대 선거결과와 운영은 권력중심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가 중심이다. 따라서 국민은 공정한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대통령 등 지도자 선출을 하면 된다. 그 선출자가 임기동안 봉사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굳이 그 많은 사람이 특별이익을 위하여 줄서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된다. 사실, 선출자의 측근도 한자리 하기위해서 준비하였다면, 정책대안을 가지고 ○○만들기에 도우미가 되어야 한다. 선출자를 도와주었으니 보은인사나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 적재적소의 인사경영은 실패한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진짜 선진국이 되려면 줄서기가 필요 없는 선거문화가 되어야겠지요.

2.4. 흑백논리, 갈등, 세대차이 그리고 대화가 되지 않는 이유?

: 공정하고 발전적인 선거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좌우도 아닌 흑백으로 먼저 갈라지기 때문이 아닐까? 무조건적인 편싸움! 공정한 선거문화를 막는 주범으로 공개수배 합니다.

- 국민1: 우리나라 사람의 인간관계의 막연한 의식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일 것이다. 생존적 접근을 한다면 틀릴 것도 없지만, 대승적이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이 말은 논리적 모순도 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논리라면 다리는 왜 밖으로 굽는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팔은 몸 앞으로 굽혀지고, 다리는 몸 뒤편으로 굽혀진다. 인간의 나약성에 입각한 지푸라기 잡기식 생존논리로 본다면 일면 맞기도 하다. 하지만, 인류의 이상은 이타적 사랑이다. 즉, 편애하지 않는 인류의 사랑이다. 가까운 사람만을 챙기는 사랑이 아닌 어려운 사람을 위한 헌신적 사랑이 더 고귀한 사랑이다. 다시 돌아와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식의 처세를 풀이하면 “나는 편협하고 옹졸한 이기주의적 처세를 하겠다는 졸속형 인간관계 방식의 선언일 뿐이다.”

- 국민2: 베이컨이 말한 종족우상, 동굴우상, 시장우상, 극장우상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역사적 역학관계에서 습관된 사대주의 우상, 승자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겠지. 또, 흑백논리, 모 아니면 도라는 식의 도박적 사고, 반공우상을 경계하여야겠지. 특히 극장우상은 현대적 비유는 언론우상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더더욱 지금의 언론은 특정세력 편향적 언론주도가 심하고 정부의 언론통제가 도를 넘었다. 언론이 40년 전의 통제수준으로 체감되거든. 부분적으로는 중세시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간 느낌이야.

- 국민3: 흑백논리는 언어의 통제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해. 그 대표적인 것이 그럴듯한 속담을 내세워 원천적으로 말을 막는 것이지. 그 중 하나가 “절이 싫으면 종이 절을 떠나야 한다!”는 말이지. 한국사람은 맞아야 한다는 말과 같다. 여론형성과 다양성을 원천적으로 막는 말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그런데 이 말의 사용처는?

절이 싫을 때, 종이 절을 떠나는 방법?

- 1) 종이 절이 싫으면 그 절을 떠나 다른 절로 자리를 옮기는 방법이 있다.
- 2) 종이 절이 싫으면 그 절을 떠나 아예, 수도생활을 접는 방법이 있다.
- 3) 종이 절이 싫으면 그 절을 좋게 하는 방법이 있다.
- 3-1) 종이 절이 싫으면 그 절을 접수하는 방법이 있다. 자신에 맞는 절로 고치면???
- 3-2) 종이 절이 싫으면 그 절을, 규율을 바꿔 여러 수도승이 좋아하는 절로 고치면 된다.
- 4) 종이 절이 싫으면 그 절을 싫게 하는 무엇을 치우면 된다.
- 5) 종이 절이 싫으면 그 절을 싫게 하는 사람을 바꾸면 된다.
- 6) 절이 그 목적을 잃으면 올바른 중은 그 절을 떠난다.
- 7) 절이 제대로 하면 중도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진다.
- 8) 절이 좋으면 좋은 중도 많아지고, 시주도 많아지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진다.
- 9) 절이 제 역할을 하면 땡중도 좋은 중으로 된다.
- 10) 절은 개인 것도 아니니 여러 사람이 좋게 만들어야 한다.
- 11) 절은 종이 잘 가꾸어야 좋은 절이 된다.
- 12) 좋은 종이 좋은 절을 만든다.

대충 이러한 대책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되돌아보아야 한다. 누가 무슨 소리 했다고? 대뜸, 종이 절이 싫으면 절을 떠나는 거라고? 이 말을 즐겨하지 않았나? 되돌아보아야 한다.

좋은 절을 만들기 위해서 타인이 행동하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나와 다른 것이 그릇됨으로 보는 시야는 아닌지 돌아보아야 되듯이, 다름이 틀림으로 오해하지 않기 위해, 최소한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우리는 다양성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러니 함부로 말하지 말라. 본인이 바로 나쁜 절을 만드는 장본인인지 모른다. 종이 절이 싫으면 떠나라! 이 말을 함부로 말하여 남에게 겁주지 말라! 어쩌면 내 자신이 떠나야 하는 중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함부로 남의 의견을 짓밟지

는 말아야 한다. 서로 고치고 다듬어 서로 이해하기까지 노력하고 합의하여야 한다. 사람은 불완전하다. 서로 잘 하려는 중에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서로 옳은 것을 찾기 위해 싸우는 것이지 상대를 짓밟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서로 대화하고 함께 하는 것이다. 현장의 소리를 귀 기울여야 하듯, 하위직의 소리를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섬기는 소통의 리더쉽이고 상생의 길이다. 따라서 함부로 이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중이 절이 싫으면, 절을 떠나야 한다.” 떠나라고 할 때가 아니라, 서로가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일 뿐이다. 이렇게 자유로우면 흑백논리는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을까?

- 국민4: 흑백논리에 빠지는 것은 앞의 1장에서 말했듯이 4대 우상을 비롯한 각종 우상에 허덕이니까 그렇지. 그 동안 최고의 사람이 인간을 위해 정리한 것이 있지. 그것이 인류문화라고 할 때, 인류문화의 개념도 없이 논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말이 안 되다보니까, 시간이 있어도 결론이 안 난다니까! 토의 중에 시간이 늘어지면, 흔히 이런 말을 하지. “그 말은 밤새워 토론해도 결론나지 않는다”고, 서로 시장우상 속의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고? 이때 나오는 대책이 힘센 자가 누르는 것이지. 흑백논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
- 국민5: 상대를 인정하는 태도와 배려! 이것이 없어서가 아닐까? 625 동존상잔, 간첩 등의 사상과 누명의 시기, 배움의 부족, 정치권의 선거 승리를 위한 자기 세력화 등의 병폐라고 할 수가 있겠지. 이제 우리도 흑백논리 우상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다음의 글을 추천하면서 ...
- 국민6: 국민의 의식이 최소한 긍정에서 출발해야 흑백논리에 빠져서 살지 않겠지. 1장의 인류문화 유산인 데이비스 호킨스님의 말대로 의식수준을 배우고 실천하는 수밖에 없다.

2.4.1.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부정적인 말

: 한번 식민지를 당하면, 3대가 고생한다는 말이 있다. 그렇게 비정상적인 환경이거나 나쁜 환경에서는 부정적인 말이 많아지게 된다. 역사적으로 사대주의 시대와 식민시대, 민족상잔의 잔혹한 시대를 우리는 겪었다. 그 시기에 긍정적 사고가 아닌 알팍한 처세술과 철저히 부정적인 말이 파생하여 우리의 의식을 좀먹어 왔다. 다음과 같은 말에 쇠뇌 되어서 우리는 대화하지 못하는 중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 시키는 대로 해라. (군대에서는 변형되어 까라면 까지! 뭘 잔말이야!)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 한다” 정도로 이유를 대강 알려 이해와 목적의식을 가지고 해야 일이 잘되어 질게 아닌가! 이 말은 명령 후에 하수인이 반문이나 의문을 하였을 때 상사가 할 수 있는 말로 일방적인 관계밖에 존재하지 않는 종속관계, 식민지 사회, 신분사회, 계급사회 등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피동적이고, 평등한 공동체 사회에 너무나 위배되는 말이다. 친절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하자” 하고 제안형의 표현은 어떨까 ?

○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인간이 안다는 것을 어디까지 알아야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각자가 아는 만큼 알고 있을 뿐이다. 아는 정도에 따라 가만히 있어라, 또는 나서라 단계가 아니다. 대화하는 사이 모르면 물어서 아는 것이고 자신이 더 많이 알고 있으면 상대방에게 전하여 주면 되는 것이다. 말을 원천적으로 막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물론 겸손하자는 뜻까지 고치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론을 묵살하기 위해 지배자가 하는 뜻으로 쓰이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모르면 물어서 알아야 하지 않는가? 알 권리를 독재자나 앞잡이가 반대자를 막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막는 말일 뿐이다. 원천적으로 말을 막는 말이라 생각되지 않는가?

○ 네 일이나 잘해. 남의 일에 간섭 하지마
이 세상에 우리 일이 아닌 것이 얼마나 되는가.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하고 우리 공동 문제를 얼마나 망치는 경우가 많은가? 이

말은 남의 일에 간섭한다고 하면 정말로 수치스러운 것으로 되어 당연히 우리 일임에도 불구하고 참여 할 수 없게 되는 말로 악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정말 그 뜻이라면 이것은 나의 일이네 하고 알려주면 어떠한가?

○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되므로 충분히 의논 후 검토하여 말이 씨가 되게 해야지 ‘재수 없게 그런 생각하지마’ 하고 의견을 모두 막는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영합할 수밖에 없잖은가?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충분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충분히 검토하고 난 후에 자신에게 또는 타인에게 선언하라. 그것이야 말로 말이 씨가 되어 생각이 정리되어 말한 대로 이루어 질 것이다.

○ **말이 많다. 대꾸한다. 이유가 많다.**

우리나라 남자에게 말이 많다면 수치심이 상당한데, 반문이나 의견을 제압할 목적으로 이런 말이 쓰인다 하니 경계하자. 하긴 여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여자가 말이 많다면 어떠한가? 다만 말은 신중히 아껴야 하지만 말이다. 또한 이 말은 “사내아이가 말이 많다”로 응용되어 말보다는 실천을 앞세운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말로 풀것은 말로 풀어야 하거늘 너무 역기능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화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진 폭력남자(남편)로 되어 남아일런 중천금이 부합와전 되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고집불통이 된 것은 아닌가? 대화가 아니라 자기표현수준에서 억지로 초지일관하는 지조가 있는 남자가 된 것이 아닐까?

○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해.**

상대를 기선제압하거나 의견을 막는 말. 어린이에게 많이 하는 말로 어린이의 의견을 너무 막는 경우다. 대다수 얘기를 해도 될 경우가 많다. 크게 떠들지 않는 한, 대화조차 못하는 장소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를 갖추려는 반면, 동창회, 예비군 모임 등에서는 조폭처럼 외도현상이 나타난다.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며

그 자리를 전세 낸 것처럼 행동한다. 우리는 이 모순에서 빠져나올 필요가 있다.

○ 중간이나 가라.

중간자의 처세법을 앞잡이는 찬양할 것이다. 아무도 반발하지 않는 상태! 불의가 자행되어도 방관하는 상태! 독재자나 식민 지배자를 위한 세상이 아닐까! 무사안일주의로 중용이 아니라 눈치세력이 압제자의 목표로부터 벗어나는 길이고, 일종의 말세의 처세법이라고나 할까?

○ ○○가(주로 공공의 일) 밥 먹여 주냐?

“자연을 보호하기 위하여 궁리한다” 또는 “여러 사람이 마음놓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라든지 공공의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없으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이 “뭐가 밥 먹여 주냐?” 이다. 어떠한 사안이든 이기적이고 소아적으로 판단한다. 공공의 목적으로 가지고 사업제안을 하게 되면 “그게 밥 먹여 주냐?” 처절한 생존의 상황에서 하던 말을 공공의 사회, 21세기에서 하는 말로는 너무 서글프다.

○ 모르는 게 약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게 병이다. 이 말은 어떤 사건에 연관되어 경찰서나 옛날에 일제에게 고문당하고 고생하는 데서 나올 법한 말로 정상적인 사회에서의 처세로는 어림도 없는 말이지 않는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시각에서 본다면 어떠한가? 멋진 사회를 만들어가고 지금 귀찮더라도 공정하게 가꿀 때가 되지 않았는가? - 이런 건 모르는 게 약이다. 연관되면 귀찮아지는 것, 특히 어떤 사건과 연관되면 사생활이 필요이상으로 침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습관화 되었다. 정말 이대로 두어야 하는 것인가?

○ 네가(한국사람) 그렇지 뭐

이 말은 어떤 일을 잘 하다가 실수나 잘못되었을 때 금방 비관적으로 체념하는 말 아닌가? 이 말을 남으로부터 자신이 직접 들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 **내복에 뭘~ (더 바랄까)**

약간은 겸손하면서 현실을 합리화 시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비판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모든 의욕이 꺾인 패배주의자의 마지막 말씀이 아닐까?

○ **한국 사람은 맞아야(때려야) 한다.**

때려서 시키지 말고 뜻을 심어주자. 일제시대에 말 안 듣는 우리를 일제가 한 말에 불과하다. 어느 누구도 일제에게 호락호락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심한 고문 끝에 나온 말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시대의 사람 다루는 야만적 방법이 순간적으로 효과가 좋다고 21세기에 계속 따라야 하는가!

○ **한국 사람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아야 한다).**

이 말은 한국인을 비하시키는 말로 인간관계에서 이 말에 해당되지 않는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 있겠는가! 앞의 “한국”을 빼면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말 이지 않는가! 이 말은 대부분 부정적으로 사용된다. 우리를 스스로 비하시키는 대표적인 말이다.

○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쓴다.**

음박지르는 말로 악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으로 실제 공자 앞에서 “문자 쓰면” 칭찬 받지 않을까? 이 말 때문에 정확한 용어나 과학적인 정확한 표현이 줄어들어 서로 오해하기가 쉽고 오해하면, 오해는 풀릴 길이 없지 않았는가! 어째든 지나치게 말을 막는 말이며 표현의 자유가 살아날 수 없는 말이다.

○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무엇이냐!**

자기 부하나 아랫사람에게 하는 말로써, 절망상태에 빠져들게 하는 무시무시한 말이다.

○ **공부를 못하면, 심부름(~라도) 이라도 잘 해야지!**

아! 열 받는다. 무슨 세상이 이러냐! 어찌다 이런 막말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일까! 뭐를 못하면, 노예수준으로 전락시키는 말이다. 더 큰 문제는 이 말을 부모가 자녀에게 한다. 아! 잔혹한 세상이여!

○ **옛말이 틀린 게 하나 없다.**

실패했을 때, 자책 내지 꾸지람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말로, 패배주의에 젖는다. 사안에 대하여 정확한 원인분석을 하지 않는다.

○ **한국사람은 국민성이 안 좋다.**

세상 어디든,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모두를 싸잡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 식민지 시대나 할 수 있는 말이다. 그 지방, 그 학교, 그 주민을 통 털어 지칭하는 경우는 식민지 통치 때나 할 수 있는 수단이다. 특히 반대자가 나타나면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열 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수난을 당한다. 식민지 통치시대에 쓰는 말로, 노예에게 하는 말이 아닐까! 한마디로 싸잡아서 기죽이는 말이지. 이 말은 쓰지 말고, 오히려 기 살리는 말을 쓴다고 생각해 보자. 그게 무슨 막말이야!

만약, 무슨 일이 잘못되면,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병가지상사 이거늘” 교육상 안 좋은 방법을 우리가 서슴없이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기적이고 시기하고 속이고 하는 과정에서 좋을 리가 없지 않은가. 우리는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말들로부터 생각의 완전한 독립을 해야 사고의 자유가 가능하다.

○ **한국 놈은 칭찬 해주면 못한다.**

우리를 칭찬해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다만 권모술수로 칭찬해 놓고 뒤통수치는 수법이 난무한 시대를 거친 우리는 칭찬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한다. 그렇다보니 신이 나기보다는 위축되어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잘 못하게 된다. 상처를 치유하여 우리 구성원, 국가, 민족간의 신뢰회복이 절실하다.

○ 케케묵은 책을 어디에 쓰려고

우리 것에 대한 비하의식과 온고지신의 의미, 배움이 없이 새로운 것의 맹종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역사적인 시각없이 독재가 지시하는 새로운 것만 좋아하는 것 아닌가 싶다. 과거, 현재, 미래는 연관되어 있다. 고서를 케케묵은 책이라 하는 것은 아무 책도 읽을 것이 없다와 같다고 본다. 혹시 그래서 책보기가 아까운 거 아닌가. 상식이 통하지 않는 특수사회에서 책이 인기 있을 리 없다.

○ 조급증

극단적 이기주의가 만연한 상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늦어지면 자신의 몫까지 송두리째 처리하는 세태에 젖어서 늦으면 모든 상황이 악화되므로 조급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 아닌가?

○ 빨리 빨리

한국전쟁 시 피난가는 상황에서 다급히 쫓기는 우리모습이 아닌가? 물론 급한 상황에서 빨리 결정하고 행동해야 하겠다. 일사불란이 필요한 군에서의 행동양식이라고 생각될 때 이제 우리는 기본기 있는 원칙대로 가야 하지 않는가? 성수대교가 무너지도록 서두르기만 할 것인가? 급할수록 여유를 가지고 할 때 정말로 빠르지 않는가. 도로에서 자동차들이 여우 없이 50cm간격으로 서서 길이 트이는 대로 들어간다고 “빨라지는가.” 결코 그렇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우리는 먹고 살 만하지 않았는가? 앞을 내다보고 여유를 가지고 두벽 두벽 걸어야 하지 않을까! 이제 “빨리빨리”만 외치다가는 공멸의 길을 만나면? 그 동안은 통했지만, 앞으로 계속 통할 리가 없지 않을까!

○ 지면 끝장이다.

모두가 앞잡이로 일회용으로 이용되다 보니까, 실패를 두려워하는 오직 한 번뿐 이라는 극한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았나? 전쟁에서도 “병가지상사”인데, 뭘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어! 또 기회는 있어. 이같이 마라톤 인생처럼 멀리 보아야 하지 않을까?

○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 다음에 또 있으란 법이 없다.

원칙이 없는 사회에서 집권자가 바뀌거나 제도가 수시로 바뀌는 과정에서 성취욕구가 앞선 표현이다. 불법과 부정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하는 말이다.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타당성 있는 원칙이 필요하다. 이번이 안 되면 다음 기회가 있는게 원칙이다.

○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자연현상의 이번이 아닌 불안한 인위적 변화에 두려워하고 있다. 안정되지 못한 사회에서의 앞날에 편법으로 만연된 부정사회에서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었다. 그래서 불안내지 눈치의 식이 다분한 표현으로 불법이라도 한탕 치거나, 최소한 지푸라기라고 잡겠다는 심리이다. 로마법을 누구나 따르듯이 오히려 우리 법을 공평타당하게 가다듬어서 믿을 수 있게 해야 한다.

○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일제 식민시대에 독립군이 일제의 눈을 피하여 서울에 가는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닐까? 이 말은 길이 막혀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고, “아무렇게나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식의 표현이다. 비합리적이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 목적만 달성하자는 과정이 무시되는 말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나만 잘되면 된다는 이기주의의 발로이기도 하다. “아는 길도 물어서” 지름길로 가자는 말이 있지 않은가?

○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랬다.

이 좋은 말의 반대는 “싸움은 시키고 흥정은 말린다.”는 식으로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주의가 할 수 있는 말이다. 원래의 뜻으로 사용하여 훌륭하게 어우러지는 사회로 가는 방법이다.

○ 법보다 가까운 주먹, 또는 권력

부정이 만연한 사회에서 법치가 없고, 실력 행사가 최고라는 경지에 이른 말로, 법치국가 즉,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사법권의 공정성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는 말과 같은 획일화된 사회나 GO STOP의 파생물에 해당한다. 남이 잘 되면 그 만큼 나는 안 된다는 좁은 사회(폐쇄사회)에서 가능한 생각으로 “GO STOP의 철칙”에 해당되는 말이다. 다양화 되는 현대에는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 아니고 “생각에 따라 무궁무진 하다”라고 바꾸어 생각하자.

○ 양다리 걸치지 마라. 나와 다르면 모두 적이다.

양분주의, 식민지나 독재시대의 수법으로 반대자를 가려내는 최고수법에 해당된다. 그래서 회색분자로 누명을 씌워 처단하는 것으로 한편으로는 공정한 세력 내지 중립세력의 지지기반이 없어지는 뼈아픈 획일주의만 남지 않았는가. 그러한 방법으로 적과 아군밖에 존재하지 않는 전시상황의 연속이 되거나 이념주의로 몰아서 흑백논리, 획일주의화 된 우리가 아닌가! 같은 방법으로 “이거나 저거나” 하고 확실히 적군과 아군을 가려내는 방법으로 밖에 쓰이지 못하고 있다. 주관을 확실히 하는 것이 아니라 양분하는 방법이 아닌가. 다양화된 상황에서 주관을 확실히 해야 하지 않은가? 도대체 중립도 양다리인가!

○ 이거나 저거나 확실히 해라.

그렇게 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저절로 자기 개성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눈치를 보아야 하는 곳에서 “확실히 할 수 있는 자” 누가 있겠는가! 아무 때나 확실하게 줄서기를 하라는 말로써, 미리부터 상대에게 패를 보이라는 말과 같다. 사례로 선거에서 기본 정보도 접하지 못했는데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 편에서 확실히 하라는 것인지? 중용과 중립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가장 몰상식한 말이 아닐까!

○ 과정이 어떻든 이기고 봐라.

생사가 달려있는 전시에 해당되는 말로 전쟁 또는 휴전에 있는 동안 적개심에 불타는 병사에게 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닌가? 사업, 스포츠, 오락, 모든 게임에 악용하는 것 아닌가? 공정성에 매력이 있는

운동경기에서도 모두가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즐기는 경기에서도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지름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얼마나 승리를 탐하고 있는가? 어느 상황, 어느 스포츠, 어느 오락성 게임이라도 즐기지 못하고 있다.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은 하지만, 경쟁의식에 시달려 아직은 즐기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필요이상의 경쟁의식을 어릴 적에 이미 체득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원문은 백전불태)이다.**

어떠한 상황이든 전시 상황 하에서 판단하지 않는가? 이렇게 좁은 사고로 세상을 보고 있지 않는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쓸데없이 남의 과거를 캔다. 유사시 이용할 목적으로 정진하지 않고(선의의 경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내전을 치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훌륭한 병법으로 이기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타인이 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경쟁과 견제를 하는 가운데서 무엇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을까 자문할 대목이다. 경쟁자와 적군을 분별하여 적군에게 사용할 명구가 아닐까. 말대로라면 또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시도하면 어떨까?

○ **남이야 어떻든지.**

극단적 이기주의의가 가능한 말로 자기만 잘되면 된다는 식의 소아적 성공이 만연한 사회가 되는 - 방법이 (과정이) 무시되는 혼돈시대나 가능한 것 아닐까?

○ **최고주의.**

열 번 짚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용의 꼬리는 되지 마라(어디든 머리가 되라). “하면 된다” 와 함께 이 말은 좋은 것도 최고, 나쁜 것도 최고가 되게 한 장본인(말) 아닌가. 이제, 서로 이해하고 공존의 세계로 돌아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최고만이 살아남는다는 전시상황이 아니고, 2등도 살고, 3등도 그에 맞는 역할이 조금 다를 뿐이다. 같이 공존하면서 영원한 최고도 없듯이, 서로 힘이 될 수도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의 최고대학에서 성적부진으로 자살하는 최고주의는 없어져야 하지 않는가?

○ **교육결핍.**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듯이 우리교육은 정말 필요한 것은 가정에서 이미 다 버리고 학교를 보내는 국면이 아닌가 싶다. 자신의 자식만이 성공하라는 이기적이고, 비사회적인 말로 키운다. 부정적인 가정과 사회 분위기 속에서, 좋은 인간성 교육은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기주의는 보다 심한 이기주의를 낳는다.

○ **~가 밥 먹여 주냐? (주로 공동의 일에 해당)**

신호등 지키는 것이 밥 먹여 주냐? 자연보호가 밥 먹여 주냐? 이런 말을 해왔다. 사실은 더 심한 말로 했었다. 그렇게 “너는 밥 먹여 주는 일만 한단 말인가?” 그렇게 굶주렸단 말인가! 밥 먹여 줘야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노예가 할 짓 아닌가?” 아주 직접적으로 이익관계가 있어야 개입한다는 발상으로 기아선상에서나 나올 법한 말 아닌가? 이 말은 공익에 관계되는 것에 참여를 방해하고 피지배자가 패배주의에 젖어, 체념에 빠진 상태에서 전체는 완전히 잊고 우물안에 빠져서 허덕이는 고립된 이기주의자의 자화상이 아닐까!

○ **총대 맨다.**

전쟁에서 용감한 병사 모습의 환영으로 총으로 끝까지 고지를 지키는 시각으로 일부라도 (한발이라도) 물러나면 쫓대가 없는 것으로 전락하여 어떻게든 혈투어 최선을 다하는 대표도 끌어내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죽음으로 호소하는 독립투사의 환영 속에 “다른 모두는 변절자 이다” 라는 시각으로 타협은 (목표를 잃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패배자로 (쫓대 없다)로 생각하는 버릇은 죽을 때까지 고칠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런 마음은 자칫 편협된 생각으로 흑백논리에 빠지기 쉽다.

○ **타협(부탁)해 오고 이것을 뺏어왔다 한다.**

저자세를 비굴하다고 외면하는 가운데 부탁도 험오하고 있어 부탁해 얻어왔다는 패배를 상징하므로 빼앗아 온 것으로 한다. 오랫동안 저 자세에 익숙하여 이제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과 자신의 영웅적

표현으로 세상사람에게 부탁마저 못하는 자존심이 된 것인가? 세상일은 분명히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 괴로워도 슬퍼도 억울해도 분해도 기뻐도 한잔.

한잔이 ‘적당하게’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술로 기분을 돋우는데 필요한 것이지 무엇을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는데 너무들 마시는 것은 아닌가? 이성을 죽이다가 우리가 죽는 것은 아닐까! 국민을 위한 독립국가가 아닌 사대주의, 독재정권의 나라가 되고부터 된 이후부터 국민은 술 먹는 자유밖에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 남 보면 부끄럽다.

무엇을 해도 일제의 눈을 피해야 하고 남 앞에서 떳떳이 할 수 없는 생활 끝에 급기야 휴지하나 줍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하게 되었다. 별 것을 다 부끄러워 당연한 것도 용기가 없어지고 말았다. 휴지 한 장도 어깨에 띠(환경보호) 두르고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가능한 일로 전락했다고 할까? 지구를 가꾸는 것은 그만큼 아름답다. 좋은 일은 자랑스러워 해야 할 일을 아니지만, 좋은 일은 눈치와는 다르게 실천해야 한다. 자신있게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남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면 되고 그다음은 자신의 가치기준에 따르는 것이다. 무엇이 부끄럽다는 말인가?

○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전쟁 시 기선제압용 무기와도 같다. 싸움판에서 위풍당당하게 꾸짖어 상대를 위압하는 무기 아닌가. 하지만 지금도 싸움판이라 생각되는가? 천천히 알아보고 원인결과를 따져도 되는 우리들의 세상 아닌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책은 정답이 없는 경우가 많다. 싸움판에서는 상대를 눕혀야 하지만 서로가 옳은 길을 찾아가는 것(타협의 길)은 모두 즐겁지 않은가!

○ 인생은 짧고 굵게.(화끈병)

화끈하게 산다.-- 전쟁에서의 우리모습, 굴복은 곧 패배를 뜻하므로

‘부탁’에 해당하는 쪽만 해도 인정할 수 없어 당연히 ‘고맙다’는 말은 사라져 간 것이다.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어우러져 사는 사회를 그리워하면서도 전쟁후유증의 화끈한 불 때문에 아직은 어려운 것 같으나 곧 식어지니 안심하고 서로 도와주며 살자. 추운사람에겐 화끈하게 뜨거운 사람에겐 시원하게 또한, 미지근한 것이 좋은 때가 있음을 인정하면 어떨까? 도움 받는 것을 수치로 생각한다. 워낙 없어서 도움을 받아 본 경험이 싫은 것은 아닌가? 이견과 반대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이견만 내 놓으면 반대자로 낙인 찍힌다. 이견을 조정 내지 수렴하여 보완하여야 되지 않은가? 이견도 우리 편이라는 것을 염두해 두자.

○ 법대로 해라.

법대로 해라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듯 하지만 최악의 경우에 우리끼리는 도저히 해결을 못하니 법의 해결책을 맡기는 것으로 법이라 해서 그렇게 훌륭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법의 번거롭고 비합리적인 요소를 아는 악당은 특히 이 말을 악용한다.

○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까마귀 울자 배 떨어진다”와 비교하면 어떨까. 전혀 다른 것인가. 남성중심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약하기는 하나 서로 토의 끝에 결정을 하게 되지만 남자가 여자의 발언을 막기 위한 멋진 듯한-가혹하고 억지 같은 표현은 아닐까. 각자 흩어지면 집안이 망한다는 어떨까. 그리고 암탉은 옛날부터 울어왔다. 즉, 적절한 비유도 아니다. 암탉이 울면 지극히 정상적인 닭 세상이다. 이상이 있으면 암탉은 큰 소리로 수탉을 부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말은 까마귀 울자 배 떨어진다와 같이 상당히 우연한 일에 지나지 않는 것을 진리같이 적용시켜 모두가 고생길에 빠진 것으로 추측하면 어떨까. 애매하게 고생하는 암탉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극단적 이기적인 사회에서 성공의 가치관도 획일적인 집단에서 아무

거나 시기하는 피해의식의 발로 아닌가. 내 성공(목표가)이 돈버는 것인가? 의식의 수준에서 시기와 질투로 가득찬 상태에 나온 말이다. 자 이제 수준을 높이자구요. 혹시, 알아 좋은 사촌 만나면, 어떻게든 도움도 받을 수도 있어서 좋지요. 함께 행복하게 살아도 돼요! 조금 더,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제 긍정의 힘도 있지요.

○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어(금전 만능주의)

성공의 척도가 황금으로 너무나 획일화된 사회에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억지를 부리는 세상이 되었다. 가치관 상실의 결과라고 할까? 절대음정이 있듯, 절대 가치관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향하여! 한발, 한발, 오! 나국민이여! 배우면서 도전하고 실천하시라!

○ 배 째.

남의 물건을 훔치고 발견되면 나를 죽이라는 식이다. 작은 잘못을 해 놓고 책임 추궁을 하면 나를 죽이라는 뜻이다. 일종의 과도한 배짱이지만, 매우 비겁하고 무책임한 사람이, 사람의 인정을 악용하는 방법이다.

빵 하나를 훔친 자를 “배 째”라고 하면 “배를 찢 자가 누가 있을까?” 빵 값만 물어 달랬지, 배 찢다 하지 않았거든! 이 비겁한아!

○ 욕을 얻어먹어야 오래 산다.

욕을 얻어먹을수록 지옥에서 즐거워하고 있다. 키워서 데려가려 한다고 생각되지 않나? 그리고 이 말은, 그렇고 그런, 나쁜 놈들이 끼리끼리 합리화 시킨 말에 불과하다. 전체를 생각하면, 사회공공성을 포기하고 이기적 삶을 선언한 악당들의 패가망신의 말이다. 이래도 욕먹으며 살기를 원하시는가요?

○ 잃어버린 놈이 죄가 더 크다.

그 동안의 도둑의 마음을 위안시키고 마음 편하게 살게 한 말이 아닌가. ‘건물생심을 제공한 사람이 나쁘다’라는 것은 사람 앞에서 물건은

챙기지 않았을 때 해당되는 말이다. 하지만 때로는 악용되어 길에 흘린 것이 아닌 무단 침입하여 훔쳐간 것까지 이 말을 적용한다는 것은 도둑을 키우자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일제나 독재자가 누명을 씌우는 말에 해당한다. 너무 악의적이지 않는가? 물건관리를 안 했을 때 해당되는 말이나 남의 실수를 아량으로 봐줄 수는 없는가! 물건을 관리하지 못하였다면 그 사람도 어느 정도 책임이야 있겠지. 하지만, 어찌 악당보다 잃어버린 사람을 나쁘다고 하는가? 강도나 도둑을 당해도 잃어버린 사람의 잘못이라 할 수 있는가? 원칙이 있고 말이 되는 것을 가치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도적의 말을 철칙처럼 사용하면, 도둑놈 심보밖에 되지 않는다. 정상적인 사회에서 이런 말이 어떻게 좋은 판단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

○ 남들도 다 하는데, 남보다 떨어지면 죽는다.

피지배시대와 전쟁시대 즉, 주관이(객관성이) 필요 없이 집단주의가 주위 여건을 살펴야 할 때의 행동철학이 아닐까. 과외도 하고, 쓰레기도 아무렇게나 버리기도 하고, 나쁜 일도 대중무리만 따르면 안심하는.... 자신의 가치관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개인 스스로 가치관 교육이 그토록 어렵단 말인가! 사회변화는 결국은 교육으로 돌아간다.

○ 주는데 안 받나.

준다고 다 받는가. 독이 든 줄도 모르고, 준다고 다 받다가 시한폭도가 되는 것을 6공 청문회를 통하여 모두가 경험하지 않았는가! 아직도 뇌물의 유혹을 물리칠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현실! 정부는 공직자의 청렴도에 승부를 걸어야 이 부패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 목표가 국가체제 민주주의였다면, 이제 하위수준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행되려면 공무원의 부패청산이 되어야 한다. 솔직히 말해, 부패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듯이,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할 수가 없다. 불가능한 말이다.

○ 빌린 책은 안 주어도 된다.

빌려보려 책 안 산다(쓸데없이 인색해지고 있다). 먹는 죄는 죄가 아

니다.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 음식도둑은 도둑이 아니다.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 이 말은 심각하게 가난하여 정말로 기아선상에 허덕이던 시절에, 살기 위한 생계형 절도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같은 수준의 생활형편에서는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아깝고 마음이 아픈가? 먹는 죄는 죄가 아니다. 이 말도 기아선상에 처한 경우처럼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도둑이 아닐 뿐으로, 상당수의 이기적 행위는 타인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좀 도둑이 발전하여 책을 훔쳐서 한 탕(돈) 치려고 하는 엄연한 도둑놈도 있는 것이다. 사람의 인권에 해당하는 생명을 지키려고 한 행동에 한하여 정상이 참작되는 것이다. 나머지는 동정을 가장한 이기적인 범죄일 뿐이다.

○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 원칙이 없다.

돈과 권력으로 온갖 부정부패를 상징하는 말로서, 돈이면 다 된다는 말을 돌려보면 어떨까? 같은 동격의 말이 아닐까! 두 번 다시, 돌아보기 싫은 말이다.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사람답게 사는 사회! 우리세대에 떨어진 과제가 아닐까?

○ 일리가 있다. 그러니 해도 된다.

우리는 대부분 일리가 있다고 명분을 내세워 마구 몰아붙여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일리가 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따르라는 말은 아니다. 일리와 진리의 구별. 일리는 일리일 뿐, 모든 행동의 가치기준으로 해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일리는 상황에 맞게 따르고 진리를 가치판단으로 따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가치관 교육이 절실하네요.

○ 인간의 약점을 이용하여 나쁜 행위로 끌어들인다.

- ▷ 썩을 몸 아껴서 뭘 해! → 그러니 내 말대로 해라.
- ▷ 죽고 나면 뭐해!(그만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젊어서, 한 탕 처야 한다.
- ▷ 한 평생 젊을 줄 아나!(악용되는 경우) → 하고 끌어들인다.
- ▷ 잘난 척 하지 마! → 옳은 행동을 하면 이 말로 막아버린다.

- ▷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악용되는 경우). → 나쁜 일에
가담시키기 위하여 위의 말로 끝없이 인간의 약점을 파고든다.

○ 왕 따! 현상 등 폭력(청소년의 또래 집단의 이질화에 대하여)

왕 따에 대하여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너희를 너무 이기적으로 키운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어른들은 자신의 자식만 잘 되기를 바라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구나. 미안하다. 어른들을 용서했으면 한다.

청소년이여! 모두가 이기적으로 행동해서는 좋은 세상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행위! 불의!를 버리고 정의로운 세대가 될 수 있다. 정의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정의는 인간의 본능이다. 정의를 가려내지 못하는 세상은 가장 불행한 시대라고 확신한다. “너희는 이제 방향을 바꾸었으면 한다.” “물질이 풍부하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 그렇지 않니!” 앞으로 너희들 청소년의 시대가 될 터인데, 어떤 세상을 꿈꾸고 있니? 청소년이여! 자신이 좋은 뜻이 있다면, 그것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너희들 멋있는 세대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만약, 어느 청소년이 내 뜻에 대하여 대화조차 하지 않고 “왕따”를 한다면, 서운해 하지 말았으면 한다. 그것은 이미 내가 원하는 또래가 아니지 않는가! 일종의 악한에게 따돌림 당한 것을 외로워 말라! 외로움 때문에 나쁜 모임을 참여하는 것과 같지 않은가? 따라서 그럴 때는 “이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 보답해 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어떨까? 나는 좀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지. 어때니!

청소년이여! 세상은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 만약, 힘센 친구가 친구를 괴롭히면, 그대로 참지 말고, 힘센 친구에게 줄서기 하지 말고, 옳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서로의 힘을 합쳐서 나쁜 행동을 막았으면 한다. 아무리 힘이 세도 2~3명이 힘을 합치면 혼자서 당해내기 어렵기 때문이지.

우리 미래 청소년이여! 미래는 너희들 세상이지 않니!

너희가 좋아하는 세상을 꿈꾸었으면 좋겠다.

어른들이 만든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너희들 세상은 너희가 꿈꾸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니.

○ 인간의 불평등으로 파생된 불합리 의식들<남녀관계>

▷ 결혼은 인륜지대사 : 여자에게 있어 결혼은 남자보다 강조된다. 분명 결혼은 여자나 남자에게 있어 중요한 일에는 틀림없으나 여자에게 있어 인생의 전부처럼 강조되고 강요되어 가정을 지킨 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공헌도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인생의 전부라고 의식한 상태에서의 결혼이라는 인생최대의 관문은 너무나 많은 부작용이 있어왔고 앞으로 계속 역기능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말뜻 그대로 인간에게 큰일이므로 중요하고 신중하게 선택되고 생활할 뿐, 인생전부라는 올라미 같은 고정관념은 떨쳐버려야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여자는 시집을 잘가야 팔자 고친다.’ 등이 한 몫한 것이다 : 장가 잘가 팔자 고친다는 가끔 있지만 그렇게 여자의 경우와 같이 강조되지 않는다. 남과여, 여와남에게 시집간다, 장가 간다로 동등하고 균형 있게 표현되어 이루어 가야하지 않을까! 세상의 반은 여자이다. 여자도 이제 평등의 눈을 뜨지 않았나! 아니 반이 아니어도 배려해야 하지 않을까! 불합리의 시작은 여와남의 생각부터이기 때문이다.

○ 남존여비사상(남아선호사상)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말은 남자는 절대적 존재, 여자는 부수적인 존재로 된 듯하다. 이렇게 차별되어오던 남존여비 사상은 근대의 남녀평등의 태동기를 거치는 듯하다가, 성경의 갈비뼈사건으로 논의 여지없이 완벽하게 마무리 되었다. 남자는 하늘이라는 최대의 책임을 받았으나, 책임보다는 권위만을 강조하는 경향이고, 여자는 책임(경천사상)만 강조하는 경향으로 흘렀다. 즉, 남여가 상대적, 상호보완적이 아닌, 일종의 작은 절대자와 보조자의 역할을 하여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현대에 와서 많이 희석되었지만, 절대자는 제외하여 놓고, 경쟁자를 여성끼리만 정해놓았으며 고부간의 갈등과 여자끼리의 시기, 비하하며 비교되었다. 또는 남자 중심에서 “여자가 뭘! 여자만 아니었으면! 남자로 태어났다면!” 여자로서는 독립적으로 능력있는 인간으로서 인정받기 어렵게 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가정문제로 예를 들면 남자는 문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장으로서 체면과 권위가

손상당하면 집안 망신이니까.

남자는 말로 안 되면 폭력이 있다. 하지만 맛있는 양심의 힘이 새어나가고 있다. 그 순간부터 양심은 힘을 잃고 있다. 이 번 한 번만 하고 사용하지만 그 다음은 폭력밖에 남은 힘이 없다. 이런 저변의식에 편승해서 악한 남자는 여자를 쉽게 유린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말들이 오고 갔다.

- ▷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 ▷ 여자는 사흘에 한 번씩 때려야 한다.
- ▷ 여자와 북어는 때릴수록 맛이 난다.
- ▷ 시집 귀신이 되어라. 여자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너무나 가혹할 때가 있지 않은가?
- ▷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집안에서 여자는 필요 없다(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에서 무력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문명이 발전하여 힘으로 해결할 시대가 지나가면 힘이 아닌 마음이 더 필요할 텐데. 그 때는 남자는 구경하고 있어야 할까!

2.4.2. 우리는 이제 긍정의 세상으로: 긍정적인 말

사람은 언어로 행위가 결정되고, 일상의 언어가 그 사람의 가치관을 결정한다고 할 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말을 사용하여야 할까? 우리 속담과 격언으로 우리 의식을 좋은 방향으로 작용한 말과 우리가 구해야 하거나 악의 근절을 위한 문구를 좁은 소견으로 제시해 보았다. 어쨌든 우리의식을 이롭게 하는 긍정적인 말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앞의 1.4. 명언감상 참조>

○ 속담과 격언

- ▷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 ▷ 진인사 대천명.
- ▷ 사필귀정.
- ▷ 세월이 약이다(악행을 하고 상대방에게 강요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 ▷ 길고 짧은 것은 재보아야 안다.
- ▷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 될 수 있다.

- ▷ 쥐구멍에도 별들 날이 있다.
- ▷ 아는 길도 물어서 간다.
- ▷ 하늘이 무너져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 ▷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 ▷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가야 한다.
- ▷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 ▷ 하면 된다. 옳게
- ▷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 ▷ 구슬이 서(셋)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 ▷ 시작이 반이다.

○ 제시한 문구

- ▷ 똥은 더러워서 피하지만 그릇된 일은 피하면 무섭게 변하여 되돌아 쫓아온다. 더러운 것과 그릇된 것은 다르다.
- ▷ 남의 일이 우리 일이 될 경우가 많다.
- ▷ 세상사는 우리 일이다.
- ▷ 겉보고 속 보아야 알 수 있다.
- ▷ 우리는 하나.
- ▷ 확인하는 일에 화내면 우리 편이 아니다.
- ▷ 우리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흐뭇한 일이다.
- ▷ 확인하여 확신하라.
- ▷ 약한 자를 괴롭히는 자는 우리라 할 수 없다.
- ▷ 나쁜 일은 모두가 막아야 경찰이 잡을 수 있다.
- ▷ 나쁜 일은 무관심을 좋아하고 무서운 일은 간섭하지만 하고 시작한다.
- ▷ 악당은 농담으로 방심시키고 진담으로 협박한다.
- ▷ 좋은 말을 악담으로 바꾸는 자는 충신을 모함하는 것과 같다.
- ▷ 거짓은 겉으로 유혹하고 속은 믿으라고 한다.
- ▷ 믿어 달라 되풀이 하지 말고, 진짜를 보여 믿게 한다.
- ▷ 믿음은 의심이 풀리면서 서서히 오고 오래간다.
- ▷ 가짜는 빨리 믿어 달라 졸라 댄다. 진실은 믿어 줄때를 기다린다.

- ▷ 진실은 확인 받고 이해시키는 일을 즐긴다.
- ▷ 진짜는 대부분 서두르지 않는다.
- ▷ 영원한 최고는 없다. 다만 최선을 다 할 뿐이다. 최선을 다하는 길에 중간과 때때로 최고에 다다를 수 있다. 승패로 비교하면 병가지상사다. 최고만이 살아남는다는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것과 같다. 일에서는 최고와 그 이하가 공존하는 경우가 많다.
- ▷ 모든 혈연관계를 떠나 폭력은 감시하여야 한다.
- ▷ 애정관계도 폭력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 ▷ 남녀관계에 있어서 폭력으로 해결하는 것은 사회문제로 된 것이다.
- ▷ 싸움이란 말을 너무 남용하고 있다(투쟁의 시대가 계속되긴 했지만). 이견만 있어도 싸웠다고 하니까 이견은 당연히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에게 적대시 한 것은 아닐까? 대화를 하였다고 하다면 이런 의미가 아닐까?
 이견은 다양성(객관성)의 시작이다.
 세대차를 줄이는 자가 앞서간다.
 자랑과 겸손의 멋진 균형은 서로를 필요로 하게 한다.
 공정한 가운데 아름다움이 있다.

2.4.3. 아름다운 세상은? 자연스런 대화로부터!

현실은 올바른 과거 이해를 통하여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다. 또한 정확한 현실직시만이 미래를 발전시키고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은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인간의 환경은 자연환경, 시대적 환경, 전통적 관습, 일상 언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중에 일상 언어는 인간에게 가장 가까이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속할 것이다. 일상 언어의 대화 내용을 분류해서 개선 점을 다음과 같이 간략히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현대는 대중문화시대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용언어의 억압적인 말로부터 벗어나

- 폭력적 언어를 비폭력언어 또는 상대방이 피해(상처)없이 받을 수 있는 말로 개선 또는 사용 안하기
- 불평등 관계적 언어(거부감정성 언어, 주종관계언어)를 평등내지 상대를 존엄한 언어(존칭어와 구별) 동등한 언어로 개선
- 비합리적 언어를 합리적 언어로 개선하여

국민 모두가 아름다운 대화가 있는 세상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기를...
이런 세상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아닐까!

이 세상이 아름답게 되려면? 사랑, 용서, 정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마치 행복한 가정처럼!

2.5. 지역감정의 해소, 이념갈등, 화합의 길

: 국민이 총화, 화합하기 위하여 어떠한 것이 합의되어야 할까? 지역갈등 속의 이념갈등! 이념갈등 속의 지역갈등! 이어지는 세대갈등! 갈등의 개념과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의 공약은 바로 직결되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과연 정부는 국민이 여러 가지 갈등의 이유를 알리고 학습의 의지가 있는 것일까? 모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이 차단된 상태에서 국민의 생각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은 한마디로 미친 짓이다. 이 말은 아인슈타인의 미친 사람의 정의와 똑같다. 국민에게 절실한 것은 우리의 현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이유와 이에 대한 개념정리와 이해일 것이다. 우리는 화합의 수순을 알고 있는 것일까?

- **우익단체님:** 우선, 보수가치를 성찰해야 기본적으로 글로벌한 체면이 설 것 아닐까요? 민족을 위한다고 독재에게 이용당하지 않는지? 국가를 위한다고 독재에 이용당하지는 않는지? 정의를 실현한다고 독재자에 이용당하지 않는지? 그들이 목표를 정하고 추진과정을 보아야 하지 않을까? 목적만 좋으면 과정이 생략되거나 과정이 무시되어도 된다는 논리는 아니지 않을까요? 특히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사관 문제가 청산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제앞잡이로 참여한 사람이 대거 정부요직을 이어온 정부시각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의 반공논리는 투명화된 과정이 생략되어 신뢰성이 미흡하다는 것을 보아야 하지 않을까? 보수의 기본정신을 전수해야 하는데, 어떤 보수 가치를 누가 전달하는지요? 교수, 언론인, 목사! 우리가 이분법적 사고를 개선하지 않는 한, 반공을 이용하는 북풍세력 주동자, 즉, 독재자의 희생양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경계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 독재자와 앞잡이는 과거 님들의 상처를 이용하는 교활한 이기주의가 아닐까요? 우리는 우익단체든, 좌익단체든 모두 피해자입니다. 625동족상잔, 그 후의 수많은 간첩사건과 이념적 사건으로 심신의 상처와 피해로 마음이 아프시지요. 그 상처 때문에 남아있는 보복성 생각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겠지요. 그 상처는 잘 치유되지 않거든요. 과거 남북의 이념문제로 입은 피해에 대한 생각은 치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성적 비판과 구별능력이 필요한 시기라

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님들을 위해서도.... 또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북한에게 피해를 많이 입었지만, 좌익관련 사람들도 우리 국민이고 우리 민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좌익인사들이 국가와 민족에 해를 끼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북한 공산당에 피해를 입은 것이지 우리나라에 있는 좌익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좌익인사는 오히려 반국가 행위도 하지 않았으나 독재세력에 피해를 당한 기록이 많습니다. 좌익인사의 일부는 독재자에게 빨갱이란 모함으로 죽어갔습니다. 즉, 좌익과 북한은 구별하여야 오해를 하지 않고 우리 국민의 화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좌익단체님:** 과거 피해의식과 이념갈등의 충돌경험이 있다. 이것에 대한 적절한 현실적 정리가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극우세력은 반공에 대하여 민감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들은 조금만 이상해도 오해를 하는 사람입니다.

- 서울, 경기도

: 한민족, 서울, 경기도는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서울시와 경기도민이 되어야 합니다. 서울 경기만을 위하는 이기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거는 이 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기회입니다. 그 과정에서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의 저속한 분열주의로 국민이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선거는 선거일뿐 국민이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열을 조장하는 과격한 언행과 선거 이후에도 마치 원수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기존의 정치에 절망하여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기존의 정당에, 기존의 정치인에 기대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조금 더 밝은 세상을 꿈꾸면서 절망한다는 사람에게 말기는 꼴입니다.

그것을 원하셨습니까?

선거는 구태에서 벗어날 좋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면 권력의 틈바구니에서 헤어날 수 없는 하나의 피지배자일 뿐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서러운 울나라의 특별한 상황을 별처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노래합니다. 경기도는 경기는 경기가 좋은 것이 이어지고 기술과 기운을 듬뿍 담아서 우리나라를 도술처럼 멋있는 나라로 커나가는 것이 희망입니다.

- 강원도

: 한민족, 아름다운 강산의 고장! 우리나라의 자존심 강원도! 우리나라의 휴양지! 전국민의 스트레스를 받아주는 산천! 남북의 대치로 나타나는 남모를 부담감을 인내하며 가꾸어온 강원도민! 우리나라에서 경상도와 전라도가 지역감정으로 싸우는 것을 보면 답답하외다. 무슨 영화를 보려고 그렇게 싸워야 하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거 정권이기주의의 소산으로 나타난 50년 이상 강원도의 무대접을 이해하여온 진국의 민심! 이제와 강원도가 소아적으로 갈수도 없지만, 아래지역의 싸움으로 윗 지역까지 불뚝튀는 강원도가 아닌 동생의 싸움을 화해로 이끌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옛날의 고구려처럼 형님이 되지 않을까요. 경상도와 전라도가 서로 지역감정을 훌훌 털어버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강원도에서 경상도와 전라도를 강제로 원한을 도인처럼 화해를 시킬 것입니다. 경상도는 전라도를 용서하고 전라도는 경상도를 용서하시기를....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선 나를 위함입니다. 그러면, 사실, 상대도 나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자! 이제 부족한 것은 서로 연락하며 살기로 하고, “강원도” 삼행시로 마무리 들어가지요. 강원도는 강물처럼 여유롭고 아름답고, 풍요로우며, 원점으로 돌아가 한반도의 주인으로 세상을 도와가며 고구려의 기상을 떨치며 살리라.

- 제주도(제주특별자치도)

한민족, 세계의 아름다운 탐라섬나라! 자연이 숨 쉬는 우리나라의 관광 자존심! 우리나라 분단역사의 현장! 그 상처가 아로 새겨진 슬픈 43사건의 고장, 국민 마음의 휴양지! 우리나라의 지역감정을 해결하는 행복의 근원이 될 것이기에 우리는 희망의 섬이라 부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가 작은 섬 도시이지만, 주인으로서 도민은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국의 1%의 지역(땅도 인구도..). 따라서 전국의 시험무대가 되는 곳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되었지요. 43과 43으로 이어진 연좌제로 정치권의 눈치만 보던 도민은 그래서 “놈이 대동” 이라는 남과 똑같이 하겠다는 생각이 같고 그래서 “권당”(친척)문화가 자리 잡아 인정과 용서가 지나쳐서 정치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곳이 되었지요. 43과 강정 해군기지라는 도민을 분열시켜 치유가 참 어렵습니다. 번번한 기업체도 없어 관광으로만 먹고살아야하는데 그나마 계속되는 개발로 제주도민의 설 땅은 점점 없어지네요. 도둑없고 거지없고 대문없다는 삼무의 섬에서 끔직한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것은 제주의 옛 정신이 없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43 문제를 해결하려하지 않고 용서와 화해라는 포장지로 덮으려고 하니 제주의 갈등은 계속 심화되는 것이라 생각되네요. 자! 이제 부족한 것은 차차로 연락하며 살기로 하고, “제주도” 삼행시로 마무리 하지요. 제주도가 작은 섬도시이지만, 어려울 때마다 나라를 지킨 한반도의 주인으로서 도민은 도인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 충청도

1) 국민생각: 한반도 시각의 충청도 역할? 한민족, 충절의 고장! 선량 인심의 고장! 분단된 대한민국 이후, 충청도는 우리나라의 중심입니다. 지리적으로 중심이고 마음적으로도 중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지역감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아 지역감정을 치유하는 고장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중심을 잡는 균형추가 되어 아시아의 중심의 대한민국으로 발전하는 근원이 되시기를... 충청도는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홍익인간의 인류이상을 청운의 꿈으로 이루어지도록 도전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충청도 사람은 선량하며 신중합니다.

2) 도민생각: 충청도민의 생각? 지역감정!!!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실까요. 참말로 나, 선거 때, 영호남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당에 80~90%투표하였다는 결과를 보잖여. 한편으로는 저 사람들은 “왜 그러지” “저러면 안 되지.” “여기가 공산주의야!” 하면서도 어떤 때는 “저 사람들 단결력이 대단하다”고 하면서 “우리도 저래야 하는 거 아녀유!” 하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지역주의로 실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논리에 도민이 피해의식이 생겨서 몰표놀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막차타는 결과가 되겠쥬. 만일 영호남처럼 지역몰이 투표를 하면 3갈래로 갈라지고, 경기도가 갈라지고, 강원도가 가세하면 5갈래로 패거리 투표하면? 제주도는 가만이 있겠나! 총체적 불열국가가 되어서 지방국가가 되겠쥬. 아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유. 중세시대가 따로 있나유? 지역패권 정치이쥬. 지역패권 국가가 중세국가 이쥬. 뭐! 중세나라가 따로 있남유. 그렇게 되면 쪽팔리는거 아녀유. 그러면 나라꼴이 뭐가 되겠쥬?

애향심이야 단결해야겠지만, 정치인 선거는 거의 개인 자유권 문제아닌감! 그걸 가지고 조직폭력배처럼 조직투표하면? 그게 국민이유, 조폭이지!

우선, 지리적 중심인 우리가 중심을 잡고, 경기도 잡고, 강원도 땡겨서 고쳐보심이 어떨까요?

이렇게 자꾸 땡겨 뭉치면? 이러다 우리도 조폭 되는거 아닌감!

아따 이사람! 걱정도 팔자여! 자고로,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랬다고! 걱정은 하덜 말고라고!

그건 그렇고, 이 지역감정!!! 어찌보면, 이건 싸움도 아니라고!!!

이정도 말하면, 그들도 생각이 이것쥬! 자! 이제 부족한 것은 서로 도와가며 살기로 하고, “충청도” 삼행시로 마무리 들어가지유. 충청도는 충심으로 우리나라의 홍익인간의 인류이상을 청운의 꿈으로 이루어지도록 모두가 도전하는 마음으로 살아유~.

- 전라도

한민족, 백제의 모태지역, 임진왜란 때, 곡창지대를 지켜 종국에 나라를 구해낸 핵심지역! 군부정치에서 민주정치로 진입을 일구어낸 518 혁명의 민주화 성지. 예향의 멋과 전통이 깃든 도시, 김대중님이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 함께 펍박을 받으면서 기어코 김대중을 대통령을 만들어낸 의지의 고장, 고향사랑. 전라도와 경상도는 개개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는 전혀 지역감정이 없다고 할 수 있지라압. 다만, 선거과정상 정치가의 분열주의의 선거도박에 의하여 애매하게 민심만 찢겨진 거랑게요. 이제 온전한 나국민으로 돌아가 정책대안이 아닌 지역분열로 선거를 하려는 후보자!를 과감하고 쿨하고 치밀하게 낙방시키면 지금의 분열된 지역감정은 국민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당게요. 사례로 말씀드리면 올림픽 대표선수를 선발한다고 생각해보잖게요. 그런데 학연지연 때문에 진정한 대표선수를 뽑지 못한다면 올림픽대회의 본선에 가서 어떻게 되건냥게요! 정치지도자도 마찬가지로. 국민이 행복하려면 올바른 지도자를 계속하여 뽑아야지랍. 자격미달 정치가끼리 나눠 먹기식 정치판을 바꿔야 하지 않겠시요. 4대우상을 비롯한 각가지 우상을 타파하고 지역우상도 깨끗이 청산해야 신바람나게 어우러져 살아볼 것 아닌가봐요! 이 책을 읽어보고 국민의 권리를 찾고 나서 우리나라를 국민을 위한 나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시요. 내 자식은 우리와 똑같이 고생시키지 말아야 되지 않겠시요.

선거 때마다 전라도와 경상도가 특정정당에 90%이상의 지지를 보이면 다른 지방에서 도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요? 타도지방 도민도 우리도 우리지방을 위해서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상상해 본당게요. 다만, 그러면 안되지 하고 마음을 돌린 뿐이지랍. 지방마다 이렇게 몰표로 경쟁을 하면 어떻게 되겠시요. 전라도와 경상도가 선거 때마다 정치가의 지역주의에 몰표선거를 하면 타지역에서도 질투를 하게 된당게요. 이제 더 이상 계속되면 타지방에서도 피해의식이 생겨 지역몰표현상이 가속될거랑게요. 지역주의에 사로잡혀 마음이 분열되면 민심분단이 되어 어찌면 국토분단 까지도 확산될 수 있는 현상이랑게요. 중국의 팽창주의와 반대현상으로 이것은 강대국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현상이지랍. 이대로 되어야 하겠시요! 국민은 화합의 시점을 찾아야

한당게요. 두 지역이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화합한다면 통일도 멀지 않
지라압. 자! 이제 부족한 것은 서로 도와가며 살기로 하고, “전라도”
삼행시로 마무리 하지라이. 전라도는 전국을 돌면서 사람답게 사는 맛
깔라는 이야기와 라면처럼 부드러운 예술의 물결로 이끄는 것이 도리
라고 생각허요.

- 경상도

한민족, 신라의 모태지역, 625 동족상잔 때 마지막 보루로 역전의 모태가 된 땅, 전통이 살아있는 청학동, 박통집권시절 요직으로 경상도를 잘 알린 사람, 갯상도의 자존심, 고향사랑. 하지만, 지역주의는 아니더라. 우리나라가 맨저고 그 담이 갯상도이제, 갯상도라 해서 갯상도 사람만의 것은 아니잖아. 전라도 땅도 우리나라이고 갯상도 땅도 우리나라잖아. 옛날처럼, 좀 더 통 크게 고구려의 후손, 고조선의 후손으로 말아야. 나는 개인적으로 신라의 후손은 갯상도 사랑은 애향심 차원에서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대. 우리가 계속하여 이렇게 작게 갈라 질수는 없지 안는가! 갯상도 친구여! 어떻게 생각하는교?

지역감정! 누가 지역감정을 이용할까? 정치가! 분열책동가!

정치가가이겠지. 분열책동가는 따로 있는 게 아니제. 처음부터 지역분열을 시키려고 한 것은 아니겠지. 자신의 지지표를 얻는데 있어, 정책대결을 하지 않고 꼼수로 지지세력을 만들려하다가 보니개노 지역감정을 이용하게 된 것이아니가. 처음부터 분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보아야겠지.

그러면 지역감정은 누구에게 유리할꼬? 장기적으로 당연히 보면 모두가 손해인기다. 이것을 정치가가 자신의 표몰이를 할라고 나눠먹는 게 아닌가? 아니, 정치가가 정책대결은 하지 않고 추잡스럽게 사람을 이간질을 이용하여 자신의 지지세력을 만들려고 한다 아닌가! 그러니까 정책대안도 없이 정치를 하겠다는 게 문제이지. 저질적인 이분법적 지역대결로 만들어 이득을 보려는 생각이제. 이것은 정치가 아닌 망치라고, 이들이 국민을 무엇으로 보길래 이따구로 천박한 짓을 하는겨? 그들이 과연 정치가의 자질이나 있는 것일까? 근본이 잘못 되었다고 본다. 이제 온전한 나국민으로 돌아가 정책대안이 아닌 지역분열로 선거를 하려는 후보자!를 과감하고 쿨하고 치밀하게 떨어뜨리면 지금의 분열된 지역감정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끼다. 사례로 말씀드리자면 올림픽 대표선수를 선발합니다. 그런데 학연지연 때문에 진정한 최고대표선수를 뽑지 못한다면 올림픽 본선에서 어떻게 되겠는교! 정치지도자도 마찬가지겠제. 국민이 행복하려면 올바른 지도자를 계속하여 뽑

아야 하겠제. 현재의 자격미달 정치가끼리 나눠먹기 정치판을 바꿔야 합니데이. 역사적으로 경상도는 신라의 중심입니데. 짧게 정리하면 신라는 삼국을 불완전 통일하였습니다. 신라가 우리역사에 큰 업적을 쌓았지만, 국가적 아쉬움은 당연히 있게 마련입니다. 그 동안의 신라통일을 폄하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의 미래개척을 위한 반전 드라마처럼 생각하여 보는 거지예. 지역주의에 머무르는 소아적 신라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지요. 이점을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그 동안 삼국을 통일한 신라로 살아왔습니다만, 이제는 삼국을 통일한 한반도로 살아가기를 권합니다. 인생 선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과 달랐다안갑니까. 크게 보면 전라도와 경상도의 지역감정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박정희 정권 때, 김대중이 핍박받으면 피해심리가 생겨서 선거 때마다 단결하였고, 전두환 정권 때, 광주민주화 혁명과정에서 반감심리가 고착화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어느 선거 때는 전라도 어디에서 90%이상 특정당을 지지하니까 이에, 대응하고자 경상도도 무조건 단결력이 생기면서 두 지역이 같은 경향을 보였습니다이. 그러자 지역감정 해소가 최대의 화두가 되었다안갑니까. 그 이후 대통령 권한으로 산술적인 지역안배를 시도하여 지역주의를 경계하여왔지예. 여기에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서 과정에서 지역주의를 타파가 본격적으로 시도된 바 안있습니다. 사실, 지역적으로 보면, 경상도가 타지역에 비하면 인적으로나 물적으로 혜택을 조금 더 받아왔다안갑니까. 이제 내려놓고 서로 어우러져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지역감정을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10대 경제대국으로 발전하였다 안갑니까. 이제 내부의 상처를 치유하고 지역주의가 아닌 홍익인간의 꿈을 가진 국민주의로 행복한 국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요. 한편, 다시 세계화가 되어 열강속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과거 삼국시대의 감정으로 살아도 괜찮은 것이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정치선거 때, 정책대결이 아닌 지역 구도를 앞세운 정치가가 선동하는 대로 표발이나 되어서 국민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더 이상 지역구도로 몰아가지 말고 우리를 돌아보자구요. 그래도 지역감정 해소는 경상도가 나서

야 가장 빠르게 치유된다안갑니까. 타지역 국민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우리가 나서야 하지 않겠는교. 앞으로는 선거는 국민 지도자 축 제선거로 승화하여야 좋은 나라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로또복 권처럼 도박선거의 희생양이 되어서야 되겠는교! 앞으로 정책대안이 없는 정치가를 싹싹 몰아내고 흑백논리처럼 천박한 지역감정에 빠져들 지 맙시데이.

선거 때마다 전라도와 경상도가 특정정당에 90%이상의 지지를 보이면 다른 지방에서 도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는교? 타도지방 도민도 우리도 우리지방을 위해서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베? 상상한답니다. 다만, 그러면 안되지 하고 마음을 돌린 뿐입라고안갑니까. 지방마다 이렇게 몰표로 경쟁을 하면 어떻게 되는교. 전라도와 경상도가 선거 때마다 정치가의 지역주의에 몰표선거를 하면 타지역에서도 질투를 하게 된다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계속되면 타지방에서도 피해의식이 생겨 지역몰표 현상이 가속될 것입니다. 지역주의에 사로잡혀 마음이 분열되면 민심분단이 되어 어찌면 국토분단 까지도 확산될 수 있는 현상 입니데이. 중국의 팽창주의와 반대현상으로 이것은 강대국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현상입니데이. 이대로 되어야 하겠는교! 국민은 화합의 시점을 찾고자 한다아닙니까. 두 지역이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화합한다면 통일도 멀지 않을 것입니데이. 자 이제 부족한 것은 서로 도와가며 좋은 의견을 내기로 하고, 경상도 삼행시로 마무리 들어가보입시다. 갱상도는 갱사스런 상상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도리라고 믿고 있습니데이.

- 언론인에게 : 정보, 여론, 절제, 가치관, 제2의 권력이 언론정보, 공익에 대한 가치관이 없는 언론 관련자는 방향을 잃게 하는 사회혼동자이다. 정보는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국민이 정치가나 기업인에게 속는 것은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였기 때문이다. 나라가 망하는 이유 중 언론에 해당하는 것은 인격 없는 지식, 즉, 돈과 권력에 의하여 언론정보가 전해지는 것이다. 원칙이 없는 정치를 국민에게 알려야 하고 정당한 대가 없는 부와 권력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회는 타락하고 망해가는 것이다.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나라는 망하게 되어있다. 원칙 있는 정치, 노동에 대한 대가의 부, 사랑이 가득찬 쾌락, 인격이 깃든 지식, 도덕성이 있는 상업, 상도, 인간적 책임이 있는 과학, 희생이 깃든 종교가 되도록 언론이 살아 있어야 국민이 살아있는 것이다. 그 막강한 권리만을 누리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무엇이 되겠는가! 언론은 그 국민의 여론이다. 그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지”이다. 다음의 말을 되새기며 **나는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 - 제퍼슨

- 기업인에게 : 나라가 망하는 이유 중 기업과 관련된 것은 도덕성 없이 돈벌이에 치우치는 것이다. 삼성은 백혈병으로 40명이 죽었는데도 책임회피와 은폐를 하고 있다. 당장 직원의 권리는 직원에게 돌리고 지금의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삼성이 기업인이 직원의 권리를 알아서 한다는 것은 지나친 오만이다. 삼성의 영향은 지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스스로 모범이 되는 경영을 하여야 한다. 타기업도 삼성을 모방내지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노동착취 구조와 노동탄압과 21세기 동시대의 제도운영이라고 하기엔 수치스런 악랄한 노동착취법만이 난무하고 있다. 삼성의 책임이 크다. 여러분은 모두 이사회에 영향력있는 사람입니다. 전체를 생각하지 않는 경영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로 사회적 기업을 경영한다면 국민의 존경의 대상입니다. 그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지”가 아닐까요.

- **과학자에게** : 인간성 없는 과학은 건강한 사회가 망합니다. 정치가에게, 언론인에게 균형잡힌 대안과학과 자본가에게 굴복을 경계해야 합니다. 과학자의 균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온전한 역할입니다. 과학자의 역할이 웬지 멋지지 않습니까! 학자와 똑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 **공직자에게** : 공공기관, 국민의 입장에서, 지구촌의 입장에서 바로서야 합니다. 자본가, 권력가에게 절제와 균형을 제시해야 바른 역할입니다. 전체를 생각하지 않는 운영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로 국민 중심적이고, 사회적으로 기관을 운영한다면 직원과 국민의 존경의 대상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민 상당수가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공무원에게 “영혼없는 공무원!” 으로 살지 말라고 합니다. 모두가 추하다고 지적합니다. 공직이 안전한 하나의 직장인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와 국민을 위하여 살아있는 영혼의 소유자로 거듭나기를... 영혼이 살아있는 공무원이 있다면 그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공직자는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래야만이 공직자로 바로 설수 있다. “윗사람의 지시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불의한 직속상관들과의 불화로 몇 차례나 파면과 불이익을 받았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공직자를 지켜야 비로소 부정부패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깨끗하여야 나라가 바로 설수 있다.

- **기술자, 학자님에게** : 역할에 존경을 표합니다. 하지만, 국민이 아닌, 특정 정치가를 위한, 특정 자본가를 위한 학설과 기술을 경계해야 합니다. “국가를 위하여”란 말도 특정인에 해당하는 지 경계해야 하고, 자본과 권력에 이용당하지 않는 학자의 길을 개척해야 하는 운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민초의 억울한 죽음을 학자가 방관한다면 수많은 약자들이 죽어갑니다. 국민은 학자님이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지”이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지름길이겠지요.

- 제3의 세력에게 : 옛날에는 대도로서 홍길동과 김두환 이름으로 도를 추구하였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보다 멋진 사람으로 가꾸어 가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그 의협심으로 공직에 기여하는 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직종에 대한 문화개방을 시도해야겠지요. 정부도 자본에 물러서지 말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부정세력이 확대되지 않는 원리를 세워야 하겠지요.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의를 바로 세워야 정당한 명분이 서겠지요.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정의를 지켜야 부정세력이 스스로 물러가겠지요.

- 국민제안, 자식의 행복을 위한 선택은?

우리나라에서 50대, 60대 이상의 어르신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세대입니다.

지금, 누구를 위해 사십니까? 그 동안 내일을 위해 살아왔지요.

자식을 위해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그렇게 헌신했지요. 잘 알고 있고 그 노력은 위대했습니다.

우리가 정치지도자를 잘 선택해야 미래가 밝아집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10대 강국입니다, 하지만, 국민 개개인은 생존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을 위한 정치가 아니고 1%의 기득권을 위한 정치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야는 선진국수준인데, 정치는 아직도 후진국입니다.

결국은 정치 때문에 세대가 갈등하고 지역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세대가 잘 되려면 미래를 위한 정치세력에 밀어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고 합니다. 개인 스트레스로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무자비한 자본권력과 정의가 없는 사회가 사람을 억압하여 중학생까지 자살하는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 가야 합니까?

나를 위할 것인가? 자식을 위할 것인가?

한나라당은 기득권을 위한 정치세력이고 야당은 미래를 위한 정치세력입니다.

즉, 한나라당을 찍으면 50-60대를 위한 선택이고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을 찍으면 자식을 위한 투표가 됩니다. 정권교체를 통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지요.

야당(민주당, 진보당 등)을 선택하면 자식이 사람답게 살고 더불어 기성세대도 잘 살 것이고, 한나라당을 선택하면 부자들만을 위한 세상이 되고 자식은 더 기계부품처럼 될 것입니다. 기성세대도 더 어렵게 될 것입니다. 오직 가진 자들만의 세상으로 변할 것입니다.

자식을 살리고 나도 사람답게 살고자 한다면 야당을 선택하고, 자식을 버리고 50살 이상인 나만을 잘 살고자 한다면 한나라당을 선택하세요. 한나라당 자신은 지난 4년 동안 자신들이 자행한 부정부패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가리고자 방송언론을 막았고 국민사생활까지 입막음을 하였습니다. 우리 국민의 입만 아픕니다. 한나라당! 더 이상의 부정부패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이름과 성을 바꾸고 새누리당이라는 간판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또 믿을 수 있습니까?

99%의 국민을 위한 선택은 자식과 부모님을 위한 선택입니다.

임시정부 이후만 말해도 대한민국으로 살아온 지 6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1%를 위한 귀족정치는 그만 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에 표를 주는 것은 귀족정치의 연속입니다. 국가의 발전이라도 하지만, 1%의 소수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그 자체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발전이란 거창한 구호 속에는 1%의 귀족주의가 숨어있는 것입니다. 감언이설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지요. 1%를 위한 국가는 국민에게 필요없는 국가입니다. 그런 국가는 국민다수가 노예적 삶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국민은 정치가에게 속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는 국민입니다. 나국민의 의식으로 국민은 국민을 위한 국가를 선택하고 국민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잘 살기 위해서 오직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공산당 때문에 치를 떨렀기 때문에 간첩잡기 위한 공안정국을 참아왔

습니다.

30년 전 부모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은 다해도 좋은데, 데모만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의 그 순수한 반공사상을 이용하여 정권을 차지고 국민을 억압하는 세력일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귀족만을 위한 세상을 만들고 있는 자들로 어찌보면 독재를 하는 그들이야말로 빨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공산당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부에 빨갱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부모님의 반공사상을 이용하여 자식도 빨갱이로 몰리고 오직 1% 귀족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표를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의 반공정책과 1%의 귀족을 위한 우리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모두가 노예가 되거나 죽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대로 변화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가족부터 변화하여야 합니다.

- 화합 그리고 선의 길(통일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화합하는 세상이 되려면? 역시 사랑, 용서, 정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마치 상식이 통하는 선진국처럼! 정의는 역사가 규명되면 2천년 전의 사건이라도 명예회복을 다시하면 당사자 간에 보다 빠르게 용서와 화해가 된다.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를 배우고 용서를 실천하고 정의를 찾고 과거에 대하여 명예회복을 해 나간다면 그 공동체는 화합의 세상이 되겠지요?

남북문제!

남한! 우리끼리도 화합하지 않는데, 분단된 북한과 어떻게 화합한단 말인가? 우선은 우리 내부의 화합이 더 중요한 순서가 아닐까!

그리고 통일에 대한 생각은? 먼저 화합하고 싶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 김현희(KAL 폭파사건):

이 사건의 행동범인 김현희의 죄는 물론 너무나 크다.

그러나 이 사건의 원흉은 누구인가. 김정일(북한)이 아닌가? 궁극적으로 상대자는 북한 공산집단이다.

북한을 극복하는 길은 그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간첩과 속고 있는 북한 동포에게 밝은 세상을 보여 줌으로써 북한체제를 따르려는 사람을 줄이는 길일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김현희의 경우는 자살실패로 북한에게는 바라지 않는 일이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이 바라는 일을 법적으로 단죄처리 한다면 그들의 뜻대로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행히 김현희도 과오를 뉘우치고 북한의 꼭두각시로부터 벗어난 것이다. 이 소식은 알게 모르게 북한에 전해졌을 것이고 그 반응은 우리에게 상당한 유리함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략적이라도 그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알려주어 우리편 화하여 북한의 힘을 점진적으로 약화시켜야 할 것이다. 즉, 북한인에게 선도하는 일이 평화통일로 가는 길이요 통일을 준비하는 일일 것이다. 다만 북한은 우리의 선도마저 이용하려는 악랄한 악한들이므로 우리는 선과악의 실질적인 구별능력을 함양해

야 할 것이다. 악한이 우리에게 침입할 수 없도록 우리끼리의 화합, 개개인의 악의 대처방법 등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그들의 체제를 약화시켜 실질적이고 무리없이 보다 빠른 통일의 길이 될 것이다. 이전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듯이 범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무관심, 이기주의, 도덕성 양심상실, 불화합 등으로 조직화된 범죄를 극복하기에 국가(국민의)범죄예방의식이 역부족이다.

앞에서 얘기 했듯이 목표는 범죄(악)의 근원을 향해 점진적으로 악의 힘을 약화시켜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어린이 이용 범죄조직에 대한 대처방법은 어린이를 선도하는 한편 조직근원의 추적내지 타파에 주력하여 범죄의 연령적 계속성을 단절해야 근원적인 범죄 연속성을 예방할 것이다. 즉, 범죄를 선도에 목표를 두어야지 처벌(체벌)에만 그쳐서는 보다 큰 범죄 가능성을 부여해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사회적 격리가 필요한 악한들을 제외하고 선도에 더 노력하여야 하지 않을까! 교화와 사랑없이 처벌만이 시행되면 죄수는 감옥에서 더 대담한 범죄를 준비시키는 장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예처럼. 예)사회문제의 표본 <대낮 군중 앞에서 여자를 폭력으로 납치한 사건>

2.6. 보수와 진보

: 국가는 크게 보수와 진보가 나뉘어 다투며 발전하여왔다. 그런데 우리는 정통적인 보수가 있고 정통적인 진보가 있는가? 온갖 이념과 이상! 과 분열의식으로 보수와 진보의 개념이 선명하지 못하여왔다. 국가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있는 분야라고 할수 있다. 그것에 대한 학습이 되지 않는 나라! 과연 언제까지 기준도 없이 개인의 행동의 결과로 분열되는 사회가 지속될까? 보수의 가치와 진보의 가치는 무엇일까?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 보수³⁾(保守), **conservativeness**. 전통적인 것을 지키려는 주의로서 책임과 최고의 가치추구는 노블레스오블리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과거 기득권 지키기, 즉, 일제잔재와 독재기득권을 지키는 사람들이 보수, 또는 우익, 극우주의자들이 보수주의로 자처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것은 보수가 아니아니 올씨다. 보수라고 하지만, 행동은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다. 그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편가르기 일 뿐이다. 정통보수가 철저한 국가주의라면 진보는 국가의 역할에 개인의 가치추구를 추구한다. 그런데 보수가 보수를 주장하는 하지 않기에 때에 따라서는 진보가 보수가치를 추구한다. 예를 들어 진보진영에서 북한의 식량부족과 남한의 시장안정을 위하여 식량원조를 요구하였다. 보수는 남북한 극한대립의 상황에 맞추어 식량지원을 반대한다. 그렇다면, 보수는 인류애, 민족애, 국가의 미래전략 없이 오직 대립자에게 식량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전망도 없이 하나의 속 좁은 이기주의자로도 비출 수 있다. 보수가 도덕적인 면과 전통의 중후한 멋을 잃고 오직 선거승리를 위한다면 타락한 수구꼴통으로 전락하겠지요. 보수가 이사회를 발전시키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타락한 보수가 승리한다고 해서 사회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동의하겠지요. 보수는 철저하게 비리세력을 척결하고 전통을 추구하시기를...

3) 보수: 급격한 변화를 반대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통의 옹호나 현재의 유지 또는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는 주의.

- 진보4)(역사의 진보에 대한 신념으로 사회적 변혁을 추구하는 주의) 인류의 정신, 문명, 역사 등이 시간을 따라서 더욱 완전한 상태로 나아간다고 여기는 합리주의적 신념.

보수와 진보는 경계가 없고 그저 분열되어 다투기를 계속한다. 개념정립이 안된 보수와 진보논쟁은 큰 의미가 없다. 이때, 정부는 조정작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주로 보수의 편에 선다. 그것도 국우주의 행동을 두둔하는 경향이 있다. 즉, 진정한 보수도 없다. 따라서 진정한 진보도 없다. 보수가 자리를 잡지 못하니까, 진보도 정확한 자리가 없는 것이다. 보수도 없으면서 진보가 가능할까?

현재를 굳이 진단한다면, 이렇지 않을까? 국가발전을 목표로 국민의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가 보수가 추구하는 것이고, 국가발전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개개인의 국민복지가 향상을 추구하는 논리가 진보라고 한다면, 현재는 다수가 진보가 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진보는 보수의 상식적 가치위에 한층 높은 수준을 추구하는 것이겠지요. 쓸데없이 보수와 다투기를 중단하고 보수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자가 양보하여 보수를 진전시켜야 진짜 진보적이겠지요. 자! 한발 더 진보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진보도 마찬가지로 지도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모범이 있어야 진실성과 신뢰가 인정되겠지요.

2.7. 우상⁵⁾

:종족우상, 동굴우상, 시장우상, 극장우상을 비롯한 우상오류를 고등학

-
- 4) 진보: 역사의 진보에 대한 신념으로 사회적 변혁을 추구하는 주의, 인류의 정신, 문명, 역사 등이 시간을 따라서 더욱 완전한 상태로 나아간다고 여기는 합리주의적 신념
 - 5) 우상: 맹목적인 인기를 끌거나, 숭배되는 대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종교] 인위적으로 만들어 신처럼 떠받드는 신의 형상. 기독교에서는 하느님 이외에 신앙의 대상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교 교과서에서 배웠다. 단지 암기식 공부로 인간의 오류를 적용하지 않고 자존심으로 푹푹뭉친 대학을 졸업하였다. 그리고 세계에서 대학 졸업자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초보적 우상을 구별하지 못하고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교육을 그대로 해야 하는가!

2.7.1. 지역우상

- 국민1: 우리나라 남자가 지역구분을 시작하는 게 군대가 아닐까?
- 국민2: 우리나라 군대문화의 연속이니까 이후로 계속 가는 거지 뭐.
- 국민3: 제도적 해결과 국민의 통렬한 깨우침이 있어야 한다니까! 기득권 문제로 남북이 갈라지고, 기득권 문제로 지역구도가 되었지. 그것을 정치가 이용하여 중증단계로 고질병 환자판정 받은 지 오래되었네.
- 국민4: 정치가 지역구도로 만들어 표를 이용하니까? 어떻게 헤어날 방법이 없네.
- 국민5: 결국은 국민이 손해보고, 조금 크게 보면 국가적 낭패라고 해야지. 분열주의에 해당한다니까! 지역구도는 기득권과 연결 되어 망국적 문제의 핵심이야. 이대로 가면 삼국시대로 분열되어야 한다니까!
- 국민6: 제도개선이라? 당장 90% 이상 몰표 나온 곳은 문제야! 다음부터는 경상도, 전라도는 2지역구 정도는 지역구도당(지역패권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방법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 국민7: 신분우상? 임금도 세끼 먹고, 갈 때는 옷 한 벌 입고가고, 그 사이엔 똑같이 고민하는 세월로 보내지 않습니까! 현대는 더 사람답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신분의 차이가 기득권을 세우지 않게 서로 바라봅시다. 사람의 마음으로 두 눈으로! 동등하게!

2.7.2. 과거 기억우상

- 국민1: 우리나라는 근현대사 과거사정리가 안 되어서 말이지, 심하게 다툼이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원수지간 이라구. 어떠한 형식으로도 화해가 안 되었다는 거지.
- 국민2: 공정사회가 안 되다가 보니까, 제대로 교통정리가 된 사연이 없어서.
- 국민3: 문제는 싸웠다고 하면 모두가 끝발(권력) 싸움을 하여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이지.

2.7.3. 존대 언어우상

- 국민1: 우리사회는 대화로 시작하여 논쟁을 거쳐 결국은 싸움이 일어나지. 싸웠다고 하면 본론은 어디로 출장가고, 연공서열 싸움으로 되지. 그 싸움에서는 당신이란 존칭어도 반말이 되어 모든 것이 트집의 대상이 된다는 거지. 예를 들면, “나 보고 당신이라고 했어 지금, 말 똑바로 못해” “당신이 뭐야”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서열의 문제로 변한다는 사실, 일종의 종족우상이겠지. 무지 웃겨!
- 국민2: 논쟁의 씨앗은 기득권의 감정상태에 달린것입니다요. 급기야 “그랬습니다”가 아니라 “그랬습니다요.” 이렇게 불필요하게 접미사가 발달되었습니다요.
- 국민3: 그러니 대화문화가 발달? 아니 시작도 안 된다니까.
- 국민4: 젊었을 때, 이거 몇 번 당하고 나면, 서서히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갑니다. 대화 끝. 명령과 실행만 있는 세계유일의 관계개선이 되는 거지.

2.7.4. 생활환경형 고정관념 우상

- 국민5: 사람은 자라면서 생활환경으로부터 잘못된 고정관념이 생기기 마련이다.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 의심, 부자에 대한 부정적 의식, 가난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의식, 원손잡이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 심지어 특정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 등이 있다. 잘못된 고정관념에 대한 치유가 있어야 긍정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로보고 올바른 사태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2.7.5. 기득권 우상

: 한반도는 삼국의 온전한 통일 실패 후 국경변화가 되며 형성된 지역적 기득권 우상, 독재 정부의 장기간 지속되면서 다시 이어진 권력의 기득권 지상주의, 사회전반의 있는 자의 기득권이 두터운 비리의 연결고리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이 기득권은 특권층이라는 마치 졸부와 같은 특성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 국민1: 한반도는 삼국의 온전한 통일 실패 후 위기 때마다 축소지향성으로 국토영역을 유지해 온 반면, 중국은 확대지향성으로 국토영역이 확대되었지요. 영토적 측면을 보면 우리가 단점이 많은 것 같지만 사상투쟁의 과정을 보면 장점도 많다고 생각된다. 절대적 가치우위를 가진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되네요.
- 국민2: 권력의 자리는 모두 기득권이 팽배하다. 정치, 법조계나 행정권력이나 교육계나 사실 특정분야의 문제라고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공정사회가 되기 어렵다고 봐. 이번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자녀 특혜 등의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지.
- 국민3: 심지어 인기업종인 공사에서 직원자녀의 특혜조항까지 있다는 사실은 기득권 결정판이 아닐까?
- 국민4: 공공기관이 이런데 사기업은 어디까지 권한인지 경계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 국민5: 기득권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기관은 퇴보 하는 게 진리이지. 우리나라 정치권의 기득권이 심하여 정치 후진국이라는 오명이 있지 않을까?
- 국민6: 위기에서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 조직은 분열의 위기가 닥치게 마련이지.
- 국민7: 그러니까 기득권은 자연생리상 자연스럽게 생기게 마련이지만, 정도가 지나친 것이 문제화 되는 것이 아닐까요?
- 국민8: 이 문제도 상식으로 돌아가네.

2.8. 현안문제

: 일자리, 청년문제, 노년문제, 범죄문제, 세대차이, 이념갈등, 경제갈등, 지역갈등

2.8.1. 중년 가장의 호소, 애타는 자살 청춘, 이어지는 청소년 자살을 생각한다.

- 국민1: 현대판 고리대금업(은행권), 국민개개인을 고이율로 쥐어 짜먹는다. 대기업은 저이율로 대출받고 일반시민은 담보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고이율로서 대출하여 생활이 곤란하게 된다. 특단의 조치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 소시민은 구세주를 만나기 전에는 특단의 조치가 없다. 힘없는 시민은 고리대금과 높은 세금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 비겁함의 대명사!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자! 그런데, **국가가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한 모습이라니!** 입에 담기 수치스럽다. 만약 비전의 세우려면 현재와 과거를 배우라! 현실을 인정하라!
- 국민2: 솔직하게 말해서 은행의 대출이자는 저축이자의 20% 정도 높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은행의 입장에서 “내가 빌릴 때는 2.5%이자 주고, 내가 빌려줄 때는 7~12% 받는 자체가 사기꾼 아닌가? 이런 근본적인 것을 놔두는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말이다.
- 국민3: 서민을 상대로 돈 버는 구조, 즉, 생계형 주택을 볼모로 돈 버는 구조 없어야 한다. 정부는 서민에게 일정 근로시간만을 일하게 하여 정치사회의 정보기회를 주어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국민을 똑똑하게 만들어야 한다. 최소한 노예수준으로 만들지 않아야 한다. 국민이 속지 않게 하여야 좋은 정책이고 좋은 정치가이다.
- 국민4: 서민의 국민건강,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여야 좋은 정치이다. 집단지성이듯이 국민을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정치가는 그리고 그 위에 좋은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국민이 판단력이 떨어져 아무것도 모르게 사탕발림으로 지지율을 올려 찍게 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그것이 좋은 정치이다. 언론, 교육, 사회보장제도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2.8.2. 국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본적 접근

- 국민1: 가지 않는 길에 대한 투자가 미래대비이고, 미래경쟁이고, 일자리 창출이고, 민생안정책이 되지 않을까? 지금의 우리 경제규모라면 모든 국민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현재의 도시민과 시골 시민은 위험과 불편을 느끼고 있다. 이 분야에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다.
- 국민2: 일자리 창출? 필요한 상품생산에 의한 수출은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인간의 행복, 안전, 협력에 있다고 생각해. 행복, 환경보호 등 지구의 지속가능 방법, 인간봉사, 노인, 유아, 청소년, 사회적 약자, 사회 이탈자(범죄자 포함)를 치유 등 전 국민의 일자리 찾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 국민3: 그러게.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지만, 공익적 가치! 국민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면 거기에 연결되는 사업이 생기고 그 다음에도 그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는 상당기간 일자리가 연속성이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고 생각해. 지금 정부다 세금을 일정하게 나누어 주면 그 사업이 끝나면 일자리도 끊기는 것이잖아. 그건 영속성이 없는 일회성 일자리야. 이런 사업은 자제하고 지양해야 하는 거 아닐까!
- 국민4: 인재경영은 무엇보다도 적재적소 원칙에 따라서 해야 하겠지. 해결책은 우선 지식인, 지성인을 활용하여 강의나 체험을 통하여 소통에 의한 능력을 배양하는 방법을 찾는 거야? 교육의 기본은 잘하는 사람을 활용하는 거 아닌가?
- 국민5: 그리고 나서 기본적인 현대발전을 이끌 전자, 서비스, 예술, 영화, 과학 분야 등 각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지.
- 국민6: 언어유희, 말장난(실업가란 실업자, 즉, 직업을 잃은 사람이 자신의 목적에 따라 단체로 모이면 실업가가 된다).
- 국민7: 돈과 조건을 위한 행복추구는 행복해 질수 없지만, 거룩한 일을 하면 모두 행복해진다고 하던데(고명진 목사).
- 국민8: 거룩한 일이라! 아마도 아래 거창고교의 직업선택의 십계명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창 십계명은 아마도 자신은 가기 싫고, 남이 가주기를 바라는 개척이 아닐까요! 입시지옥에 취업지옥, 게다가 헌신직업생활! 대한의 청춘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 국민9: 하지만, 우리나라 현재 상황을 보면 이러한 일이 공익을 위해,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70, 80년대 민주화와 노동운동이 필요했던 것처럼... 그 때도 그 역할을 주로 젊은 학생이 맡아주었지요. 지금도 또 젊은 학생에게 의지하기는 그렇지만, 지금의 현실을 타파할 사람이 결국은 젊은 청년이라는 게 문제이지요.
- 국민10: 과거의 학생운동의 희생만을 강요했지만, 지금은 정치참여에 있어 21세기 미디어를 활용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업선택의 십계

제 1계명 월급이 적을 쪽을 택하라.

제 2계명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제 3계명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제 4계명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제 5계명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가지 마라. 아무것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제 6계명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제 7계명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제 8계명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제 9계명 부모나 아내가 약혼자가 결사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제10계명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 <거창고등학교 교훈> -----

2.8.3. 일자리: 청년문제, 노년문제, 범죄문제

- 국민8: 직업창출은 국민의 행복에 목표를 두고 비리감시단, 폭력감시단 등 사회비리 척결에 필요한 조직과 내부고발 시스템 확보가 우선적이다. 복지를 위한 복지가 아니라 국민행복과 사회적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창출을 진행하면 덤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 국민9: 현안문제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직면한 병목현상의 원인을 해결하여 일자리와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미래의 문제에도 연구하고 현실에 맞추어 실질적인 실천조직을 만들면 일자리, 국민 안정의 사회가 된다고 생각한다.
- 국민10: 정치 및 사회 지도자는 이러한 현안문제를 타파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다.
- 국민11: 현안대처 능력에 대하여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사람이 과거를 준비하느냐? 미래를 준비하느냐? 의 문제처럼 자칫 과거의 명성에 빠져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본다. 과거에 잘 했다고 현재에 잘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검증된 것은 아니다. 즉, 현재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검증된 바는 없다. 하지만, 문제다의 핵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문제를 풀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특히 현대사회는 급변하고 있다. 과거의 영웅은 현재의 영웅은 아니다. 정확한 문제파악이 안된 사람이 과거에 잘 했다고 생각하면 오류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현재를 통찰하였는가? 이것이 문제이다.
- 국민12: 자본사회에서 돈이 되지 않으면 직업으로 투자가 안 되고 있다. 인간의 행복조건을 높이는 사업으로 숨통을 트이면서 미래 돌파구가 될 사업을 창출하는 것이다. 경제적 안정, 심리적 안정, 자녀의 안정, 건강안정 그리고 미래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사회시스템의 개선(민주화: 투명지수, 공정지수, 인물신뢰지수 등)이 일자리 창출이고 자아실현의 시작이다. 어쩌면 한정된 일자리에 매몰되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국가와 함께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찾아야 한다. 나아가 진정한 일자리는 먹고 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사회에 무슨 도움이 필요할까? 내 꿈이! 내 이상이 없는 것은 아닐까? 이 불쌍한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될까? 걱정해야 하지 않을까?
- 국민13: 정치와 과학: 이 세상의 주요 분야를 속도로 표현한 것이 있다. 정치분야 즉, 정치인, 정치환경, 정치제도, 정치인양성 등이 일자리 개선의 시작이고 끝이다. 정치인을 늘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필요한 인원을 잘 양성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2.8.4.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반성(인권, 노동, 교육, 관습, 행복권 등)

- 국민14: 현재의 우리나라를 돌아보면, 인권후진국으로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생각해. 어느 인권변호사는 인권은 선진국보다 150년은 늦었다고 한다. 우리 현실이다. 나 자신을 알지 못하면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까?
- 국민15: 용산 이주민 남일당 불살라 사건, 쌍용차 노사분규, 공권력이 노조측 진압, 노사문제는 물어보나 마나 몰상식의 결과이다. 사측의 잘못 가능성 99%, 요즘 만일 노조측이 잘못하며 파업했다가는 노조내 부에게 먼저 못매를 맞을 것임.
- 국민16: 중세시대가 가고 산업사회가 진행될 때와 같다고 보아야. 국민과 대화를 막는 것은 이미 폭군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어떻게 달리 표현을 방법이 없다. USA 존스 홉킨스대학의 서재정 교수, 버지니아대 이승헌(물리학)의 천안함 정부보고에 대한 반박을 했다. 과학적 의견을 검토 검증조차 하지 못하고, 도올 김용옥 선생이 천안함 정부 발표를 백만분의 1도 못 믿겠다고 의문을 제기하자 우익단체가 고소를 한 행위이다. 시민단체에서도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언론통제와 공안정국으로 몰아가며 색깔론으로 무마하려는 자체가 21세기 과학과 논리가 없다는 증거이다. 중세 갈릴레오의 지동설 사건보다 더 후진 발표와 언론통제이다. 현 정부를 10년이 후퇴했느니 30년이 후퇴했느니, 하지만, 과학적 증명수준과 정치적 언론통제를 보면 안타깝게도 3c가 후진 무과학, 무논리의 정부 보고의 작태를 보이고 있다. 국민모독을 천연덕스럽게 한 것이 아닌가? 현 체제는 공안정국 하에 경찰의 안전성 때문에 정권이나 국가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과거 중세 같았으면 나라가 망하고 새로 일어날 일이다. 국민다수의 공익적 측면, 국가측면에서 3세기 전과 현재 중에 어느 것이 공평한가?
- 국민17: 자본주의시대, 비정하다. 정의도 없다. 자본의 크기에 따라 양육강식이 나타나고 있다. 때로는 권력에 따라 결정된다. 이 과오구도를 깨는 방법은 일차적으로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공언론에 의한

참된여론을 형성하는 것이다. 감히 사익을 위한 대변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정의를 이루기 위한 지식은 중학교나 고교교육이면 충분하다.

- 국민18: 애경사 부조, 자본주의에서 돈은 이제 현대인에게 기본도리를 한 것처럼 착각하게 한다. 따라서 대부분 금전으로 때운다. 가족, 친지는 기본으로 여러 방면의 지인 등으로 확대된다. 유명인이 되면 규모가 상당하다. 애경사 범위에서 남이 자신에게 절제를 보이기를 기대하지만 말고 본인이 먼저 절제를 실행하면 될 것이다. 애경사 부조를 필요이상으로 넓히지 않아야 된다. 이때 본인이 먼저 실행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그 동안 해오던 것을 갑자기 줄이려 하는 것이 문제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인의 범위가 계속 확대되는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다 소비하기에는 아깝다. 서로 마음에도 없으면서 체면 때문에 부조하고 돈을 아까와 하지 않았으면 한다. 아까와 하였다면 상조범위가 넘었을 경우가 아닐까? 또한, 현대인이 바쁘는데, 애경사 상조 생활하다가 비만과 음식쓰레기에 질식할 것이고 다른데 쓸 돈이 부족하다. 시간에 쫓기고 돈 버리고 음식의 과소비에 환경오염까지 유리할 것이 별로 없다. 음식 버리면서 경제 살리기는 이제 재고할 때가 되었다. 그 동안 우리나라 사람이 정이 많은 건 좋지만, 건강, 소비, 시간활용 그리고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면 시대적으로 줄일 때가 되었다. 가족, 집안, 친지, 지인 어느 선이 적당할까? 애경사 범위를 줄여야 시간이 나고, 돈도 난다. 그리고 주말을 즐겨라. 그래야 즐겁고 건강한 인생이다. 먼저 생각해 보아야겠지요. 이것이야말로 공론하고 사회적 합의 후에 사회운동으로 해야 하나요. 혹시 별집을 건드린 것은 아닌가요. 별집인 것을 알지만, 주말문화가 음식소비 문화로 너무나 간다는 생각에 시대에 알맞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국민19: OECD 학력평가(읽기, 수학, 과학)에서 핀란드는 중학교(15세 이하) 1위, 대학교 1위이고,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는 3위안에 들어가지지만, 대학교(서울대 50위)에 가서는 100위권 밖으로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담? 이 자체가 현재의 입시지옥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닌가?

- 국민20: 우리나라 연평균 근로시간이 너무 많다고 한다. 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한국은 항상 1위를 해 왔다. 2006년 기준으로 한국은 2300여 시간 이상으로 2,3위인 체코, 그리스보다도 300시간 많으며, 근로시간이 가장 적은 프랑스, 노르웨이 등 유럽 선진국들보다 1000시간 정도 많다. 거의 한국의 모든 직장이 '비공식적으로' 매일같이 야근을 하고 있으므로, 실제 연평균 근로시간은 2300시간보다 훨씬 많다고 보는 것이 맞다. 문제는 효율은 꼴지이다. 너무 많은 시간을 일하다가 보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 국민21: 교육 학력평가 1위인 핀란드 등 외국의 경우 고3학생들도 오후 3시에 하교하며, 학원이란 것은 아예 없다. 과외도 굉장히 드물다. 그러나 한국의 청소년들은 새벽7시부터 밤11시까지 학교에 붙잡혀 있어야 하며, 학교끝난 후에도 학원이나 과외에 시달린다. 방학이나 주말도 예외 없다. 그러나 OECD 국가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학력평가에서 1위를 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핀란드이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교육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21세기는 상상력의 시대라고 한다. 이대로 주입식 공부를 하면 이제 경쟁력은 더 떨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런데 계속 줄세우기 교육을 하는 것은 국내용 기득권들이 자식에게 기득권을 물려주기 위한 제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세계에서 꼴찌를 한다고 해도, 이대로그가 좋을까?
- 국민22: 한국인들의 일벌레로 살다가 생을 마감한다고 해도 괘언이 아니다. 여름휴가는 짧고 1년 동안의 휴가가 총 10일을 넘기지 못한다. 하지만, 유럽선진국들의 경우 보통 여름휴가가 1달에서 2달이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었을까? 역사적인 문제와 관습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제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 국민23: 어린 시절부터 과외와 야간학습에 시달리고 직장에서도 야근에

시달리고 퇴직하여 노후제도가 부실하고 자녀생활에 지원을 해야 하고 여유도 없이 평생에 걸쳐 단 한시절도 여유로운 생활을 못해보고 생을 마감한다. 행복한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불만이 없어야 하는 노예적 인생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행복을 위한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교육학력 수위인 핀란드를 모델로 삼건 유럽식이건 좋은 사례를 모아보고 방향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 국민24: 행복 추구권, 경쟁력, 선진국을 보고 운영의 묘(제도개선)를 살려야 하지 않을까?
- 국민25: 장기적 목표, 의식의 지도, 중용(대인)은 군자론, 장인 안철수, 지도자 자격= 지천명이 되는 선배면 충분하다고 생각해.
- 국민26: 우리나라에서 성공이라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인류의 최고 가치는 이상실현이다. 꿈을 이루기 위한 그 사람의 확보된 지위가 진정한 성공은 아니다. 또한, 재물(돈)의 확보는 꿈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지, 성공 자체는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 국민27: 지식, 창의, 집단지성(군자, 장인, 전문가)은 알면서 꿀먹은 벙어리야. 고정관념, 선입견은, 현실파악에 장애물이 된다. 그릇된 지식은 사물이나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그릇된 자존심(화가 숨겨져 있다), 고정관념을 걷어내면 마음의 창문(새로운 창문)이 열린다.
- 국민28: “국민 모두 머리가 되어라.” 그리고 “권력자의 횡포를 감시하라.” “그것이 머리가 하는 일이다.”
 흔히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어라” 라고 말한다.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머리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 장관, 기관장, 사장, 대표 등을 가르키는 것으로 생각한다. 흔히 1% 자리인 고위직이다. 그렇다면, 청소부, 우체부, 일반 월급자인 사원은 머리가 아니라는 뜻이 아닌가? 선인의 가르침인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는 말

에 모두가 충실하게 따랐다면, 그 누구도 월급쟁이 사원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가 된다. 모두 머리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모순된 말이 된다. “머리가 되라”는 말이 맞는 말이라면(진리가 되려면),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머리가 되어라 라고 해석하면 맞지 않을까! 즉, 머리가 되라는 말은 그 직위가 높은 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자인 머리가 되라”는 말로 해석해야 된다. 이거 완전히 애정남⁶⁾ 이네요.

6) 애정남: 애매한 것을 정하여 주는 남자의 줄임말로 개그 콘서트에서 유래.

2.9. 교통사고

2.9.1. 교통사고 1위에 대한 제안

- 국민1: 먼저 너나나나 죽기 살기로 돈만 벌기에 급급해서 그렇겠지요.
- 국민2: 바쁘게 살아 돈 벌어서 나도 잘 먹고, 자식에게도 물려주려고 그렇겠지요.
- 국민3: 빨리빨리 살다가 보니까. 아무 때나 누가 쫓아오는 거 같아서 빨리 달려서 그렇겠지요. 게다가 악덕 자본주의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애환이 있겠지요.
- 국민4: 내가 혼자 할 수는 없고 사람시켜서 본전 뽑으려고 다그쳐서 그렇겠지요.
- 국민5: 교통사고가 평생! 교통사고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겠지요.
- 국민6: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운전하면서도 다른 생각에 몰두하다가 깜빡해서 그렇겠지요.
- 국민7: 교통사고가 심한데도 실질적인 교육은 없고 캠페인성 홍보로 교통문화가 선진화 될 것이라는 착각에서 그렇겠지요. 참고로 교통문화는 판단력, 운동신경, 상대방 배려, 준법정신, 인간성, 순간적 내면 심리, 범죄심리, 투기성 보험세력 등이 포함된 종합학문 이랍니다. 함부로 내두어서는 안 되는 난제성 문제입니다.

2.9.2. 교통사고 줄이기 제안서

교통행정기관에 제안된 자료입니다.

신청번호 : 1AB-1103-000345

- 제목: 차량 교통신호등의 푸른신호등 점등시간 전자안내판 이용

□ 개요

운전자는 교통신호등을 보고 운전한다. 파란신호등(초록색)이 켜져 있는 동안 지나간다. 하지만, 언제 꺼질지 전혀 알수가 없다. 교차로에 도달한 운전자는 신호등이 바뀔까봐 대부분 더 가속하여 달린다. 당연하지만, 빨간불이 들어오기 전에 통과하기 위해서다. 조금 늦으면 본의 아니게 꼬리물기를 하게 된다. 많은 사고 중에 개선할 수 없는 사고 중의 하나가 신호위반에 의한 사고이다. 한편, 운전자의 심리를 표현하면, 교차로

의 신호등에서는 더욱 서두르게 된다. 즉, 안전운전을 하기가 어려운 심리상태가 된다. 이상의 것은 파란색(초록색)등이 언제 빨간등으로 켜지질 모르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것을 개선하면 신호위반에 의한 교통사고도 줄어듦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여유있는 운전습관으로 교차로의 교통사고가 상당히 줄어듦 것으로 기대된다.

□ 현황 및 문제점

- 푸른 신호등의 점등시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빨리 지나가려고 안전의식이 줄어든 상태로 운전한다.
- 신호를 지키고자 하여도 시간차가 안 맞으면 신호를 약간 위반하여 꼬리물기 운전을 한다.
- 푸른신호등이 켜져있는 상태에서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더 가속하여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
- 가끔 보행자 표시등에 숫자로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으나 차가 신호를 안 지키면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것을 차량 신호등에 표시하여야 효과가 더 클 것입니다.

□ 개선방안

- 보행자 신호등이 아닌 차량 신호등에 푸른신호등(초록) 위에 점등시간(예 30초)을 초단위로 표시한다.
- 30초 표시등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푸른등이 켜져있는 동안 초단위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된 디지털 표시로 30초부터 1초까지 표시한다. 다음과 같이 30-29-28-27-26-25 ---3-2-1-신호등 변경
- 교통신호 위반차량이 줄어듦 것이고, 사고도 줄고, 사고에 의한 피해 정도로 줄어듦 것입니다. 운전자의 심리상태도 신호가 있는 곳에서 서두르는 심리가 여유있는 심리상태로 변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안전의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줄려 교통사고 줄이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미 특허가 등록되어 있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시행을 안 하는지 모

르겠으나 경찰청에서는 빠른 시행이 요구된다. 우리나라가 교통사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특별예산을 추가하더라도 신호등 개선에 대한 시행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경찰청의 예산이 안 된다면 정부차원에서라도 빨리 시행하였으면 합니다. 교통사고 1위가 오래되었지만, 운전자의 한사람으로 개선되는 것은 너무나 미약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중국 동북성에서 시행한지 오래되었는데, 운전하는 사람이 상당히 편리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도 바로 시행되는지 알았지만, 일부 인도에 표시되어 상대적으로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합니다.

2.9.3. 경찰청 답변서 :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관실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차량용 신호에 초단위 카운팅 시설을 설치하여 꼬리 물기 및 급브레이크 사고를 개선하자는 의견으로 이에 대해 경찰청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신호교차로에서 신호등은 가장 중요한 통제정보로 그 위상은 그 어떠한 주의, 지시, 안내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통신호등에 부착되는 정보는 가급적 최소화하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특히 잔여시간표시장치와 같이 발광형 시설물은 신호등과 함께 부착될 경우 신호등에 대한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어 절대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 04년도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안건 채택, 심의 결과 운전자의 예측출발 및 시간안에 지나가려는 심리가 가중되고 신호외에 숫자표기로 인해 이를 멀리서부터 판독함에 따른 사고위험성이 더 크다는 결론이 나와 부결된 사항임

직진과 회전 교통류가 상충하는 교차로는 신호운영 여부를 불문하고 주의 및 서행 운행해야 하는 것이 국제표준의 대원칙으로 차량신호등의 잔여시간이 표시되면 신호대기중인 운전자들이 교차로 상황을 판단하기보다는 잔여시간 표시장치를 보고 예측출발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으며, 잔여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운전자들이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속도를 높여 대형사

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동 장치를 도입, 운영하는 국가는 중국, 터키정도에 불과하며,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교통선진국에서는 도입된 사례 없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로 하여금 신호에 대한 주의를 분산하고 신호예측에 의한 과속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도입 불가 의견을 양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9.4. 교통과 답변에 대한 의견: 교통문화라고 할 때, 우리나라 교통문화가 정착되었다고 생각하면, 굳이 바꾸어서 혼동을 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인운전 폭발적 교통량의 증가에 따른 교통문화가 20년 정도라고 볼 때, 아직 정착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선진국 시스템을 따르고 있는 나라에서 교통사고 1위입니다. 보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차로 주변의 속도를 대폭 낮춘다든지, 고가 인도를 더 만들든지,

교통신호를 지키려는 사람을 기준으로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안전을 위한 신호를 지키려는 사람이 안심하고 지킬 수 있도록 신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제안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이 면이 있겠지요. 답변 중에는 신호를 지키지 않거나 위험하게 운전하는 사람에게 신호정보를 미리 알려주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신호를 안전하게 지키려는 사람을 위한 교통체계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 신호의 단순성에 위배된다. : 푸른등 위나 등 안에 숫자를 표시하면 된다. 신호가 분산된다는 결과가 실제분석에 의한 판단인가? 제가 보기엔 등위에 표시하였을 때, 절대로 분산되어 혼동을 일으키지 않았습다.

- 국제적 추세: 다변대로라면, 교통선진국 체계를 따르는 한국이 교통사고 1위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교통은 문화라고 할 때,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바쁘게 살다보니, 교통 사고가 잘 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쁜 사람에게 정보를 주는 것은 안전의식 판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진국

※ 04년도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안건 채택, 심의 결과
운전자의 예측출발 및 시간 안에 지나가려는 심리가 가중되고 신호 외애
숫자표기로 인해 이를 멀리서부터 판독함에 따른 사고위험성이 더 크다
는 결론이 나와 부결된 사항임
개연성은 있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키고자 할 때 기준으로 점멸시간을 알고 판단하는 것과 알지
못하고 예상하면서 판단하는 것의 정확성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경험상으로 시간정보를 알고 신호를 지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
고 생각합니다.

잔여시간 표시장치를 보고 예측출발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으며, 잔여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운
전자들이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속도를 높여 대형사고로 이
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동 장치를 도입, 운영하는 국가는 중국, 터키정도에 불과하며, 미국, 영
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교통선진국에서는 도입된 사례 없습니다.

→ 교통량이 많은 나라에서 교통사고가 많을 확률이 높다고 가정할 때,
우리나라가 교통량이 적은 예전에는 교통사고 1위는 안했겠지요. 선진국
에서 오랜 세월을 거쳐 현재와 같은 선진의식이 정착되었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국민의식이 높아질 때까지 사고, 사망사
고 1위를 지키겠지요. 이러한 방법으로 의식변화에 기대를 거는 방법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개선노력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인 답변 내용을 보면, 운전자로 하여금 신호에 대한 주의를 분산
하고 신호예측에 의한 과속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이 틀렸다고는 할 없지만, 제 기준으로는 신호에 대한 주의를 분산하는 일은 적다고 느껴집니다.

예측출발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제안은 청색등에 보조 전자식 표시를 하자는 의견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기를,,

예측출발이란 적색등에서 청색등이 켜질 것을 알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현재도 완충등인 타 각도의 신호등인 황색등을 보고 예측출발이 가능합니다(적색등에 숫자를 표시한다는 의견이 아닙니다). 전자식 표시등에 대한 예측출발만을 문제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전자식 신호제안은 청색등에만 숫자를 달자는 제안입니다. 청색등에 전자식 숫자표시는 정면에서 식별할 수 있어 예측출발이라 함은 타 각도의 신호를 보고 예측한다는 이야기로 경찰청의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내용을 검토하니, 제 의견에 대하여 1주일 만에 답변하기엔 곤란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단기간에 판단하기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보완 신호등 도입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웃으며 살자(인터넷 자료)

교통 사고 나면 제일 빨리 오는 녀름

일본에서 교통 사고가 나면 제일 빨리 오는 녀름
보험 회사 직원이 달려와서
보험 약관과 보험지불내용을 알려준다.

미국에서 교통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교통 경찰이 달려와 사고 경위와
처리 결과를 알려 준다.

한국에서 교통 사고가 나면
온~동네를 떠들면서 렉카가 달려온다.
그것도 중앙선 갓길 무시하고 오고 또 온다.
아주 길이 막힐 때까지 온다. 신속하게 그리고 사람은 내동댕이치고 어
느새 차만 끌고 번개 같이 사라진다.

일본에서 교통이 체증되면 제일 먼저 달려오는 녀름
신호기 기술자다.
그리고 유효적절하게 신호체계를 작동한다.

미국에서 교통이 체증되면 제일 먼저 달려오는 녀름
교통 경찰로 신호기를 무시하고 수신호로 교통을 통제한다.

우리나라에서 교통이 체증되면 제일 먼저 달려오는 녀름
* * * * *
호두과자 1000원 빵튀기 2000원 옥수수 3000원이요.

2.10. 참고 : 언론기고문

[기고]우리는 왜 분노하는가(이배화)

궁금증과 설렘으로 기다려 왔던 영화 <부러진 화살>을 나는 개봉 2주 전 시사회를 통해서 관람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영화의 백미는 결심공판을 보기 위해 미국에서 귀국한 김명호 교수 아들이 “아버지, 힘내세요!”라고 격려하는 대목이다. 테러리스트로 낙인찍힌 아버지에게 세상에서 유일하게 변함없는 지지와 신뢰를 보내는 아들. 그 의리에 갑자기 눈물이 복받치고 가슴이 먹먹했다.

사실 이 영화는 자칫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는 법정 실화를 다루고 있어서 <도가니>처럼 히트할지 여부는 사실상 불투명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예상 밖으로 반향은 크고 논쟁은 뜨겁다. 작가, 감독, 담당 변호사의 리얼한 증언들이 사법부 현실을 고발하자, 대법원은 눈과 귀는 있는지 눈치만 살피고 있다.

논쟁의 첫머리는 영화의 예술성과 리얼리티 문제이다. 이택광 교수는 <부러진 화살이 겨냥한 곳>을 아마도 권력에 소외된 자들의 평등요구로 일상화시키고 정글 법칙의 규범성으로 인정하는 것 같다. 박찬운 교수는 <사법부를 향한 화살이 살짝 빗나갔습니다>라고 전제하고 석궁 테러 행위가 정의로운 일인지 일갈하면서도 구태의연한 사법부의 권위주의적 불통을 자신의 경험에 비춰 통렬히 비판하고 정중히 사법개혁을 지적했다. 정지석 변호사의 <변호사가 본 부러진 화살, 불편했다> 역시 비슷한 주장이다. 나도 사실 사법적 정의문제는 형식논리 측면에서 별개일 수 있고 관객의 몫으로 맡긴 게 옳았다고 본다. 담당 변호사 역시 석궁을 들고 판사의 집을 찾아간 행위 자체를 무죄라 말하는 게 아니며, 김명호 교수도 자기의 행동을 스스로를 죽이는 일이었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애당초 이 사건은 김 교수의 재임용 탈락에서 우리 대학사회의 고질적인 ‘후진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자연법칙을 연구하는 수학자적 양심을 자질문제로 읊아매어 매장시킨 것은 인권탄압, 명예훼손의 결정판이다. 다수의 반교육적인 횡포가 한 사람의 양심의 소리를

억압하는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자화상이다. 이 학교의 재단은 막강한 삼성재벌기업이 아닌가? 한때 재야인사였던 장을병 총장, 보직교수와 학과 동료교수들이 김 교수의 주장을 묵살하면서 느꼈을 고뇌에 위로를 보내고 싶다.

이처럼 잘못 끼운 첫 단추가 재판에서 버젓이 추인되는, 전근대적인 조직문화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사법부 현주소다. 이 같은 현실이 김 교수를 결국 불속에 뛰어들게 했고, 사법부의 비양심적인 위법에 헛불을 들게 했다. 그래서 관객들은 그의 ‘분노’가 이유 있다며 감동하고 있는 게 아닐까?

표면적인 핵심 쟁점은 사회적 약자와 법원 사이의 진실공방이다. 양심적인 수학자와 국가 거대 권력기관, 그것도 재판을 관할하는 사법부 간의 진실게임에서 국민은 누구의 말을 믿을까? “영화가 테러를 미화했다”는 대법원의 주장을 믿을 사람은 그들처럼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10% 소수일 뿐이다. 나의 해직 고통과 비참했던 재판경험에 비춰 봐도 수학자인 김명호 교수의 증언에 훨씬 공감이 간다.

이미 오래전부터 권력 지향적 판사들이 요직을 독식하고 특정지역 출신 판사들의 사조직이 군대 내 하나회처럼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곳이 사법부다. 그들에게 이런 관행을 자정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놓은 ‘소통 국민 속으로’ 알림마당을 보라. 오직 목전의 국면만 회피하려는 속내가 훤히 보인다.

왜, 무엇을 분노하는가? <부러진 화살>, 이 한 편의 영화가 던진 메시지를 간과해선 안된다. 전근대적 사법부 권력을 이젠 국민의 품으로 찾아와야 한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사법민주화를 위해 사법 시스템을 시대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풀뿌리 민주화, 민생 복지의 첩경이다.

<이배화 | 한라대 건축학과 해직교수>

입력 : 2012-02-06 21:08:13 | 수정 : 2012-02-06 21:08:14

[박노자 칼럼] 한국 자본의 ‘통념’, 인종주의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한국학)

어렸을 때 텔레비전에서 자주 보여주었던 <툼 아저씨의 오두막> 장면들은 필자의 머릿속에 각인됐다. 흑서의 미국 남부 여름에, 땀약볕에 땀을 흘리는 흑인 노예, 그리고 채찍으로 그들을 위협하면서 “야, 이놈들아, 해는 아직 지지 않았으니 열심히들 하라”고 고함을 지르는 백인 지배인… 소련 텔레비전에서 이와 같은 영화들을 ‘제국주의 역사 바로 알기’ 차원에서 보여주었는데, 필자 또한 이 장면이 현재와는 무관하다고 믿으면서 자랐다. 대한민국이 앞장서는 요즘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착취의 지구화’ 현상을 알게 되고서야 인종주의적이며 폭력적인 노동자 혹사가 현재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

“열대의 뜨거운 공기 속에서 수백명의, 주로 피부색이 가무스름한 인디언 계통의 젊은 여성들은 방직 작업에 열중한다. 옆에 있는 동료에게 말 걸기조차 무섭다. ‘잡담’하다가 걸리면 한국인 관리자가 와서 머리를 마구 때리거나 적어도 폭언을 쏟아붓기 때문이다. 체벌을 당하면 악취 나는 화장실로 도망가듯이 가서 실컷 울기라도 하고 싶지만 그것도 쉽지 않다. 화장실을 자주 다닌다고, 한국인 관리자가 면박 주거나 또 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관리자가 보통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어로 고함 지른다. 그러나 이러다가 ‘빨리빨리’와 ‘개새끼’ 등 일부 단어들을 가무스름한 피부의 모든 노동자들이 알게 되는 것이다.”

<툼 아저씨의 오두막> 장면을 연상시키는 위의 이야기는 한 인권활동가가 묘사한 1980년대 말 과테말라 한국계 방직회사의 일상이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국내에서 과거와 같은 마구잡이 임금착취가 어려워지자 방직업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친한적인’ 극우정권이 다스리는 과테말라와 같은 나라들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은 과테말라에서 제1위 투자국가였는데, 그 ‘성공’의 이면에 피부색이 검은 인디언 노동자들에 대한 기록적인 혹사와 일상화된 체벌·폭력이 있었다. 한국계 공장에서의 폭력이 어느 정도 심했기에 한국과 과테말라 양쪽 정권의 ‘기동서방’ 격인 미국의 국무부마저도 결국 ‘조사’를

해야 할 정도였을까? 한국 기업들에 의한 폭력과 초과착취, 군사주의적 노동자 통제의 ‘해외수출’의 효시 중 하나였던 과테말라 투자 붐은 결국 중국과 베트남의 부상으로 끝났지만, 한 가지는 바뀌지 않았다. 백인이 아닌, 특히 피부색이 까만 외국 노동자에 대한 끝이 없는 인격적 무시와 끔찍한 폭력의 연속, 즉 살인적 인종주의다.

물론 한국 기업의 착취와 부당노동행위의 일차적 피해자는 누구보다도 국내 노동자들이다. 또한 백인 노동자라고 해서 이윤추구에 눈이 먼 국내 자본가들로부터 각종 권리침해를 당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한국 학원업자들의 영어 원어민 강사(주로 미국 등 국적의 백인)에 대한 임금체불, 잔업강요, 퇴직금 지급 거부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는 이미 국제적으로 문제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인이나 백인에 대해서는 적어도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노예취급’ 하듯이 대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하지만 ‘검둥이’, 피부색이 가무스름한 노동자들에 대한 대접은 완전히 다르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 2011년 12월호에서 보도된 한국 참치배에서의 인도네시아 선원에 대한 상습적 가혹행위 등의 만행은 예외라기보다는 다반사에 가깝다. 한국 기업의 착취 대상이 된 피부색이 까만 사람은 언제나 폭력이나 폭언을 각오하고 살아야 한다.

최근 국내에서 벌어지는 인종주의 관련 논의의 초점은 국내 거주 동남아 인이나 흑인 등에 대한 몰상식한 일부 일반인의 모욕 등에 맞추어져 있다. 서민들까지 지배자들의 ‘통념’을 그대로 배우는 것도 물론 한탄스러운 일이지만, 문제의 핵심은 미국식 ‘인종 질서’를 그대로 익혀 인종주의를 착취의 무기로 삼는 한국 자본가들이다. 그들이야말로 한국을 피부색이 다른 사람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가 어려운 곳 중 하나로 만들었다. 과연 우리들이 인종과 국경을 초월하는 연대정신으로 그들의 ‘통념’에 맞설 수 있을 것인가?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국립대 교수·한국학

삼성, 그린피스 선정 ‘최악의 기업’ 후보에

온라인투표 중간집계 1위

남종영 기자

삼성이 인간과 환경에 가장 많은 해를 끼친 기업을 선정하는 ‘퍼블릭 아이(public eye) 상’ 후보에 올랐다. 환경단체인 그린피스 스위스와 스위스 시민단체인 ‘베른 선언’이 세계 시민단체들한테 추천을 받아 해마다 선정하는 이 상의 후보에는 삼성 등 세계적인 대기업 6곳이 올랐으며, 9일 현재 온라인 투표 중간집계 결과 삼성이 1위를 달리고 있다.

두 단체는 9일 “퍼블릭 아이는 인간과 환경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 세계 시장의 주요 대기업들한테 수여하는 불명예스러운 상”이라며 “전세계 시민단체들한테 40개 기업을 추천받아 이 가운데 삼성과 도쿄전력(테코) 등 6개 후보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스위스에서 매년 1월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에 맞서 2000년부터 시민단체의 추천과 시민들의 투표로 ‘최악의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이들은 삼성에 대해 “반도체 공장의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고농도의 독성물질을 사용해 노동자들의 암을 불러왔다”며 “이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여전히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방사능 유출 사고가 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운영업체인 전력회사 도쿄전력, 아마존강에 ‘벨루몬치’ 댐을 지어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있는 브라질의 광산업체 발리(Vale)도 최종 후보에 올랐다. 세계 곡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영국 금융회사 바클레이스와 미국의 광산 기업 프리포트 맥모란, 스위스 농업회사 신젠타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퍼블릭 아이 누리집(www.publiceye.ch)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투표는 26일에 끝난다. 2011년 최악의 기업은 27일 세계경제포럼이 열리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기고] 엄마, 전 지금 죽고 싶다구요! / 이광현
자살하는 사람에겐 특징이 있다
자살 시도 전에 약 80%가 누군가에게
‘죽고 싶다’는 표현을 한다는 것이다

이광현 동국대 경주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자살사건으로 세상이 시끄럽다.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까?

우리나라의 전체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가장 높다. 2009년 한해에만도 약 1만5500명이 자살로 사망하였다. 30분당 1명씩 자살로 죽음을 맞이한 셈이다.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로 목숨을 잃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나 목적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정신의학적으로 첫째, 견딜 수 없는 고통이나 힘든 스트레스에 직면하여 이를 벗어나고자 자살을 선택한다. 둘째, 너무 힘들고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나만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이다. 셋째는 극도의 적개심이나 분노, 복수심으로 분노의 화살을 자신에게 돌리는 경우이다. ‘내가 죽고 너도 고통을 받아보라’는 보복심리가 내재되어 있다. 넷째는 큰 실패 등을 직면했을 때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못난 자기’를 응징하려는 자기애적 상처에 따른 자살이 있다. 다섯째로는 상실에 대한 고통으로 부모나 배우자, 연인을 따라 저세상으로 가서 죽은 사람과 재회하고 위로받고자 하는 심리로 자살을 선택한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 중에는 남들이 모르는 정신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있다. 자살자의 60~80%는 정신의학적 문제나 질환을 갖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청소년 자살의 특징은 성공률이 높지는 않지만, 시도율은 모든 연령층을 통틀어 가장 높다는 점이다. 10대의 사망 중 자살로 인한 사망이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한다. 글레이저 등에 따르면, 청소년의 자살 가운데 다른 연령층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우울증으로 인한 경우는 10%

미만이고, 충동이나 남을 조종하려는 의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복수하려는 의도가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굴드 등은 대인관계의 갈등이나 상실이 청소년 자살 대부분의 촉발인자가 된다고 보았다.

엘카인드 등은 ‘가상적 청중’이란 개념을 도입하여 자신이 자신의 행동·외모·생각·감정에 몰두하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들도 나의 행동·외모·사고·감정을 주목할 것이다’라고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고민한다고 하였다. 청소년들은 유명인이나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자살을 하면 ‘나도 저렇게 죽으면 편하지 않을까’ 혹은 ‘나도 그 사람을 따라 죽고 싶다’는 마음에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 ‘베르테르 효과’라는 모방자살이다. 이 시기는 아직 확고한 주체성이 확립되지 않아 미래의 꿈이나 이상을 좇아 어려움이 있더라도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해결해나갈 힘이 부족하다. 그래서 타인의 이야기에 영향을 받고, 눈치를 보고,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쉬운 시기이다.

자살을 이야기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예측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하지만 자살하는 사람에겐 특징이 있다. 자살 시도 전에 약 80% 이상의 사람들이 ‘죽고 싶다’는 표현을 누군가에게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거나, 자신의 신변을 정리하고, 작별인사를 하고, 평소 아끼던 물건이나 돈을 주어버리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유를 물어보고, ‘죽고 싶다’는 등의 표현이 있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국가나 지자체에서 ‘정신보건센터’나 교육청 소속 ‘위센터’ 등을 통해 청소년 정신건강 검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은 학부모의 동의가 없는 진단이나 치료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학부모에게 연락을 하면 ‘우리 애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친구들이 문제다’, ‘정신질환자 취급을 한다’, ‘아이 장래를 망친다’는 식으로 낙인을 걱정하여 치료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다.

실제로 아이의 고민이나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는 부모도 상당히 많다. 등교를 거부하거나, 청소년 비행 등의 문제가 벌어지거나, 자살 시

도 등의 사고가 생기고 나서야 사후약방문 식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를 많이 본다. 일차적으로는 부모와 아동·청소년 사이에 많은 대화와 보살핌이 우선이겠지만, 국가에서 법적·제도적으로도 문제가 발견된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치료적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광헌 동국대 경주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권태선 칼럼] 학교폭력, 우리가 가해자다

권태선 편집인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경찰은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달 안에 대책을 내놓겠다고며 부랴부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형사처벌 연령을 14살 이상에서 12살 이상으로 낮추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이 모든 소동을 바라보는 심정은 씁쓸하기만 하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 사회는 지금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학교폭력은 줄어드는커녕 갈수록 늘어만 왔다. 최근 한·중·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절반에 가까운 49%가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38%, 일본은 28%였다니 우리의 심각성은 말할 필요도 없다. 대책은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원인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정부 대책에는 그 성찰이 보이지 않는다. 그저 가해자를 처벌하고 격리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여기는 듯하다.

하지만 지금 구속돼 처벌을 기다리는 두 소년만 가해자일까? 아니다. 오히려 학교를 이 지경으로 만든 채 방치한 우리 모두가 가해자다. 학교는 일반적으로 군대나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의사와 내적 리듬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억압적 사회다. 학생들의 일탈행위는 이런 억압에 대한 저항으로서 줄곧 있어 왔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런 제도적 억압에 더해 입시라는 질곡이 덧씌워져 있다. 입시경쟁은 초등학교, 심지어 유치원부터 시작된다.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해도 공부 안 하고 었나갈까 봐 내버려둔다는 부모가 30%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로 부모의 관심은 오로지 성적뿐이다. 이런 부모 등쌀에 교사들 역시 제대로 된 인성교육은 엄두도 못 낸다. 인성지도를 책임지도록 돼 있는 상담교사조차 본업 대신 입시상담에 주력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서울 동덕여고 상담교사 박현주씨는 “좋은 성적이란 결과물이 아이들 자신보다 더 존중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모든 아이들은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한다. 사랑의 결핍, 배려의 결핍이다. 아이들이 아프다고 외쳐도 어른들은 외면해 왔다. 마음의 문을 닫아걸 아이들은 컴퓨터나

오락에서 그 위안을 찾았다. 그러나 그곳에는 폭력물과 음란물이 넘쳐난다. 따스한 인간적 접촉과 배려가 결핍된 아이들이 이런 환경에서 다른이의 아픔에 공감할 능력을 키우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물론이고, 가해자도 모두 우리가 만들어놓은 이 끔찍한 사회, 끔찍한 교육 환경의 희생자다. 문제가 되는 방식으로 배우고 행동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바뀌지 않고는 학교폭력이 해결될 수 없다. 아이들을 쫓아내는 대신 그들의 병든 마음을 보살피고 스스로 반사회적인 전략을 버릴 수 있도록 돕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렇다고 단기적 대책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마련하고, 학부모와 교사 및 지역사회 인사들로 학교폭력 구조대를 만들 수도 있다. 또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에게까지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제대로 시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아울러, 극도의 경쟁으로 날카로워진 아이들의 공격성을 완화할 수 있는 인성계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도 있다. 동덕여고는 지난해 1학년을 대상으로 주 1회 명상 수업을 진행했다. 수업 전후를 비교한 결과, 학생들의 자존감이 향상되고 압박감이 줄어드는 성과가 확인됐다고 한다. 아이들은 명상 수업의 느낌을 ‘치유’, ‘메마른 땅의 소낙비’, ‘사막 속 오아시스’ 등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어떤 단기 대책도, 아이들을 메마른 사막으로 몰아넣는 입시 위주의 경쟁체제에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장기적인 대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제대로 효과를 올릴 수 없다. 핀란드처럼 좌우를 넘어 모든 당사자들이 나라의 백년지대계를 위해 아이들을 죽음과 폭력으로 내모는 ‘죽음의 교육’이 아닌 ‘살림의 교육’을 실현할 방안을 찾아보자. 마침 선거철이니, 주요 정당들이 교육정책만큼은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공통으로 마련해볼 수도 있지 않은가. 아이들을 살리자!

권태선 편집인 kwonts@hani.co.kr

[백승종의 역설] 부실공화국

백승종 마을공동체문화연구소 대표

1970년 와우아파트가 와르르 무너졌을 때부터 이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토목공사가 부신했기 때문이다. 1994년에는 성수대교가 한강에 주저앉았고, 그 이듬해에는 또 삼풍백화점이 쓰러졌다. 그때도 부실공화국이란 말이 붓물을 이루었다. 현 정권에 들어와서는 아예 상시적으로 쓰는 표현이 되었다. 군대 막사에서는 성난 병사가 한풀이 삼아 총질하고, 입시 지옥에 시달리는 어린아이들은 저희들끼리 괴롭히다 자살하고 선생님까지 폭행한다. 사태가 심각하지만 이 정권은 변변한 대책 하나 없다.

눈귀를 몽땅 틀어막고 저희들 하고 싶은 대로 저지레만 한다. 시민들의 빗발치는 반대 속에도 22조원을 보란 듯이 4대강 강바닥에 쏟아부었다. 농민들의 아우성, 야당 국회의원들의 거센 반대도 못 본 체하고 문제투성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무사통과시켰다. 천안함이 가라앉고 연평도에 포연이 피어올랐을 때는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국가안보의 현 것발을 꺼내 휘저으며 사방에 눈을 부라렸다. 그래서 제대로 된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 총체적 부실공화국이다.

본래 부실이란 말은 <좌씨전>에 나온다. 춘추시대 노(魯)나라 영읍(甯邑) 땅에 요셋말로 여관이 하나 있었다. 그 주인은 우연히 자기 집에 유숙한 진(晉)나라 양처보(陽處父) 대감의 풍모에 반해 가족도 버려둔 채 쫓아갔다. 그러나 알고 보니 대감님은 자기고집만 피우는 사람이었다. 겉모양은 그럴싸했지만 실속이 없었다(華而不實). 아무래도 앞날이 불길하였다. 여관 주인은 마음을 다잡아 집으로 되돌아왔다. 아닌 게 아니라 문제의 대감님은 그 얼마 뒤 비명횡사했다.

대감이 부실한 줄 미리 알아본 여관 주인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식량주권도 포기해버리고, 이웃나라에서 원자료가 터졌는데도 무서운 줄 모르고 새로 또 원자력발전소를 짓겠다는 이 억지. 속 시원히 말 잘하는 ‘봉도사’는 왜 잡아가두느냐. 공주가 하면 연애, 도사가 하면 스캔들이구나. 완전히 빗 좋은 개살구다.

마을공동체문화연구소 대표 백승종

‘투신자살’ 삼성전자 노동자 유가족, 공장 앞 ‘1인 시위’

“죽음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삼성의 책임입니다”라고 호소

수원시민신문

▲ 삼성전자 LCD공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고 김주현 노동자의 아버지. 사진 : 반올림. © 뉴스원(데일리경인)

(뉴스원) 삼성전자 LCD 공장 내 기숙사에서 투신자살한 노동자 고 김주현씨(25)의 유가족이 17일 삼성의 공개 사과를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들어갔다.

김씨의 아버지 김명복씨(58)는 이날 오전 7시40분께부터 충남 아산시 탕정면 소재 삼성전자 LCD공장 앞에서 큼직한 손팻말은 세워놓고 약 1시간 가량 홀로 시위를 벌였다.

손팻말에는 아들의 영정사진과 ‘삼성 LCD 엔지니어’였던 경력을 비롯해 이러한 호소가 담겼다.

“죽음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기숙사에서 투신하려던 그를 무책임하게 방치하지 않았다면.. 밥도 못먹을만큼 쪼기며 일하지 않아도 되었더라면... 14시간씩 피로하지 않고 지냈더라면, 삼성의 직장문화가 인권적이었더라면... 삼성의 책임입니다!”

“죽음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삼성의 책임입니다”

이와 관련 김씨의 누나는 이날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카페에 올린 글을 통해 “주현이의 억울한 죽음과 삼성의 오만방자한 태도에 분노를 느끼며 추운날씨이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면서 “죽음으로 몰고 간 삼성에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김씨의 누나는 또한 “계단으로 바위 치는 격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계란을 잡게 한다면 저는 그 거대한 바위에게도 흠집이 날것이며, 분명히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보게 될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많이 알려져서 삼성에게 힘없는 사람도 이렇게 모이면 거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여주고 싶다”고 간절한 소망을 털어냈다.

김씨의 유가족들은 앞으로 날마다 공장 앞 1인 시위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첫날 1인 시위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나 직원들은 별다른 반응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전자 LCD공자의 설비 엔지니어였던 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30분께 기숙사 13층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유가족 등에 따르면 김씨는 팹(FAB) 공정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으로 2개월간 병가를 마치고 전날인 10일 복귀한 상황이었다.

특히 김씨는 LCD 생산라인에서 방진복을 입고 일했으며 피부 허물이 벗겨지고 반점까지 생기는 피부병 증세도 있어 회사에 호소하여 작업부서를 옮겼지만 인간적 모멸감을 받으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결국 병가를 받고 우울증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유가족과 반올림은 지난 14일 천안 순천향대 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 당일 두 차례 자살을 시도한 김씨를 삼성측에서 기숙사 방에 홀로 두고, 하루 10~15시간 노동으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게 한 점 등을 들어 삼성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또한 엄정한 재수사를 통해 김씨를 자살로 내몬 책임이 삼성에게 있음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경찰쪽에 요구했다.

앞서 이 공장 기숙사에서는 지난 3일에도 노동자 B씨(여, 24)가 기숙사 18층에서 투신해 자살한 바 있다. B씨는 우울증 등으로 6개월간 병가를 받아 쉬던 중 회사 복귀를 앞두고 목숨을 끊었다.

삼성전자측 “개인 사정으로 병가 휴가를 냈던 중 예기치 않은 사고 당해 안타까운 마음”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13일 ‘블로그’에 “최근 천안과 탕정사업장에서 일어난 2건의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들과 유족들에게 회사는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한다”면서 “고 김모 사원과 박모 사원은 천안, 탕정사업장에서 근무하다 개인 사정으로 병가 휴가를 냈던 중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하게 돼 회사와 전 임직원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는 글을 올렸다.

삼성전자는 또한 “회사에서는 2000년부터 상담심리학을 전공한 전문 심리상담사들을 각 사업장에 배치하는 등 직원들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세심하게 신경을 써왔다”면서 “올해부터는 정기 건강검진 시 정신과 검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임직원들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BK, 김경준, 공구리 관계사 간단정리

스크랩/정치 2007/11/23 11:00

전주와 바지사장의 전형적인 관계다.

참 오랜만에 글을 쓴다. 미안 서프앙 여러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비자금 사건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 일부러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기도 했다.

이 사건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오늘은 걱정하고 사건의 전말을 집
중분석했다. 의외로 간단한 사건이네 하고 정리가 되었다(욕하지 말라
경험자라서 이해가 조금 빨랐다는 의미다).

- 사건의 간단한 개요(사전 설명)

본좌처럼(좀 썩스럽다 이런말) M&A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1999-2000년 사이의 코스닥 열풍은 일확천금의 기회였다. 좀 사기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유혹 견디기 어렵다.

그런데 본좌 가슴이 새가슴이라 그림만 그리고 실천을 못했다.

주식투자로 돈을 벌어보자는 의기투합은 둘 사이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약간의 테크닉만 구사하면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시기였다.

돈이 졸라 많은 공구리 선수와 이미 외국계증권사에서 8억원의 연봉을
받고 있던 김경준의 조합은 환상 그 자체였다. 인재를 알아보는 공구리
의 안목은 인정해줘야 된다.

일단 거액의 증권투자를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문사 설립이
필요하고 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실현해줄 수 있는 지주회사도 필요하고
투자자문사의 증권투자를 실행할 수 있는 증권사도 필요하다.

BBK투자자문. 고객의 돈으로 주식투자를 통해 발생한 이득을 고객에게
돌려주고 자신(법인)은 수수료를 챙기는 회사다. 최소 설립자본금 30억원.

주식투자방식, 주식투자 소프트웨어, 즉 투자기법을 제공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LKe BANK다. 이 회사 최소 자본금 같은 거 없다. 그래서 지주회사다.

다음 이를 실증적으로 주식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설립한 회사가 LKe증권중개 회사다.최소 설립자본금 100억원.

서로 각각의 역할이 필요해서 3개의 회사를 설립했지만 그놈이 그놈이고 한통속이라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회사 종업원들의 신분도 이리저리 이동을 하는 이유다.

펼치기..

* 위의 방법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구현하는지 알아보자

- 시대적 배경

이 익치 알지 이시기에(1999년-2000년) 바이코리아로 현대증권이 난리를 친다. 지금 미래에셋은 새발의 피다. 실업자인 이명박이 자극을 받는다. 미국과 오가면서 이미 알고 있던 에리카 김과의 관계로 유능한 증권 전문가 김경준을 알게 된다. 벌써 김경준은 1998년에 외국계증권사 펀드 매니저로 연봉 8억원을 받는 금융의 귀재였다.

- 회사 설립 및 사채업자와 바지사장

김 경준은 이명박을 만나고나서 단돈 1원도 투자하지 않는다. 다만 금융 지식을 제공하고 명의를 빌려주는 바지사장이다. 돈의 출처는 모두 이명박 즉 다스의 돈이다. 아래에 김경준 지분으로 나오는 것은 모두 이명박의 돈이며 이는 도곡동 땅 매도자금이고 다스를 통해 조달된다.

작당을 한다. 내가 돈을 대줄테니까 증권으로 돈 좀 벌어보자 하고 사채업자와 바지사장의 관계를 맺는다.

여 기서 BBK투자자문(자본금 5천만원, 이걸 김경준 돈 맞다)을 이용하기로 하고 지주회사를 설립한다. 그것이 바로 LKe BANK다. 2000년 2월

자본금 20억원으로 설립(100% 이명박지분)하고 그해 6월에 이명박 10억원 김경준 30억원(BBK에서 빌린돈) 하나은행 5억원을 증자하여 자본금 65억원의 회사가 된다.

LKe BANK 자본금 65억원의 일부인 30억원이 BBK투자자문회사의 자본금으로 들어간다. 그러니 100% 자회사 맞다.

- 회사 설립 일자별 정리

1. 1999년 4월 27일

BBK 투자자문 설립 (자본금 5천만원, 주주 : BBK 캐피탈파트너(김경준 개인회사))

2. 1999년 11월 16일

BBK투자자문 투자자문업 등록(자본금 30억5천만원, 주주 : 이캐피탈 30억원)

이후 이캐피탈 자본금 회수하고 이를 모두 BBK 캐피탈파트너사가 매입 (이때도 이명박 돈이 투입)

3. 2000년 2월 18일

LKe BANK 설립(자본금 20억원, 주주 : 이명박 100% 지분)

4. 2000년 6월

LKe BANK 증자(김경준 30억원, 이명박 10억원, 하나은행 5억원)

여기에 들어간 김경준 30억원은 BBK투자자문 증자시 이캐피탈 증자금 30억원을

김경준이 회수하는 과정에 빌려준 돈으로 역시 이명박 돈이다.

아직 갈길이 멀다. 벌써 여기서 지치는 분들은 포기하고 잠들 주무시라. 여기까지 만으로도 우리 공구리 선수 가장납입, 이중기재 등으로 범법자다. 검찰이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들여 콩밥 먹일 수 있다. 그러나 생략하고

투자자금으로 주식투자(사실은 주가조작)

세 개 회사를 설립하는 데 든 돈이 190억원이다. 이는 다스가 투자한 190억원과 일치한다.

이렇게 잘나가던 회사설립 및 조작에 금감원이 제동을 걸고 넘어진다.

BBK투자자문의 자본금에 가장 납입으로 보고 투자자문사 등록을 취소한다. 2001년 4월 28일의 일이다. 그래서 폐업을 한다.

BBK투자자문이 폐업을 하니 EBK증권중개회사도 증권중개업을 자진철회한다. 모회사가 폐업되었으니 자회사도 자동으로 영업을 할 수 없기때문이다. 폐업이 예정되는 시점인 4월 8일에 폐업을 하게된다.

그러나 이미 투자자문사로 들어온 투자사들의 돈은 그대로 있다. 이는 그시기 유행했던 조세피난처에 펀드를 설립하고 투자하는 방식으로 소위 마프펀드로 이미 주식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이다.

이때 이미 모아진 투자액이 483억원이다. 포기할 수 없다. 갈데까지 가 보는 거다. 회장님 포기할가요 더 갈가요. 야 이 씨바야 더 가보자.

여기서 삼성그룹이 편법상속으로 써먹는 전환사채 즉 CB가 발행된다. CB로 투자금액을 보장해주고 본격적인 주식투자 M&A를 감행한다. 읍서 널벤처스(구 광은창투)를 인수하고 주가조작을 통해 졸라 돈을 번다.

2001년 12월 경준이는 회장님 저 미국으로 날아갑니다 한다. 근데 우리 착한 경준이 BBK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을 다 해결해주고 도망간다. (참 착한 사기꾼)

도망가는 전제 조건으로 '야 우리 야리끼리 하는거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 용감하고 착한 바지사장이 욕심을 내고 공구리 회장님 뭇을 안 준다. 환장한다.

몇년을 끙끙하다가 소송을 한다.

이 소송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온다. 사실은 경준이도 들어오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결론

공구리 : 씨벌넌 전주는 난데 이게 배신을 해 야 소송해

경준이 : 이 개새끼 내가 몸종노릇하면서 돈 벌어 줬는데 소송을 해 함

해보자

* 바지 사장을 내세웠던 공구리는 법리적으로 경준이가 대표이사 책임자이니 나는 자신있다.

* 난 바지사장이니까 실질적인 전주인 이명박과의 이면계약서가 있으니까 난 책임이 없다는 것.

둘다 사기꾼이고 책임을 묻자면 이명박 헤어 나오기 힘들다.

참고자료 : 이명박 관련 일지 [노짱토론방, 게시번호 155715, 오삼마 님 작성]

1994년 이명박, LA한인교회에서 김경준, 에리카김과 첫 대면

1995년 이명박, 한국에서의 에리카김 자서전 출판기념회 참석

1995년 6월 도곡동땅 포스코건설에 매각(263억)

1995년 12월 도곡동땅 매각자금 생명보험사에 맡겨짐

1997년 7월 김경준 귀국, 샐러먼스미스바니환은증권 펀드매니저 재직

1998년 이명박 후보 의원직 사퇴

1998년~1999년 이명박 후보 미국 워싱턴 연수

1999년 2월 김경준, 샐러먼스미스바니환은증권 퇴사

1999년 4월 김경준, 투자자문회사 BBK 설립

(자본금 김경준 5천만원 + 투신사 30억)

1999년 11월 16일 김경준, 투자자문회사 BBK 등록

2000년 2월 삼성생명, BBK에 100억 투자

2000년 2월 이명박 후보 김경준과 동업, LKe뱅크 창업

자본금 62억 5000만원(이 후보 30억, 김경준 30억)

2000년 3월~12월 다스, BBK에 190억 투자

2000년 8월 LKe뱅크, 자본금 대부분을 역외펀드인 MAF에 맡김

2000년 10월 심택, BBK에 50억 투자(MAF펀드 투자 제의)

2000년 10월 10일 다스, BBK에 50억 송금(53억 어음할인)

2000년 10월 13일 이명박 후보의 중앙일보 인터뷰 게재

2000년 12월 주가조작 개시월

2000년 12월 29일 생명보험 만기환급금 157억 4800만원

이명박 후보의 형 이상은 계좌로 입금된 후 출금

(김재정 62억 8800만원 포함)

2001년 2월 2일 EBK증권중개 설립(대표 이명박, 김경준)
자본금 100억 5000만원(이명박 35억, 김경준 30억, 이상은 9억,
김재정 9억, 에리카김 9억, 크리스토퍼김 8억)

2001년 2월 21일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의 “주식거래계약서”

2001년 2월 삼성생명 BBK 투자금 100억 반환 요청

2001년 2월?3월? 심텍, BBK투자금 (50억) 반환 요청

2001년 3월? 심텍, BBK투자금 50억 중 20억 회수

2001년 2월 28일, 3월 2일 LKe뱅크에서 EBK로 100억 이동
LKe뱅크 주식을 A.M.Pappas로 매각(100억)

2001년 3월호 월간중앙 이명박 후보 인터뷰 내용 게재

2001년 3월 금감원이 김경준 사업 허가 취소

2001년 3월 삼성생명, 투자금액 123억 회수(투자수익 23억)

2001년 4월 김경준, 옛 광은창투 인수하여 옵셔널벤처스코리아로 상호
변경

2001년 4월 8일 EBK, 증권중개업 자진 철회

2001년 4월 18일 이명박과 김경준 동업 청산
LKe뱅크 대표이사 사임 (현 48% 지분 보유)
대표이사 래리 롱(가공인물)에 넘김

2001년 6월 21일 EBK에서 LKe뱅크로 96억 이동
A.M.Pappas와의 주식매매계약 해제로 매각 대금 100억이 환차손제외
96억으로

2001년 6월 사라진 도곡동땅 매각금, 이상은 계좌로 재임금(147억)

2001년 8월 김경준 (주)다스 측에 편집

2001년 9월 하나은행, LKe뱅크 투자금 5억 반환요구

2001년 10월 22일 심텍, 이 후보 재산 (부동산) 가압류 신청

2001년 10월 26일 다스, 김경준으로부터 39억 회수

2001년 11월 심텍, 김경준 + 이 후보 사기 및 횡령 혐의 고소

2001년 12월 4일 다스, 김경준으로부터 11억 회수(누계 50억)

2001년 12월 20일 김경준, 회사공금 384억 횡령 미국 도피

2002년 2월 주가 조작 종료월

2002년 2월 옵셔널벤처스 소액투자자 27인 김경준 상대 소송
2002년 3월 하나은행, 이명박.김경준 주식대금 관련 고소
2002년 5월 6일 하나은행, 이명박 부동산 5억 근저당 설정
2002년 5월 14일 하나은행, 이명박 고소 취하(김경준 고소 유지)
2003년 5월 다스, 김경준에 투자금 반환 소송
2004년 1월 한국 검찰, 미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
2004년 이명박 후보, 미국 법원에 소송

국민에게 고함

나홀로정론 (ssinmungo) | 11.07 23:59

독일의 피히테는 독일 국가와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적 자각이 필요하다는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명연설을 해서 오늘날 독일정신의 기초를 세웠다. 피히테의 이름을 거론하기에는 턱없는 필자가 감히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을 단 것은 한미 FTA 협정의 비준과 이를 둘러싼 정치 사회의 충돌과 혼란이 독일 국민이 역사적 기로에 서 있던 때와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한미 FTA는 무한대의 경쟁을 지향하고 있는 세계 무역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한미 FTA가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처럼 경제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5000년 한민족의 고유한 민족성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각오가 없으면 함부로 체결할 수 없는 성격이 있다는 것을 지나쳐서는 안된다.

한미 FTA 협정 조항에는 어느 한 국가의 미풍양속을 헤칠 염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런 사업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한미 양국은 상대의 미풍양속에 대한 기준과 이해가 다르고 따라서 상대의 동의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투자자가 ISD 조항을 들어서 국제적인 기구에 제소를 했을 때 한국의 전통과 미풍양속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경제적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고려하며 판단하게 되는 국제기구가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고려하여 판단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되는 경제적 이익이 없을 수도 있다는 주장과 개연성이 있는 문제를 미국의 요구와 5년 임기의 한나라 당의 정치적으로 로드맵에 의해서 날치기로 처리를 하는 사태가 온다면 이는 민족사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범죄가 될 것이며 이완용이 총대를 맨 을사늑약에 비견할바가 아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병하여 을사늑약을 체결할 때 내세운 논리가 대동아공영권이다. 큰 틀에서 동아시아가 함께 잘 먹고 잘 살자였다. 그러나 일본은 1 등민족이 되어 아시아를 지배하고 타 국가 국민들은 식민지가 되어 일제의 야욕에 희생자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필설로는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을 가고 목숨을 잃었고 그 때의 역사적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다.

세계의 역사는 제국주의 역사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무력으로 남의 나라를 점령하여 자국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국제법이나 분위기 때문에 할 수 없고 그 변형된 형태가 WTO 를 통한 국제 무역질서이다. 어느 나라든 국제기구가 정한 관세 이외에 관세를 물리면 안되며 국제 무역과 통화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그 정신의 요지다.

양식있는 사람들 중에 입달린 사람마다 자유무역은 돈 많고 기술 높은 나라에 유리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본도 주저하는 FTA 서둘러 체결하는 그 용기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것은 일본을 많이 의식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사에 일본을 경쟁 상대로 본 나머지 일본을 해 볼 수 있는 상대로 생각한다 심한 경우는 일본을 우습게 생각한다.

이런 생각들은 근거가 있는가 단지 기분상의 문제인가.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다. 독일이 따라오지 못하는 나라가 일본이다. 국가 GDP 로 볼 때 중국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은 아직 일본에게 게임 상대가 되지 않는 나라이다.우리가 일본을 극복하자 라고 의지를 불태우는 것은 박수를 받을 일이지만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처럼 근거없는 힘을 의지하고 다른 국가를 무시하는 것은 매우 비 이성적이다.

우리가 이런 비 이성적인 판단과 비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서둘러 유럽과 미국에 FTA 협정 체결을 서두른 것은 큰 착각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 물론 자동차 선박 분야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커가고 있는 분야에서 일본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 자동차는 현지 생산체제를 갖추었기 때문에 FTA로 더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다.

오히려 우리나라 중소기업, 자영업자, 농민들은 큰 위기에 빠지게 되어 있다. 이익도 기대할 수 없고 우리의 안방만 무차별적으로 미국기업들에게 내 줄 수 있는 한미 FTA 를 서둘러서 체결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익인가 아니면 친미적 보수성향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한나라 당의 당리인가 아님 오바마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은 이명박 개인의 욕심인가 무엇인가 무엇이 한미 FTA 비준을 서두르는 이유인가 ...

우리는 지금 민족적인 양심을 가지고 지켜야 할 가치를 내 주어야 하느냐 아니면 재벌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의 야욕을 위해서 들러리를 서려는 한나라 당의 준동을 무력화 시켜야 하느냐 하는 기로에 있다. 한나라 당이 날치기로 한미 FTA 를 통과시키도록 방관한다면 5000 년 역사에서 자자손손으로부터 죄인이라는 이름을 면치 못할 것이다.

5.16 군사 쿠데타 50년이 되는 시점에 박정희 통치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지금의 대한민국에 무엇을 남겼는가에 대해 따져봐야 할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권력자들의 음모와 살생 게임, 야만적 고문과 공포정치, 한강의 기적의 실제 경제성적표, 그리고 대통령의 술과 여자... '박정희 시대의 이야기'를 일주일에 2회 정도 풀어나갈 예정이다. <기자말>

최근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가 시민군에 붙잡혀 총살된 것을 보고 박정희와 10·26을 연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 나도 새삼 놀랐다. 그런데 곰곰 따져 보니 실제 카다피와 박정희가 닮은 점이 생각보다 많은 게 사실이다.

우선 두 사람은 색안경을 좋아한다. 언론에 보도된 카다피는 늘 검은 안

경을 쓰고 있었다. 박정희도 보도 사진이나 책에 진한 색안경을 쓴 모습으로 캐릭터화 돼 있다.

독재권력자와 색안경이 어떤 상관관계라도 있을까. 주위의 여러 사람들을 살펴보는 자신의 눈초리가 드러나지 않게 감추기 위해서일 것이다. 특히 박정희는 정보장교 출신이어서 본색을 위장하려는 잠재의식이 있을 것이다.

또 대형 토목건설 공사를 벌인 것도 두 사람의 공통점이다. 그런 토목공사가 영웅주의적 카리스마를 만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흔히 독재자들이 장기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큰 일을 벌인다. 박정희는 1960년대 말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다. 그리고 카다피는 리비아의 사막지대에 지중해의 물을 끌어들이는 대수로 공사를 벌여놓았다. 이 공사는 나일강의 수량을 200년 동안 공급할 수 있는 양인 35조 톤에 이르는 물을 지중해 연안으로 송수, 한반도 면적의 약 6배에 해당하는 3억6800만 평에 이르는 사막을 옥토화 시킨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세계 최대규모의 이 토목공사는 우리나라의 동아건설이 맡아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거대 토목공사와 독재권력은 상당한 상관 관계가 있다. 고대 중국의 진시황이 중국 내륙에 운하를 건설한 것도 그런 예 중 하나다. 물론 우리의 경부고속도로나 고대 중국의 운하, 그리고 리비아의 대수로가 경제적 기여를 한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필요가 없다. 더구나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국민의 피땀이 들어가야 하는가. 독재자가 그것을 장기집권의 명분으로 이용하는 것이 문제다.

세 사람 모두 개발독재자라고 할 수 있지만 국가 위상을 높인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 편이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일 뿐이지 결코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가져올 수가 없다는 점이 문제다. 더구나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가혹한 탄압과 퇴행적 정치제도로 타락하는 공통점이 있다.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하는 것이다.

박정희와 카다피는 닮은 꼴 독재권력

카다피와 박정희가 닮은 꼴인 것은 역시 민심의 이반으로 최후를 맞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다. 누구의 총에 맞아 죽었느냐는 것은 직접적인 사인에 해당하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장기독재에 대한 국민의 항거였다. 카다피도 붙잡히는 순간 경호원이 총을 쏘아 죽였다는 얘기가 보도되기도 했다. 민중의 손에 의해 처참해지기 전에 차라리 측근이 처리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일까. 김재규의 법정 진술에서도 그런 생각이 묻어나 있음을 느낀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대통령 박정희를 권총으로 살해한 10·26사건에 대한 군사재판은 1979년 12월 4일 첫 공판을 시작했다. 사건 발생 후 합수부가 수사를 개시한 지 39일 만에 재판이 열린 것이다. 1심 재판은 12월 18일 9회 공판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심리와 증인신문, 증거조사 등을 끝내더니 20일 선고까지 초고속으로 치달았다. 김재규와 박선호는 물론이려니와 청와대비서실장 김계원과 중정부장 수행부관 박흥주 대령 등 7명 모두 사형이었다. 이 중 김계원은 나중에 무기로 감형된다.

재판이 시작된 지 불과 16일 만에 선고까지 모든 절차를 마친다는 것은 사법사상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속도전이었다. 대통령 살해라는 엄청난 사건임을 생각하면 법조인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혀를 내두를 만큼 정신 못차리게 밀어 붙인 재판이었다.

항소심인 고등군법회의도 마찬가지였다. 1980년 1월 22일, 23일, 24일 연달아 3회 공판을 연 뒤 28일 선고해 버리고 말았다. 10·26 재판은 1심, 2심, 3심이 형량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 재판이 처음부터 이미 정해놓은 결론을 실천하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었느냐는 시각을 뒷받침하는 근거다.

거기다 1980년 5월 20일 대법원의 사형 확정 판결이 나오자 24일 김재규와 그 부하들을 함께 처형해 버리고 만다. 문명사회의 성찰과 고민이 눈꼽만큼도 담기지 않은 보복조치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박정희 친

위대 출신인 전두환 노태우의 하나회가 내란을 일으켜 국가권력을 찬탈했다는 표시이기도 했다. 김재규의 변호인단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등이 구명운동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내란집단의 조치를 막을 도리가 없었다. 정치범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여론이 반영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 김재규 최후진술 녹음테이프

© 오마이뉴스 김재규

10·26 군사재판 내용 중에서 중요한 역사 사료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중정부장 김재규와 중정 의전과장으로 채홍사 역할을 한 박선호의 법정 최후진술이다. 두 사람의 최후진술은 1심과 2심에서 행한 것으로 모두 4개다. 이것이 다행히도 당시 계엄사 법무감실의 녹음테이프에 담겨 이미 오래 전 기자 손에 입수됐다.

김재규의 최후진술 중 1979년 12월 18일 1심 재판정에서 행한 것은 박정희의 유신체제에 대한 종합적인 비판이 눈길을 끈다. 당시 그의 최후진술은 기자들을 포함해서 방청객을 내 보낸 뒤 비공개 법정에서야 이루어졌다.

1980년 1월 24일 2심 재판정에서 행한 김재규의 두 번째 최후진술은 10·26 거사의 정당성을 명쾌하게 역설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그의 2심 최후진술을 녹음으로 정리한다. 당시 정치상황은 전두환·노태우의 신군부가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사실상 박정희 후계권력을 장악한 뒤다.

박정희 "서울에서 사태 나면 내가 직접 발포 명령"

▲ 1979년 12월 20일 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제10회 선고 공판에서 김재규 피고인이 법정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 연합뉴스 박정희

김재규는 이런 바깥의 사정 변화를 아는지 모르는지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다. 그의 최후진술은 조금도 더듬거나 증언부언하지 않고 도도히 흐르는 한 편의 서사시와 같은 문장처럼 전개됐다. 어떤 숙련된 정치인의 연설도 이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느낌을 줄 정도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앞둔 사형수가 마지막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토해 내는 웅변이었다. 사람이 죽으면서 거짓을 말하지는 않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증언인 셈이다.

법무사 : "김재규 피고인께서는..."

변호사 : "피고인이 몹시 불편한 모양인데, 앉아서..."

법무사 : "앉아서 이야기 하십시오. 피고인은 아까 변호인의 신문, 이제 막 변호사의 변론, 또한 피고인의 진술을 통해서, 또한 앞으로 제출될 항소이유보충서에 의해서 그것은 약속대로 공판기록에 틀림없이 찾아 놓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김재규 : "네. 그동안 충분히 얘기했고, 변론도 있었고, 대부분 얘기는 됐지만, 이것이 최후의 진술이기 때문에 그저 몇 마디 마무리를 위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혁명의 필연성, 이것이 여러분들께서는 혹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정보를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이제는 도리가 없다. 모든 방법이 다 끊어졌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혁명을 결행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짐작은 했겠지만, 유신체제가 출범한 지 7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점점 누적된 유신체제에 대한 항거하는 국민의 생각은 전국민에게 아주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부마사태는 좋은 증

거입니다. 이것은 삽시간에 5대 도시로 번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유당 때 이승만 박사는 마지막에 가서 물러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군인출신이고 또 너무 완벽한 분입니다.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기어이 방어해 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희생됩니다. 부산사태를 돌아보고 와서 보고를 드렸더니, 각하의 결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만일 서울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내가 발포 명령을 하겠다,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이때 재판관을 주관하는 법무사가 참지 못하고 제지에 나선다. 그대로 나가다가는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과 단둘이 만나는 이른바 '독대'자리에서 오간 얘기가 나올 판이다. 그것을 놔 둘리 없었다. 사형을 면치 못할 줄 뻔히 아는 피고인의 최후진술인데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 다 똑같아... 이 방법밖에 없어"

법무사 : "저, 피고인 말이죠..."

김재규 : "네, 알았습니다. 그러나, 4·19 때 심한 불행이 있었습니다. 이 완벽한 성격의 이 분이 위에서 방어를 할 때, 어떤 험한 결과가 올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 결과가 몇 사람의 희생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급기야는 국기(國基)를 흔들어 놓는다, 미국도 우리하고 등집니다. 그러면 사상적으로도, 국가방위에서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더 이상 늦출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개인적으로는 대통령과의 관계가, 심판관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친형제간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생각했지만, 야수의 마음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내 목숨이 이 혁명과 바꾼다는 것을 각오하고 한 일입니다. 그래서 법무사 말씀도 있고 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필연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합니다.

보다 많은 희생을 막았습니다. 대통령 한 분을 희생시켰다는 것은 매우 마음 아픈 일이고, 역사적으로도 엄청난 일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다 아깝습니다. 다 똑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불행을 막기 위해서는 이 방법 밖에 없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재규는 많은 국민의 희생을 막기 위해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방법 밖에 없었다고 강조한다. 비록 박정희가 대통령이지만 민주국가에서는 모든 국민이 다 똑 같기 때문에 많은 국민의 희생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였다. 이는 10·26의 역사적 의미로서 매우 핵심적인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실제 1979년 10월 19일 시민항쟁이 터진 부산·마산에서 진압군의 발포가능성은 역사에서의 가정이 아니다. 7개월 뒤의 광주시민항쟁과 상황 변수들로 비교하더라도 동일한 것이어서 살상진압 음모를 부인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진압군으로 투입된 부대가 박희도 준장이 지휘하는 1공수여단, 최세창 준장의 3공수여단, 장기오 준장의 5공여단이었다. 이들이 어떤 부대인가. 지휘관이 모두 전두환을 수괴로 하는 하나회 소속으로 1980년 5월 광주시민항쟁을 살상 진압한 바로 그 공수부대들이다. 뿐만 아니라 부산·마산에 강경진압을 건의하고 사나운 공수부대를 투입한 '지옥의 사자'도 다름 아닌 차지철과 함께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이었다. 민주회복을 요구하는 국민을 상대로 한 이들의 살상진압 음모는 1차로 김재규에 의해 저지됐다. 그러나 다음해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발포까지 막지는 못한 셈이다.

차지철 "우리는 100만~200만 명쯤 희생 문제없어"

▲ 한미 합동 군사작전을 마치고 참가한 미 특전사 장병들을 격려하는 전두환 공수여단장.

© 연합뉴스 전두환

또 김재규는 1979년 12월 8일 열린 1심 2회 비공개 공판에서 "차지철 경호실장 같은 사람은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이나 희생시켰는데, 우리는 100만~200만 명 희생시키는 것쯤이야 뭐 문제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들으면 소름 끼칠 일들입니다"라고 증언했다.

이어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김재규는 민주정치와 여야 관계에 대해 견해를 밝힌다.

김재규 : "그 다음으로 가볍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너무 완벽하면 곤란합니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는 혈령혈령하게 좀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구멍이 너무 완벽해서 어디를 눌러도 손톱이 들어가지 않으니, 마지막 길로 치달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20~25년 앞당겨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당돌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제 목을 걸고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할 사람 없습니다. 결국은 20~25년 동안 자유의 맛 못보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 정치체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야당을 긴급조치로 죄인을 다 만들어 놓고, 매일 같이 왜 빨리 입건하지 않느냐고 하니, 이거 다 입건하면 뭘로 정치를 합니까?

김영삼이란 사람, 국회에서 제명하면 됐지, 사법처리 하라고 하니, 이래가지고야 누구를 믿고 누가 삽니까? 야당도 여당 믿고, 대통령 믿고 정치를 해야 하는데,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사지가 완전히 봉쇄된 상태다, 그래서 원컨대, 앞으로 어떤 분이 정치를 하든 간에, 민주주의 정치는 찬성이 있으면 반드시 반대가 있게 마련입니다. 대통령도 99.9% 지지하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당도 필요하고 야당도 필요한 것이고,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지지하면 오히려 몇 사람이 일어나서 "난 반대요"하는 것이 난 민주주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더 장황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법무사 : "예, 이유보충서에…."

재판부는 김재규의 최후진술을 자꾸 끊으려 했다. 갈수록 박정희 권력의 치부가 드러나는 증언이 나오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김재규의 최후진술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http://www.ohmynews.com>

[기자메모]FTA 정오표 공개 거부 ‘균색한 변명’

외교통상부가 지난 1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의 한글본 번역오류 정오표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정오표 공개는 “국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외교부가 1심 재판에서 제시한 핵심논리 중 하나를 그대로 옮겨보자.

“(한글본 번역오류 정오표가 공개될 경우) 한국과 미국 내에 한·미 FTA를 저지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진 반대론자들에게 불필요한 핑계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양국 내 비준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많다.”

한·미 FTA를 빨리 비준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명백한데 정오표가 공개되면 ‘이념적인 한·미 FTA 반대세력’이 이를 지연 전술로 악용해 국익 실현이 늦춰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오표 공개에 이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되레 외교부다. 우선 현재 상태의 한·미 FTA를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집단이라고 치부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 또 외교부의 논리대로 공개된 정오표가 지연 전술로 사용된다고 해도 이것이 국민의 알 권리마저 제한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더구나 번역오류로 인한 ‘부담’을 자초한 것은 바로 외교부 자신이다.

재판부도 인정했듯이 정오표를 공개한다고 해서 협상 전략이 노출되는 것은 아니고, 미국의 정보를 유출해 한국의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다. 국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는 없는 것이다. 외교부는 또 한·유럽연합(EU) FTA 번역오류 정오표는 이미 공개한 전례도 있다. 지금은 양국의 의회 비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상태다.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한·미 FTA가 발효되기 이전까지 부담스러운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일단 피하고 보자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외교부가 소모적인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여기는 정오표 공개가 “번역 오류가 투명하게 공표됨으로써 한·미 FTA 협상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여론 형성의 여건”(재판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경청하길 바란다.

<김지환 경제부 기자>

입력 : 2011-12-21 21:19:37 | 수정 : 2011-12-21 21:19:39

오스트리아 언론 “4대강, 완전히 정신나간짓”

한겨레 | 입력2012.02.13 15:40 | 수정2012.02.13 16:20 기사 내용[한겨레]한겨레 오피니언넷 혹은 바로가기

"4대강, 한국 최대의 환경 스캔들"

참혹한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경기부양책에 불과

한국의 4대강 사업이 2012년 벽두 유럽 언론에서 거론됐다. 오스트리아의 유력 일간지 '데어 슈탄다르트(Der Standard)'는 "4대강 살리기, 한국 최대의 환경 스캔들"이라는 기사에서 4대강 사업의 모순을 꼬집었다. 4대강 사업은 오로지 건설업계만을 위한 것일 뿐, 홍수예방, 수질개선, 식수확보 등 모든 부분에 부정적일 뿐 아니라, 베른하르트 독일 칼스루에 공대 전 교수의 말을 인용해 '생태계의 대참극' 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이 기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 내의 많은 비판을 철저히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요지부동의 불도저라고 비꼬았다. -번역연대

메가톤급 토목사업 4대강 살리기 - 한국 최대의 환경 스캔들

그 뒷이야기 | 서울에서 파비안 크레취머, 2012.1.5. 13:34

4대강 사업을 최고의 업적으로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 - 끊임없이 이어지는 반대

공사가 시작되기 전이나 진행되는 동안이나 이 하천사업에 대한 한국 내 비판은 강력했다. 이 나라의 역사에 기록될 거대한 토목공사가 완료되는 지금도 반대 함성이 무더질 기미는 없다.

나라의 큰 강 네 개를 복원하겠다고 177억 달러(135유로)를 들여 2년 만에 끝낸 사업은 이 지역(동아시아: 역자주)에서 유례없는 일이다. 강물을 막기 위하여 16개의 댐이 새로 건설되었다. 사업의 목적은 홍수의 피해를 막고 수질을 개선하고 강 주변을 오락과 여가 시설로 바꾸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연간 약 13억 톤의 식수를 더 확보할 것이라 기대한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물 부족 국가에서 벗어난다는 계산이다.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업

지난해 10월 22일 이명박 대통령은 그가 벌인 "역사적" 사업의 완공을 축하했다.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로써 그가 한국사 연보에 한 자리를 확보하고자 했다고 말한다.

한스 헬무트 베른하르트 전(前) 칼스루에 공대 교수에게 4대강 사업은 "완전히 정신나간 짓"이자 한낱 속임수에 불과하다. 사업 의도가 강의 복원에 있지 않다는 의견이다. "그들은 그저 보를 세웁니다. 그것 뿐이죠. 습지와 섬, 모래톱은 모조리 파헤쳐지고 말았습니다."

동식물계의 극단적인 파괴와는 별도로 4대강 사업은 생태의 대참극이라는 의견이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홍수, 지하수, 수질, 그 모든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라고 말한다.

이제 대다수의 국민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편에 서 있다. 시민단체가 이 사업을 "바벨탑을 쌓는 일"에 비유하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하천 전문가들이 경고를 해도 하천공사는 강행되었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말한다. "이는 오로지 건설업계만 위한 사업입니다."

요지부동의 "불도저"

유엔의 한 환경기구(UNEP: 역자주)가 계획 단계의 4대강 사업 목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이는 속은 것이라 한다. 서류상으로는 수조 원의 돈을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 투자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참혹한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경기부양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때 한국 최대 건설회사의 사장이었다. 한국인들에게 그는 '불도저'라는 별명으로 통한다.

야당은 올해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 이 건설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다. 베른하르트 교수 역시 그것만이 유일하고도 옳은 결정이라고 본다. 4대강 사업은 완공 후에도 쥐꼬리처럼 길게 추가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한다. 한국의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4대강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만 매년 2억2천만 US달러(2,400여억 원: 역자주)의 예산을 잡아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비판에 태연하다. 4대강 사업 완공 기념행사 기간에 그가 한 냉정한 답변은 "역사적인 일에는 반대가 있기 마련"이었다. (서울에서 파비안 크레취머, 데어 슈탄다르트 지(紙), 인쇄 2012년 1월 5일)

임혜지. 고등학교 때 독일로 이주해 36년째 살고 있다. 건축을 전공하고 건축사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아 문화재 실측조사를 했다. 독일어로 건축사 전공책을, 한국어로 에세이(내게 말을 거는 공간들, 고등어를 금하노라)를 썼다.<한겨레 인기기사>

[시론] ‘이공계 출신’ 국회의원 늘리자 / 이윤배

이공계 출신 국회의원은 전체의
4.4%인 13명에 불과하다
고위공직자도 20% 수준에 그친다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가 21세기 지식기반 정보사회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은 우수한 과학 두뇌를 집중 육성하고 과감한 투자를 통한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1950~60년대 가난과 보릿고개를 극복하고 반도체와 휴대전화, 자동차 등의 수출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된 것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열정 하나로 피와 땀을 쏟은 과학자들의 피나는 노력과 눈물 덕분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반도체, 휴대전화, 평면 티브이(PDP TV), 에어컨 등 세계 1위의 기술력이 다른 나라들에 추월당할 위기에 놓여 있으며, 이공계 이탈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공계 기피 현상이 사회문제로 부각될 때마다 이공계를 살리고 과학 인재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정작 여야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이공계 육성 대책을 강구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 결국 정치권의 무관심은 그 자체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국가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려 21세기 우리나라 과학 및 경제 발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만이 아니지만, 현 정부 들어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특히 과학 컨트롤타워 부재가 과학기술계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가 폐지되면서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개발(R&D) 투자를 책임지고 이끄는 부서는 물론 최고 책임자(CTO)가 누군지 불분명해 과학기술계는 방향을 잃은 채 표류한 지 오래다. 그뿐만이 아니다. 과학기술 전문성이 요구되는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3분의 1에 이르는데도 18대 국회에서 이를 심의할 수 있는 이공계 출신 국회의원은 전체 의원의 4.4%인 13명에 불과하다. 정부 고위공직자의 이공계 출신 비율은 20% 수준이고 30대 그룹의 기

업 최고경영자(CEO)의 경우 이공계 출신은 인문계 출신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반면 세계 우수 선진국들은 21세기 과학 선진국으로서 주도권 장악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고통을 감수하며 과학기술 육성을 미래 국가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끊임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의 요직에 이공계 출신이 즐비하다. 중국의 경우 후진타오 국가 주석을 비롯해 중국 국가 권력의 핵심인 상무위원 전원이 이공계 출신이다. 싱가포르의 리셴룽 총리 또한 수학·컴퓨터 학위를 가진 이공계 출신이다. 그리고 미국 대기업의 최고경영자 40%가 이공계 출신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21세기 과학 선진국이 되려면 이공계 출신 과학자들이 사회적 관심과 존경 속에 자긍심을 갖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공계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 정당은 오는 4·11 총선에서 유력 지역구에 과학기술인들을 적극적으로 전략공천해야 한다. 아울러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비례대표제 본래의 취지를 살려 과학기술인들이 비례대표로 국회에 대거 등원할 수 있도록 ‘이공계 출신 의원 할당제’도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 이공계를 살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과학 입법의 발의가 가능하고 또 자라나는 2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 이공계 지원을 유도할 수도 있다.

어디 그뿐일까. 과학기술인을 우대하고 과학기술에 집중 투자할 때 장기적으로 우리의 경제를 튼튼하게 키울 수 있고, 21세기 먹을거리도 해결할 수 있으며,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는 보편적인 사실을 정치권이 곱씹고 또 곱씹을 일이다.

이윤배 조선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한겨레>

[단독 인터뷰] 정봉주 “BBK라는 판도라 뚜껑 열리기 시작”

검찰 향하는 박영선 의원 차안에서 수감 전 마지막 인터뷰

“오늘은 진실이, 내일은 거짓이 구속될 것…감옥에 있는 쥐 다 잡겠다”

» BBK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을 확정 받은 뒤 차량에 올라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 © News1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서 체온 때문에 옆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면 여름 징역의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그런데 민주화운동 등으로 감옥에서 겨울을 나 본 사람들은 겨울 징역을 ‘곱징역’이라고 부른다.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담요 한 장으로 긴긴 겨울밤 추위와 외로움을 견뎌야 하는 고통 때문이다.

12월26일 곱징역을 살려 검찰에 출두하는 ‘BBK 저격수’ 정봉주(51) 전 의원을 만났다. 국회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서울 영등포당사에 들렀다가 검찰로 향하는 박영선 의원 차 안에서 구속 수감 전 마지막 인터뷰를 했다. 정 전 의원은 “오늘은 진실이 구속되지만 내일은 거짓이 구속될 것”이라며 “이제 비비케이라는 판도라의 뚜껑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소회를 물었다. “(교도소 생활은) 28년 만이에요. 나도 인간인데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장에 나가는 장수가 쫓면 나를 믿고 따르는 병사들,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도 쉽게 무릎 꿇지 않겠어요? 그분들을 믿고 굳건하게 싸울 겁니다. 12월이면 겨울도 곧 지나가요. 올라갈 때 힘들지 내려올 때는 뭐… (옆에 있는 박영선 의원을 가리키며) 박 의원이 곧 구출해주지 않겠어요?”

정 전 의원이 구속된 것은, 지난 22일 대법원이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그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그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상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관한 법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는 물론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해석 범위와 방법을 놓고 논란이 있어왔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정봉주 법으로 명명하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특유의 천진스러운 웃음을 잃지 않았다. “나한테 적용한 법이 미국에서는 1964년에 없어진 법이에요. 설리번 사건이라고 있어요.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뉴욕타임스> 손을 들어주거든. 정봉주법 개정되면 바로 나오는 거지 뭐…” 최고위원회 말미에는 “감옥에 쥐가 아주 많아요. 내가 고양이로 돼서 다 잡을 거야”라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이 얘기한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사건 판결 결정문의 일부 대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그 어떤 법원도 미합중국의 법체계에서 정부에 대한 비방이 기소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그런 가능성조차 내비친 적이 없다.”

“공적인 이슈에 대한 토론은 방해받지 않아야 하고, 강력해야 하며, 널리 열려 있어야 한다는 원칙, 그러자면 정부를 향해 격렬하고 신랄하고 때론 불쾌할 정도로 날 선 공격이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에 온 나라가 충실해야 한다. …우리 헌법은 절대적 주권이 정부가 아닌 국민에게 있는 정치체제를 창조했으며, 우리의 정부 형태는 권력의 집중 혹은 권력 그 자체에 대한 불신에 기반해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다음은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의 때 주요 발언이다.

■ 정봉주 BBK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저는 오늘 이명박 BBK 실소유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구속 수감된다. 국민 여러분 저를 구해주십시오. 저를 구하는 길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다. 이번 다가오는 15일에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에 선거인단으로 모두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민주통합당을 살리고 그 길이 저를 구해내는 길일 것이다. 저는 오늘 진실의 재단에 받쳐지지만 제가 구속 수감됨으로 인해서 BBK 판도라 상자는 다시 열릴 것이다.

오늘은 진실이 구속되지만 다음 차례는 거짓이 구속될 것이다. 그 거짓의 주범이 누구인지 국민은 분명히 알 것이다. 저는 구속되지만 구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BBK 진실을 향한 투쟁은 이제 시작되었고, 이 투쟁의 끝은 4.11총선에서의 승리, 내년 12월 정권탈환으로 이어지리라 굳게 믿으면서 감옥에서 당당하게 굽히지 않고 쫓지 않고 진실을 향해서 정권탈환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 저를 구해 달라. 여러분의 참여가 저를 구할 것이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제가 정책위의장으로서 마지막 발언을 하는 것 같다. 정책위의장으로서 마지막으로 국회에 제출할 법이 잠시 뒤 정봉주 의원과 좀 더 논의를 하겠지만, 바로 정봉주 법이다. 오늘 아침 미국에 LA 타임스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신문들도 ‘대한민국이 국민의 표현에 자유를 구속하고 있다. 정봉주의원의 수감의 바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기사를 여러 곳에서 쓴 바 있다.

이렇게 정봉주 의원이 구속되는 배경이 된 법이 바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관한 법이다. 그런데 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관한 법은 그동안 해석에 범위와 방법을 놓고 여러 차례 논란이 있어왔다. 따라서 저희 민주통합당에서는 우리 잘못되어 있는 공직선

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관한 법 개정을 정봉주 법으로 명명하고 이것을 국회에 제출할 생각이다. 그리고 국회에 제출하고 나서 이 법은 한나라당 의원들과도 지지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제2의 억울한 정봉주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늘 제가 정봉주 의원과 정봉주 의원이 서울지검에 가기까지 함께 동행을 한다. 오늘 함께 동행하는 분들의 복장에 빨간색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빨간색은 정봉주 의원의 억울함과 국민의 분노를 담은 색깔이다. 오늘 원혜영 대표님과 김진표 대표님도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오셨다. 정봉주 의원이 비록 오늘 감옥에 수감되지만 정봉주 의원과 저 그리고 김현미 의원이 밝혔던 BBK의 진실을 반드시 파헤쳐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국민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달라. 신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린다고 저희는 믿고 있다.

상식의 역사

2011년 09월 23일 (금) 이호선 hyosun@joongboo.com

상식은 보편타당하고 영원하며 어떤 이데올로기에도 초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상식이야말로 가장 정치적인 수사이다.

17세기 영국 보수주의 철학자들은 회의주의와 무신론을 타파하기 위해, 유럽에서는 주로 진보주의 철학자들이 현상 타파를 위해 상식을 내걸었다.

토머스 페인을 비롯한 급진적 사상가들은 상식을 외치며 미국혁명에 불을 질렀고, 20년 뒤 프랑스에서는 혁명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상식을 걸고 혁명을 공격했다.

이렇듯 상식은 좌파와 우파 할 것 없이 어느 쪽에서든 반대자들을 공격하는 무기로 자주 쓰였다. 보수주의자들은 기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급진주의자들은 현재의 정치질서를 뒤엎거나 다시 세우기 위해 상식을 외친 것이다.

최근 국내에 번역 출간된 ‘상식의 역사’(부글북스)를 쓴 소피아 로젠펠드 미국 버지니아대 교수는 일상 속 경험을 바탕으로 매일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판단을 간단히 내리도록 해주는 인간의 기본적인 재능, 또는 여기에서 나온 저명하면서도 폭넓게 공유되는 결론들을 ‘상식’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상식으로 위장된 편견과 포퓰리즘의 역사를 풀어낸다. 영국 명예혁명 전후부터 프랑스의 계몽운동을 거쳐 현재의 포퓰리즘까지 350년에 걸쳐 상식이 정치적·문화적 아이디어로 세계사에 미친 영향을 더듬는다.

현대에 들어서는 정치적인 문제들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전문적으로 변하고 있다. 탁월한 경제학자들과 과학자들까지도 금융 분야나 지구 환경이 엉망인 이유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인터넷 시대를 맞아 공적 영역은 서로 다른 목소리로 넘친다.

그럼에도 민주주의가 유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글로벌 규범으로 자리잡은 지금, 상식은 공적 생활에서나 관념적으로나 수사적으로나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저자가 내놓은 책 말미에 내놓은 제안들을 새겨들을 만하다.

“민주주의가 성공하려면 공통가치들의 촉진도 필요하고 동시에 정치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식’이라 불리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인식도 필요하다. 자유주의적 입헌주의와 전문적 지식과 긴장관계에 있는 상식은 민주주의라는 동전의 집단적인 다른 한 면이다. 상식은 비공식적인 규제시스템과 정치적 권위로서 언제나 민주주의의 이상들을 훼손시키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개인들은 의식적으로라도 상식의 밖에 서서 그 상식이 작동하는 복잡하고 막강한 과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효선기자/hyosun@joongboo.com

상식 = 토머스 페인 지음. 남경태 옮김. 인지세법과 보스턴 차 사건으로 영국과 신대륙 식민지의 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미국의 '독립혁명'이 시대의 '상식'임을 주장한 책.

그는 저서에 "권리를 수호하려는 사람들을 지상에서 근절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당파적 입장과 무관하게 감정의 본성을 가진 모든 인간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쓴다.

2.11. 인용문헌

경향신문. [기고]우리는 왜 분노하는가(이배화)

국민에게 고함. 나홀로정론 (ssinmungo. 11.07.23:59.

수원시민신문. ‘투신자살’ 삼성전자 노동자 유가족, 공장 앞 ‘1인 시위’
웃으며 살자. daum.net

중부일보. 상식의 역사. 이효선(hyosun@joongboo.com)

직업선택의 십계. 거창고등학교.

한겨레신문. [세상 읽기] 후배에게 권하고 싶은 책. (금태섭).

한겨레신문. 단독 인터뷰. 정봉주 “BBK라는 판도라 뚜껑 열리기 시작”

한겨레신문. 오스트리아 언론 “4대강, 완전히 정신나간짓”

한겨레신문. 칼럼. [박노자 칼럼] 한국자본의 ‘통념’, 인종주의(박노자).